금주의 법구–〈대애도비구니경〉
술은 현명함을 몰아내고
성스러움을 깨뜨리며
화를 부르는 근본이 된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52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6월 8일) 2019년 7월 10일 수요일

“탁발 등 新콘텐츠 도입 범국민 모금캠페인 확대”

7년 맞은 행복바라미 현황과 과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계 첫 대국민 나눔 캠페인 ‘행복바라미’가 출범 7년을 맞았다. ‘행복바라미’가 범국민 캠페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콘텐츠 개발과 불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캠페인 확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는 6월 30일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2019행복바라미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행복바라미의 지속 성장을 위한 과제를 짚는 공청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불교 대표 나눔캠페인 자리매김

행복바라미는 2012년 말 이기흥 제25대 중앙신도회장이 취임과 함께 조계종 중앙신도회 25대 집행부에서 중점 사업으로 시작했다.

공청회 발표에 따르면 기독교계 모금 단체인 월드비전은 2320억 원, 굿네이버스는 2080억 원으로 두 단체에서만 40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모연됐다. 이에 비해 불교계는 아름다운동행 47억 원, JTS 4억 원, 지구촌공생회 25억 원 등 100억 원이 채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행복바라미 캠페인은 전국 사찰 순회 등을 통한 동참을 유도하며 성장했다. 이는 모금소의 증가를 보면 알 수 있다. 2013년 108개 모금소를 시작으로 2014년 114개소, 2015년 141개소, 2016년 167개소, 2017년 198개소, 2018년 207개소로 확장됐다. 모금액도 2013년 1억 1900여 만원에서 2014년 1억 1100여 만원, 2015년 1억 7100여 만원, 2016년 2억 700여만원, 2017년 2억 3000여만원, 2018년 2억 2100여 만원 등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4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개막한 이후 지역 중심으로 변환돼 지난해보다 두 배 많은 18개 교구본사에서 행사가 열렸다. 주요 사찰 등 전국 500여 곳의 모금소가 개설돼 현재까지 총 1억 6000여 만원이 모였고 이는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도 모금액의 70%를 넘어서는 성과다.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총 2203명에 달하는 기초수급과 차상위, 저소득층 계층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진행해 불교 기부모금 활동의 가능성을 보였다.

‘전국 탁발’ ‘불자대회’ 등 콘텐츠 필요

행복바라미 캠페인이 범국민 자비나눔 캠페인으로 발전하기 위해 현장에서는 다양한 부분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단 의견이 제시됐다.

행복바라미 원주지역문화제를 주도한 임현규 조계종 제4교구 신도회 총무부장은 “자비나눔과 함께 전통문화 계승발전이란 본 취지에 맞는 공연이 이어져야 한다. 어떤 지역문화제의 경우 벨리댄스 등이 공연되는데 전통공연 중심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불교전통과 거리모금을 접합한 탁발행사를 확대하자는 요청도 나왔다. 대전지역 탁발 행사를 진행해 온 박은주 조계종 제6교구 신도회 홍보부장은 “거리모금이 주요 목적이기에 모금소 설치와 함께 문화제 일환으로 탁발행사를 진행했다. 스님들이 일제히 발우를 들고 탁발을 하니 어떤 행사인지 관심을 갖는 이들이 많았다”며 “재가자 중심으로 시작된 모금캠페인에 스님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도단체들의 동참을 위해 지역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찬영 중앙신도회 사회공헌 팀장은 “현재 행복바라미의 모금 조직 중 포교사단의 비중이 상당하다. 올해 사찰 외 모금소 217곳 중 78곳에서 포교사단이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며 “거리 모금 포교사들의 정체성 문제도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동참을 이끄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계 첫 대국민 나눔캠페인
7년간 12억여 원 자비나눔
지역중심 전환 후 본격궤도

모금 활동가 정체성 확보
대중 노출 확대 필요성 제기

이어 이 팀장은 “구세군의 2018년 거리모금 액수는 39억여원으로 생각보다 많지 않다. 하지만 명동역 등에서 꾸준히 모금하는 것은 구세군에 대한 국민인식, 이미지 때문”이라며 “기대 모연액이 적어도 노출도가 높은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장에서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행사를 꾸리기 위해 네트워크를 통해 불자들의 재능기부를 이끄는 방안도 나왔다.

고태식 조계종 제23교구 신도회 사무처장은 “실제로 행사를 기획할 때 불교계 신행단체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어려웠다. 여기에 작은 예산으로 행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막막했다”고 말했다.

박은주 홍보부장은 “불자 기능인들을 중심으로 재능기부를 받는 방법이 있다. 숨어있는 불자 인프라를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제안했다.

전연만 중앙신도회 부회장은 “향후 기존 권역별 간담회를 통한 지역별 목소리를 청취하고, 워크샵을 통해 함께 역량을 모으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佛都 부산 ‘수국 만다라’ 장엄중

진은 기장 고불사에 핀 수국들.

장마가 시작된 듯 하더니 본격적인 더위가 다가왔다. 여름이 다가오면 만개하는 ‘여름 꽃’은 수국이다. 수국의 한자 이름은 수구화(繡毬花)로 비단으로 수를 놓은 것 같은 둥근 꽃이라는 뜻이다. 불도(佛都) 부산에는 수국들이 만개해 자태를 뽐내고 있다. 사진=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안정적 한반도 평화체제 기대”

南北美 정상회담에 주요 종단 환영 입장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미 대통령의 판문점 정상회담에 불교계 각 종단이 잇달아 환영 입장을 밝혔다.

먼저 조계종은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담에 대한 환영 논평을 7월 1일 발표했다. 조계종은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회동에 조계종은 모든 불자들과 함께 환영한다”며 “하노이 만남 이후 교착국면을 거듭해오던 북미 및 남북관계의 새 진전을 알리는 역사적인 회동”이라고 평가했다.

조계종은 이어 “역사의 장이 펼쳐진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한 소신과 의지 결과물”이라며 “회동을 계기로 새 북미관계 대화 물줄기가 흘러 남북관계의 발전적인 변화 속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계종은 “우리종단 역시 남북 불교도 교유와 협력을 더욱 활성화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해 정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태종은 7월 2일 발표한 논평에서 “판문점 회동을 계기로 새로운 북미관계의 실질적 대화의 장이 재개되고, 정상의 만남이 워싱턴과 서울, 평양회담으로 이어져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으로 정착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회담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흔들림 없는 의지와 마중물의 결과물로 경의를 표한다. 천태종도 애국불교의 정신으로 남북불교도들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 기반 조성에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관음종도 환영 논평을 통해 “현직 미국 대통령이 짧은 시간이지만 북한 땅을 방문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앞당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됐다”며 “비무장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의 극적인 조우는 평화 한반도의 역사적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덕현 · 윤호섭 기자

종교지도자協 대표의장에 원행 스님

6월 27일 정기이사회서 선출, 임기 2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사진〉이 국내 7대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제14대 대표의장에 선출됐다.

종지협은 6월 27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 ‘2019년 정기 이사회’를 열고, 임기 만료된 전임 대표의장 김희중 대주교(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에 이어 원행 스님을 새 대표의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2년.

원행 스님은 대표의장 선출 직후 종교간 화합을 도모해 사회 안정에 보탬이 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사회에는 원행 스님을 비롯해 김희중 대주교,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 김영근 유교 성균관장, 송범두 천도교 교령 등이 참석했다.



한편 종지협은 1997년 종교 화합과 교류를 위해 설립됐다. 불교를 비롯해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민족종교 등 7개 종교단체 수장이 참여하고 있다. 매년 종교문화축제와 종교지도자 성지순례, 종교간 대화프로그램 등을 이어오고 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선학원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제기

선학원 분원장들,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단법인 선학원의 회계장부와 이사회 회의록 등의 열람 등을 골자로 한 가처분이 제기됐다.

선학원 창건주 · 분원장 스님들은 6월 25일 재단법인 선학원을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여직원 성추행으로 징역 판결을 받은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의 거취와 별개로, 선학원 구성원인 창건주 · 분원장들에게 법인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이뤄진 것이다.

특히 선학원 이사회가 올 초 회의서 재단 등록 이후 각 분원이 취득한 재산까지 증여토록 분원관리규정을 개정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사회 회의록을 비롯해 결산보고서 등 주요 자료를 구성원들이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창건주 · 분원장 스님들은 "선학원에 사찰을 증여하고 분담금을 납부하는 분원장들은 자신이 낸 분담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사회 의사록과 회계장부 등을 열람 · 등사할 권리가 있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스님들은 또한 현재 선학원 이사회가 의사록뿐만 아니라 예결산 자료 등을 공개한 사실이 없고, 재단의 재산목록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스님들은 "선학원은 1년에 1회 전국분원장회의를 열고 경상비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만 아무런 증빙도 없이 내역을 개략적으로 열거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며 "더불어 선학원은 2012년부터 전국분원장회의마저 개최하지 않아 구성원들은 재단의 예결산 내역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서에는 지난 1월 24일 선학원 이사회가 개정한 분원관리규정 내용도 담겼다. 이는 앞서 이사장 법진 스님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소송 중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부터 분원장회의 全無
분담금 사용내역 분원장 몰라

선학원은 재단의 분원 창건주(분원장)로 등록한 이후 취득한 재산을 재단에 등록하지 않은 창건주와 운영권자를 해임하고 당해 분원을 사고사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분원관리규정 개정에 소송에 참여한 스님들은 "재단은 법인으로서 출연된 재산을 재단 설립목적에 부합하게 관리할 의무와 권한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재단에 등록한 분원장들이 등록 이후에 취득한 재산을 증여할 것을 강제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분원장서 해임할 것을 협박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무효인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호섭 기자**

8대 총림 현황 재조사, 총림은 '냉담'

총림실사특위 첫 회의… 간사엔 도심 스님 선출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가 전국 8대 총림 현황 재조사에 나선다. 앞서 2016년 제16대 중앙종회가 한 차례 총림실사 후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지만, 출가자 급감에 따라 총림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림실사특별위원회(위원장 각림)는 7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첫 회의를 열고, 빠른 시일 내 8대 총림에 대한 실사를 진행키로 결의했다. 실사 시기는 총림방장이 주석하는 하안거 기간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8대 총림에 각각 위원 전원이 방문해 총림요건 충족 여부와 총림운영상 겪는 어려움 등 전반적인 총림 현황파악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원장 각림 스님은 "출가자 급감에 따른 총림제도의 종책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선행과업으로 총림 수행기관 운영 현황과 적정성 조사가 불가피하다"면서 "안거 결제기간 중 조심스럽지만 실사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활동해달라"고 당부했다.

특위는 이날 간사에 도심 스님을 선출하고, 구체적인 총림실사 일정은 위원장과 간사 · 중앙종회사무처 논의를 통해 확정키로 했다.

위원 태효 스님은 "16대 중앙종회에 이어 17대서도 총림실사가 구성된 것은 그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이라며 "현행 총림제도의 정책에 변화가 필요한지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총림실사특위의 이 같은 결정에 수년 전, 이미 한 차례 실사를 거친 총림들은 대부분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3년 전보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데다가 당시 실사 이후에도 입법기구 차원서 이렇다 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총림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두고 특정 총림을 지정 해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현재 통도사와 수덕사를 제외한 모든 총림이 염불원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총림은 승가대학의 최소인원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안거 기간에 전국총림 실사
총림 요건 충족 여부 등 조사
2016년 실사에 이어 두 번째

대부분 총림 현재 요건 미달
출가자 급감에 제도변화 절실
특정 총림 겨냥 우려도 나와


제17대 중앙종회 총림실사특위가 7월 1일 첫 회의서 총림실사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전라권 A총림 관계자는 "염불원이 총림 구성요건에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곳은 드물다. 염불이 중요한 건 맞지만 승려교육과정에서 염불교육은 반드시 이뤄지기 때문에 염불원에 대한 개념과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총림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B총림 관계자도 단순한 총림 구성요건보다는 수행가풍과 총림으로서의 의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단순히 종헌종법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총림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 애초에 구성요건에 따라 총림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총림에서는 현실에 맞는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만을 강요할 게 아니라, 현재 규정이 총림 실정에 맞지 않는 과한 규제로 작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뜻이다.

경상권 C총림 관계자는 "총림운영은 지역 불심(佛心)에 따라 차이가 크다. 몇몇 지역은 강원을 운영하기에도 벅찬 게 현실"이라며 "이제는 총림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때가 된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16대 중앙종회 총림실사특위 조사 당시 총림 구성요건인 선원 · 승가대학 및 승가대학원 · 율원 및 율학승가대학원 · 염불원을 모두 갖춘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모든 총림이 염불원을 운영하지 않았으며, 덕숭총림이 유일하게 '삼장원'을 두고 염불원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총림 승가대학이 최소정원에 미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통도사가 염불원을 설립하는 등 일부 변화는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총림이 자격요건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해남 대흥사 주지 법상 스님 임명

총무원장 원행 스님, 7월 2일 "대중 화합 기대"

조계종 제22교구본사 해남 대흥사 주지에 법상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7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前중앙종회의원 법상 스님에게 주지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서 원행 스님은 "본사주지로서 지도력을 발휘해 대중을 화합하고, 역할분담을 잘해 교구를 이끌어달라"면서 "서산 · 사명 · 처영대사의 가풍을 이어 훌륭한 본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법상 스님은 "산중 어른스님과 대중스님들을 잘 모시고 화합하도록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화답했다.

법상 스님은 1992년 은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3년 송광사에서 보성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2003년 통도사에서 보성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2003년 해인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조계종 호법부 상임감찰, 호법과장, 포교원 신도국장, 무안 법천사 주지, 대구 안일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최근까지 제17대 중앙종회의원으로 활동했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사진 왼쪽)이 대흥사 신임주지 법상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는 모습.

연등회 빛낸 주역 '아름다운 노고'

연등회보존위원회 7월 2일 2019연등회 참가자 시상식

지난 5월 전국을 환히 밝힌 연등회서 누구보다 뛰어난 열정으로 성공적인 축제를 이끈 불자들을 치하하는 자리가 열렸다.

연등회보존위원회는 7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불기2563(2019)년 연등회 시상식을 개최하고, 총 28개 단체와 개인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올해는 20개 단체에 정진상 · 보현상 · 원력상 · 특별상이 수여됐으며, 개인과 단체에 대한 표창패도 전달됐다.

정진상은 봉은사 북장엄단을 비롯한 5개 단체가, 보현상은 도선사 어린이 · 학생법회를 비롯한 6개 단체가 수상했다. 또한 진관사 지화반 화장회 등 7개 단체는 원력상을 받았다. 연등회보존위에 따르면 올해는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과 정성을 바탕으로 참여하고 세대전승과 교육, 연등공방 운영에 적극적이고 모범이 된 단체를 중심으로 시상했다.

특별상은 어울림마당과 연등행렬이 진행되는 곳곳에서 진행요원으로 활동한 포교사단 서울지역단, 남방불교의 전통문화를 전하고 스님과 신도가 함께 질서정연한 행렬을 보여준 태국불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뿐만 아니라 전통문화마당에서 호응이 높았던 공연과 프로그램 운영에 모범이 된 '소을소리판' 민혜성 대표와 천태종복지재단, 탑골관람석에서 중국어와 일본어로 현장안내를 도운 조홍매 씨와 시마다 마사코 씨 등도 표창패를 받았다.

연등회보존위는 "시상식은 순위를 매겨 우열을 가리기 위함이 아니라 화합과 협력, 노력과 정성, 적극성과 열정으로 연등회를 함께 준비한 사찰과 단체의 격려 자리로 마련했다"며 "올해 연등회를 준비하면서 즐거웠던 일을 회상하고 돌아보며 마무리했으면 한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신성민 기자**



2019연등회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주최 측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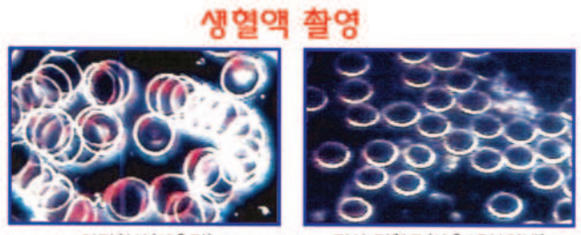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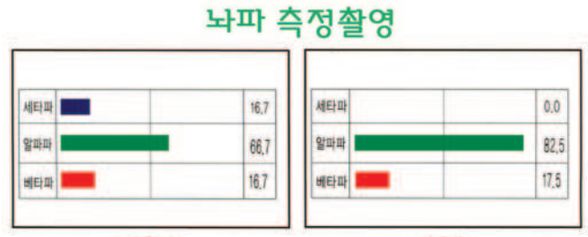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항균(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8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탈모예방 발모촉진

사용전 사용6개월 후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 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BLOOD MATE®의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은어깨, 허리통증, 방사능 제거(세슘) 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 (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검버섯 제거 현상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北미술 '금강산 묘길상도' 국박에 기증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2019년 상반기 5명의 개인 소장가로부터 6건 19점을 기증받았다"며 7월 3일 기증품들을 공개했다.

기증품 중에는 20세기 북한 화가 선우영(946~2009)이 그린 '금강산 묘길상도(妙吉祥圖)' 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금강산 묘길상도' 는 고려대 명예교수이자 외무부 장관, 주미대사를 지낸 한승주(79)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이 기증한 것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입수된 첫 북한미술작품이기도 하다. 이 그림은 한승주 이사장이 2006년 윤이상음악제 참관 차 평양을 방문했을 때 천리마 제작소에서 선우영 작가로부터 직접 구입했다.

선우영 작가는 북한을 대표하는 진채세화의 대가로서 공훈예술가와 인민예술가의 칭호를 받았다. 그의 60여 점의 작품은 북한의 국보로 지정돼 있다. 선우영의 작품인 '금강산 묘길상도' 는 작가 특유의 세화기법과 진한 채색으로 금강산 만폭동 소재 고려 마애불 묘길상과 주변 풍경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글=신성민 기자 · 사진제공=국립중앙박물관

불교방송 사장 추천 절차, 공모 여부 논란

이각범 불교진흥원 이사장 기자간담회서 해명

후보추천위 구성하지 않고
후보 출마의사 확인 안 해
절차적 하자 비판도 제기
"불교방송 이사회 의견 수용"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7월 3일 서울 마포 다보빌딩 불교진흥원 집무실서 불교방송 사장후보 추천 절차에 대해 해명하는 이각범 이사장.

(재)대한불교진흥원이 최근 BBS불교방송 사장후보로 선상신 현 사장과 최윤희 라디오편성제작국장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진흥원은 사장 추천절차 관례인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나 외부 공모를 하지 않아 제기된 지적에 "불교방송 이사회가 공식적으로 절차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각범 진흥원 이사장은 7월 3일 서울 마포 다보빌딩 15층 사무실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장후보 추천은 불교방송 사장으로서 어떤 인물을 제안하는 게 가장 좋은지 진흥원 이사회의 고민 끝에 나온 결과"라며 "그간 외부인사로 선출한 전직 사장들의 경영 실적이 좋지 않았기에 내부 인사를 복수 추천했다. 불교방송 이사회서 이번 후보추천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추천안을 반려한다면 그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이 이사장은 외부공모로 인한 선거국면의 폐해를 우려하면서 유명 대학총장 직선제를 예로 들었다. 그는 "직선제를 선택했던 대학들이 더 이상 선거를 하지 않으려 한다. 4년마다 학교가 선거판으로 변하는 것이 문제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진흥원 이사회는 기존의 사장 후보 추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 이사장에 따르면 진흥원 이사회는 그간의 관례와 달리 이사회가 직접 적합한 후보를 물색해 최종 선정했다. 특히 이사회의 테이블 위에 올라온 7명의 사장후보 논의과정에서 각 후보들에 대한 개인별 출마 의사조차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최종후보로 추천된 최윤희 국장에 대해서는 이각범 이사장이 직접 이력서 제출을 종용했다고 밝혀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이 이사장은 "최 국장을 들러리로 세우려 하진 않았다. 출마 의사를 확인하진 않았지만 불교방송의 미래 인재로 적합하다고 판단해 이력서를 내라고 했다"며 "7명의 이사들이 4시간 넘도록 심사숙고한 결정이다. 내 의견은 극히 일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 이사장은 간담회 내내 선상신 현 사장에 대한 강한 신뢰를 표했다. 그는 "많은 회사들이 부실경영으로 위기에 처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일이 많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현 사장은 회사 운영을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사회도 현 사장에 대한 추천은 30분 만에 결정했을 정도로 신임이 두터웠다"며 "경쟁후보인 최윤희 국장도 경영에 대한 식견이 있고, 후보의 다양성면에 있어서 적합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이사장은 각 후보들의 경영계획서를 받았냐는 질문에 받지 않았다고 밝혀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 이사장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 이사장은 "관례대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했다면 이처럼 오해를 받진 않았을 것 같다"며 사실상 일부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외부 공모는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강한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한 불교방송 이사는 "사장 추천과정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많은 이들이 도전할 수 있게 기회의 문은 공평히 열어놓아야 한다"면서 "이번 진흥원 결정은 한편으로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한 불만을 피력했다.

한편 이 이사장은 불교방송 희망노조가 제기한 '이각범의 화쟁토론' 제작비 사적인 지출 의혹에 대해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주요 인사들과의 토론 자리를 위해 사용했을 뿐 절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본질을 호도한 희망노조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하겠다"고 토로했다.

불교교리 부합한 공유경제 모색

고대 불자교우회, 7월 4일 제1차 불교경제경영포럼 개최

불교의 공동체 사상을 반영한 공유경제를 활용, 불자경제경영공동체를 추진하는 포럼이 열렸다.

고려대 불자교우회(회장 최평규)는 7월 4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불교경제경영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윤성식 명예교수가 기조발제 '불교경제공동체를 복원하여 불국정토를 구현하자' 를 통해 "불교경제공동체는 물리적 공간에 국한될 필요가 없다. 가정, 직장, 사찰에서 불교경제관에 의해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불교경제공동체"라며 "사찰과 재가자 단체 중심의 개별 불교경제공동체를 한데 묶는 메타불교경제공동체로 나누어 불교경제공동체 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윤 명예교수는 이어 "소유보다 임대와 공동소유를 강조하는 공유경제, 새로운 경조사 문화의 시범실시, 불교은행 설립 및 생산자와 소비자 협동조합 등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며 "종단은 메타불교경제공동체를 위한 플랫폼만 구축하고 개별불교경제공동체를 지원해 나간다면 다양한 경제공동체로의 진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포럼에는 최평규 고려대 불자교우회장과 포럼 고문단장을 맡은 이기수 前고려대 총장 등이 참여했다.

최평규 고려대 불자교우회장은 "불교경제경영포럼은 온오프라인 경제계 수행자 인드라망 구축이 목표"라며 "향후 포럼 로드맵을 정리하여 2차 포럼에는 정식 법인등록으로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수 고문단장은 "포럼 발족으로 부처님의 경제에 대한 생각을 현대에 맞게 풀어 불자들에게 참된 경제관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노덕현 기자

대행선, 불교학 · 선학 접점 찾는다

대행선연구원, 7월 20일 제4회 계절발표회

'한마음 주인공 관법' 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선사상과 불교학, 선학의 접점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이평래)은 7월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에서 제4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에서는 대행선과 인도철학 · 유식과의 접점을 살핀 연구논문들이 발표된다.

심준보 금강대 교수는 '대행 스님의 한마음과 불이론 쉬바파의 쉬바 개념의 비교' 를 소개하며, 안유숙 동국대 교수는 '대승유가행파의 유식관법과 대행선사의 한마음 수행법에 관한 비교 고찰' 을 발표한다.

논평자로는 백도수(능인대학원대), 심재관(상지대), 김성철(금강대), 김재권(능인대학원대) 등이 참석한다.

대행선연구원은 "한국불교의 미래 100년을 위해 선학 · 불교학 관련 중견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봄 · 여름 · 가을 · 겨울 4번에 걸쳐 관련 학자들을 초청해 발표 ·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며 "관심있는 불자와 관련 전공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법현스님과 함께하는 법구경

읽는 그대로 깨달음의 詩





저자 — **무상 법현** 스님

하시는 일 뜻대로 되시고 함께 하는 이들이 강건하고 화평하시기를 삼보님께 축원 드립니다.

저잣거리 수행전법도량 열린선원과 일본 나가노 금강사, 인천공항 세계선원에서 전법교화하는 무상 법현 인사드립니다.

«법현스님과 함께하는 법구경, 읽는 그대로 깨달음의 詩»를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우리말 글로 새김하였습니다. 사진을 많이 넣고 부처님 게송에 댓글 풀이도 아주 조금 넣어서 읽기 편합니다.

책상 위에 두거나 가방, 주머니 등에 넣어 다니기 좋습니다. 아무 때나 어느 곳에서나 어느 쪽을 열어보아도 좋습니다.

부처님 게송이 아주 좋고 법현스님 풀이는 체계적이며 짧아서 스님, 법사님, 불자님이나 일반인에게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한언출판사
열린선원 선원장 **무상 법현** | 합장

법보시 / 구입 안내

- **법보시 용으로 100권 이상 구입 시,** 법현 스님에게 직접 연락해주십시오.
- 예스24, 아마존,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한언출판사 / 정가 **7,900원**

세계인이 사랑하는 **불교 시 경전**인 **법구경**을 쉬운 우리말 글로 새기고 법현스님의 짧은 댓글과 많은 사진으로 시원하게 편집하여 손에 쏙 들어옵니다.

문 의 무상 법현 스님 **010.5245.0370**

“사색 문화 복원에 불교 미래 있다”

한국명상지도자協, 6월 29일 창립 첫 포럼

300여 명상 관계자 모여 논의
시대별 수행법과 명상법 비교
“통불교 전통 활용, 새수행 창달”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6월 29일 열린 명상지도자포럼에서는 명상수행법 보급을 통한 지성불교로의 발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사색 문화를 회복하기 위해 명상 수행을 적극 활용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교가 지닌 고유한 매력을 다시금 대중에게 알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이사장 혜거)는 6월 2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명상과 깨달음’을 주제로 협회 첫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동사섭 수행법을 개발해 전파해 온 행복마을 이사장 용타 스님이 ‘명상과 깨달음 단상’을 주제로 기조발제했다.

용타 스님은 이날 한국불교의 최고 위기는 바로 사색의 부재이며, 명상수행 보급을 통해 기복불교에서 지성불교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에 경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용타 스님은 “청소년 시절 가장 존경한 인물 슈바이처 박사는 20세기 최고 위기는 사색의 부재라고 했다. 이 말을 그대로 우리 한국불교에 끌고 와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부처님은 사색을 하여 사성제, 십이연기, 팔정도의 수행체계를 정립하셨고, 삶의 기준을 전파했다. 한국불교가 일본이나 티벳불교를 넘어서기 여려운 현실은 바로 사유와 사색의 취약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스님은 이러한 사색의 부재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명상문화의 보급을 들었다. 불교계에서 명상이 불교수행의 낮은 단계에 머무르는 것이란 인식을 떨쳐버리고, 일반 대중의 생활 양식을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방편으로 활용해 가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스님은 “명상은 고요한 마음으로 사유한다는 것으로, 가톨릭에서도 묵상이라는 개념이 있다. 명상은 결국 팔정도 덕목과 상응한다. 정념과 정정은 명에, 정견과 정사유는 상에 상응되기에 불교수행과 다름이 아니다”고 정의하며 “부처님의 지성불교, 자등명불교를 문을 닫을지 부흥을 시도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결국 따라주는 사람이 적으면 문을 닫아가게 되는 법”이라며 “외롭더라도 난행문으로서 지성불교를 살리는 길을 걸어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300여 명의 불자대중이 모여 초기불교부터 티벳불교, 참선불교, 현대화된 명상에서의 깨달음 등을 비교 정의하고 수행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먼저 김열권 마하위빠사나명상원장은 ‘초기불교에서 본 명상과 깨달음’ 발제에서 “우리나라는 통불교 전통과 비교적 개방적인 환경에서 남방불교와 티벳불교를 받아들이고 있다. 국수주의 관점을 넘어 한국은 근본불교가 복고돼 정착하기 가장 훌륭한 토양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아비담마의 현상의 정밀한 관찰, 발보리심에 바탕한 다양한 사마타수행과 대승관법, 화두선의 장점인 본성관이 특성을 살리며 보완될 때 완벽한 근본불법의 수행이 나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포럼에서는 오상목 행복수업 교장의 ‘티베트불교 입장에서 본 명상과 깨달음’, 보리마을 자비선명상원장 지운 스님의 ‘통합명상 입장에서 본 명상과 깨달음’, 박희승 성철선사상연구원 교수의 ‘참선과 깨달음에 대하여’ 발표와 함께 김재성 자애통찰명상원장, 수월관음명상센터장 수월 스님, 세첸코리아 대표 용수 스님, 행불선원장 월호 스님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BTN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만명 돌파

종교방송 최대 구독 기록… 누적조회 3700만뷰

인문 · 순례 등 콘텐츠 다양
유튜브 전용 콘텐츠 제작도

BTN불교TV가 종교계 방송국들이 개설한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 10만 명을 최초로 돌파했다.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 이하 BTN)은 “공식 유튜브 채널인 ‘BTN 채널’이 구독자 10만 명을 7월 1일자로 돌파했다”고 7월 2일 밝혔다.

개신교와 가톨릭 등을 포함한 종교 방송국 유튜브 채널 중 10만 명 구독자를 달성한 채널은 BTN이 유일하다. CBSJOY 구독자는 7만5000명, CTS는 7만 명 정도며 평화방송은 6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BTN 유튜브 채널은 단순히 기존 프로그램을 업로드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 맞게 편집하고 TV에서 미처 보지 못한 다양한 콘텐츠를 추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까지 업로드 된 동영상만 8000여 개, 총 누적 조회수는 3천 700만 뷰에 육박한다. 이 같은 노력으로 최근 1년 사이에만 8만 명의 구독자가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채널 구성도 다채롭다. 스님들의 법문과 강의를 비롯해 인문학 · 명상 · 사찰순례 · 불교문화들을 다양하게 영상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불교종합채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눈높이 법문으로 유명한 ‘광우스님의 소나무’는 350개에 달하는 개별 콘텐츠마다 평균 조회 수 5만회를 넘으며 불자와 일반인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BTN의 대표 콘텐츠 ‘나를 깨우는 108배’의 경우에는 지난 6월 100만 조회수를 넘겼다.

또한 BTN또한 지난 4월부터는 TV 프로그램의 재편집 콘텐츠뿐만 아니라 유튜브 전용 컨텐츠를 신규 제작하고 있다. 생생하게 불교역사와 문화재에 대해 낱낱이 알려주는 ‘자현스님의 쏘댕기기’, 도심근교의 사찰과 자연의 풍경과 소리를 그대로 담은 ASMR ‘쌩백색소음’, 20~30대를 겨냥하여 특색 있는 사찰들을 소개하는 ‘안녕, 템플 톡톡’ 등이 그것이다. 또한 7월부터는 광우 스님의 불교교리강좌가 유튜브 전용으로 신설될 예정이다.

한효진 BTN 뉴미디어부장은 “앞으로 공식 유튜브 채널 이외에 좀 더 편하게 불교를 만날 수 있는 제2의 채널을 개설할 계획이다. 차별화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이론물리학 관점으로 본 우주와 세계

불교진흥원, 7월 16일 화요강좌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각범)은 7월 16일 오후 7시 서울 마포 다보빌딩 3층 다보원서 ‘떨림과 울림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화요열린 강좌를 개최한다.

강좌에는 김상욱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가 저서 〈떨림과 울림〉을 중심으로 강의에 나선다. 강좌서는 이론물리학 관점으로 본 우주와 세계, 삶을 구성하는 관계 등을 알아본다.

김상욱 교수는 카이스트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서 ‘상대론적 혼돈 및 혼돈계의 양자 국소화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포스텍, 카이스트, 독일 막스-플랑크 복잡계 연구소 연구원을 비롯해 서울대 BK조교수, 부산대 물리교육과 교수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김상욱의 과학공부〉 〈김상욱의 양자공부〉 〈영화는 좋은데 과학은 싫다고〉 등이 있다.

윤호섭 기자

陸海空 軍부루나존자 10명 탄생

군종교구, 6월 28일 2019신임군승 임관식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선묵 혜자)는 6월 28일 충북 영동 육군종합행정학교(학교장 이국재)에서 제52기 신임군승 임관식 및 고불식을 봉행했다.

이번 임관식에서는 육 · 해 · 공군 각급 부대 군법당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할 신임군승 10명이 탄생했다.

이들은 4월 24일 괴산 학생군사학교에 입대해 6주간 군사교육을 받았으며, 영동 종합행정학교에서 3주간 군종장교 직무교육을 이수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이 임관군승에게 야전가사를 전달하고 있다.

임관 군승법사는 육군 7명, 해군 1명, 공군 2명 등 총 10명으로 육군군승 강재 김형우(수기사 26여단) 흥인 정민협(5사단 36연대) 정인 정지운(3사단 18연대) 보리 김태혁(12사단 52연대) 정여 최승호(27사단 78연대) 적담 정인호(28사단 82연대) 각담 문정현(7사단 3연대) 등이며, 해군군승 현기 심기탁(해군인천방위사령부) 공군군승 법일 김재현(공군 18전비), 미공 조성일(공군 2여단) 등이다.

특히 올해 임관 군승 중 5사단 36연대에 보직을 받은 흥인 정민협 군승은 교육성적 우수로 종합행정학교 학교장상을 수상했으며, 28사단 82연대에 보직받은 적담 정인호 군승은 모범적인 학교생활로 종합행정학교 학교장상을 수상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은 임관식 후 종합행정학교 남성사에서 봉행된 고불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108염주와 야전(전시)가사 등을 전하며 축하했다.

임관한 군승법사들은 고불식을 통해 “수행자인 군승의 본분을 잃지 않을 것이며, 언제나 장병들과 함께하며, 부처님 법을 전하는데 혼신을 다하겠다”고 전법의 의지를 밝혔다.

군종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은 “불교자비와 화쟁정신을 바탕으로 국군용사들이 있는 곳마다 함께 하고, 수행자로서 삶의 모범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보육교사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보육교사 연수 및 모범교사 표창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산하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원행)은 7월 2일 서울 중림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서 어린이집과 보육시설 종사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보육교사 연수 및 모범 보육교사 포상’을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전국 40여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조계종복지재단이 종사자 업무역량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했다.

연수에서는 보육현장에서 간과할 수 있는 행동을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고, 아동학대예방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한 토크콘서트 ‘쉼’을 진행, 직무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학무보 · 교사간 원활한 소통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이와 함께 복지재단은 보육현장서 모범이 되는 교사들의 공로를 치하했다. 재단 산하 어린이집원장협의회를 통해 각 어린이집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들의 장기근속, 업무 수행의 전문성과 창의성 등을 평가, 대표이사상과 상임이사상 각 3명을 선정했다.



수상자인 이혜리 교사(구로연꽃어린이집) 등 6명은 어린이집에서 적게는 13년, 많게는 17년간 근무하며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재단 상임이사 보인 스님은 “사랑으로 아이들을 보육하는 선생님 모두가 상의 주인공”이라며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란다. 행복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보육활동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호섭 기자



조혈모세포 기증, 생명 살리는 작은 용기

본지 · 생명나눔 공동기획

생명나눔은 자비입니다

④ 조혈모세포 기증 동참을

혈액 만드는 어미니 세포 의미
조혈모세포 기증만 이뤄진다면
혈액암 등 난치병 완치율 증가
만18~40세 희망등록, 관심 필요

조혈모세포 이식동의율 55% 그쳐
생명나눔, '착한 릴레이' 캠페인
전국 대학 돌며 기증 동참 유도
다이어리 · 감사문자 사후관리 철저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나의 3일로 당신의 삶이 보장된다면, 이것만큼 이 세상에서 훌륭한 의사가 어디 있다는 말인가?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멋있는 의사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비록 세포를 받는 환자가 100% 살 수 있다는 보장도 없지만, 내가 (기증을) 안 하면 100% 죽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모두 참을만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2015년부터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등록 확대를 위한 '착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전국 16개 간호대학과 연계해 조혈모세포 희망등록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매년 '착한 릴레이'에 참여하는 대학의 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올해 진행한 '착한 릴레이' 참가 대학들. 사진 왼쪽부터 대구가톨릭대, 부산 동아대, 광주 남부대, 송원대.

모두 조혈모세포 기증자들의 후기다. 기증만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확연하게 높아지는 조혈모세포 기증은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생명나눔'이다.

우선 조혈모세포는 무엇일까. '조혈모세포(Hematopoietic stem cell)'는 혈액을 만드는 어머니 세포를 말한다. 정상인의 혈액에 약 1% 정도 해당되는 조혈모세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 모든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진 세포다.

조혈모세포 기능에 장애가 생겨 정상적인 혈액을 만들어내지 못해 발생하게 되는 질병으로 대표적인 것이 백혈병, 재생불량성빈혈, 면역결핍질환 등이다. 이 같은 질병은 병든 조혈모세포를 완전히 제거 후 조직적합성 항원형이 일치하는 기증자의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으면 완치될 수 있다.

조혈모세포 이식으로 완치가 가능한 질환들로는 급성림프구백혈병 · 급성골수성백혈병 · 만성골수성 백혈병 ·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혈액암들과 악성림프종, 신경모세포종, 뇌종양 등이 있다. 또한 선천성 및 후천성 재생불량성빈혈 등 골수기능부전 질환과 중증 면역결핍 질환, 유전성 대사 질환도 조혈모세포이식으로 완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조직적합성 항원형이 일치할 확률은 형제자매 간 25%, 부모 자식 간 5%이며 타인과는 수천~ 수만 분의 1 정도로 매우 낮다.

환자가 불운하게도 부모 형제와 항원형이 일치하지 않으면 비혈연 간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해야 한다. 담당 주치의를 통해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로 환자 등록 후 기증희망자 중 조직적합성 항원형 일치자가 있을 경우 이식조정기관으로 기증을 의뢰한다.

2018년까지 국내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는 약 34만 4000명이다. 이식이 필요한 환자와 국내 기증희망자 사이에 조직적합성 항원형이 일치한 경우는 70%를 상회하지만, 실제 비혈연 골수 및 말초혈 조혈모세포이식이 이뤄지는 경우는 약 55%에 불과하다. 만약 국내에 일치하는 공여자가 없다면 일본, 미국, 대만의 골수공여자 프로그램과 연결해 알아봐야 한다.

공여자의 제한 조건도 있다.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 건강한 남녀만 가능하다. 까다로운 검사를 거쳐야 돼 기증자의 신체 건강이 필수다.

현재 한국에는 조혈모세포를 희망등록할 수 있는 단체가 5곳이 존재한다. 종교계에서는 불교와 가톨릭이 해당 단체를 운영하는 데 생명나눔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가 불교를 대표하는 조혈모세포 희망등록 기관이다. 이밖에도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를 비롯해 헌혈의 집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에서 조혈모세포 희망등록을 할 수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조혈모세포 희망등록은 매우 활발하다. 지난 2015년부터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착한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조혈모세포 희망등록에 대한 정보 전달 및 기증자 확대를 통해 백혈병 등 이식 대기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올해는 전국 16개 간호대학과 연계해 조혈모세포 희망등록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매년 착한 릴레이에 참여하는 대학의 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2019년 상반기에만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등록자 2,340명을 신규로 등록받았다. 이는 전년 대비 10% 이상 초과 달성한 성과이자 올해 모집목표(2,889명)의 81%에 해당되는 수치다.

희망등록 이후에는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기증 동의율을 높이는 노력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등록자들에게 "일치하는 환자 발생 시 꼭 기증해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담은 다이어리(연 1회) 제작 · 배포와 감사문자(연 4회)를 해오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에만 52명의 조혈모세포 희망등록자가 백혈병 환우들을 위해 자신의 조혈모세포를 기증했다.

이 같은 착한 릴레이 캠페인은 조혈모세포 기증에서 장기기증 희망등록으로도 이어져 생명나눔운동 확산이라는 효과도 내고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조혈모세포 사후관리 다이어리 발송 시 장기기증 신청서를 첨부해 발송한 결과 연간 50~70여 명의 조혈모세포 등록자가 장기기증 희망등록에도 서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조혈모세포 이식만을 기다리는 수많은 이식대기자들이 있다"면서 "작은 용기를 내고 불편함을 조금만 감수하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조혈모세포 기증은 곧 자비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착한 릴레이에 참여하기 위한 대학 및 기업은 생명나눔실천본부를 통해 신청하면 법인 직원이 직접 방문해 조혈모세포 기증 교육 및 착한 릴레이를 진행한다. 개인의 경우 모집기관인 생명나눔실천본부에 방문해 등록을 진행하면 된다. (02)734-8050

TIP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등록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오해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골수를 고통스럽게 채취하는 '골수기증' 과정만 주로 보여 주는데, 사실 골수기증 방식은 채취 효율을 극대화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만 드물게 쓰는 방법이다. 현재는 '말초혈 조혈모세포 기증' 방법을 주로 시행한다. 이는 혈소판 성분 헌혈과 방법이 동일함으로 큰 고통 없이 조혈모세포를 채취할 수 있다.

조혈모세포 기증, 아픈가요?

크게 고통스럽지는 않다. 말초혈을 통한 조혈모세포 기증 방법은 조혈모세포 촉진제(G-CSF 혹은 GM-CSF)를 입원 3~4일 전부터 주사한 후 채취일에 혈소판 성분 헌혈처럼 양팔에 바늘을 꽂아 채취하거나 혈관이 약할 경우 가슴 쪽 혈관에 관을 넣어 혈액 추출 후 특수 장비로 조혈모세포만 정제한 다음 혈액을 기증자에게 다시 수혈한다. 이 과정은 5시간 정도 소요되며 채취 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빠져나간 조혈모세포는 2~3주 이내에 회복된다.

생명나눔과 함께 하는 7월

봉선사연꽃축제 장기 및 조직기증희망등록 캠페인
• 날짜: 7월 20일(토) • 장소: 봉선사

육군훈련소 군장병 대상 장기 및 조직기증희망등록 교육
• 날짜: 7월 28일(일) • 장소: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동국대일산병원 장기 및 조직기증희망등록 캠페인
• 장소: 동국대일산병원 1층 로비

도봉운전면허시험장과 함께하는 장기 및 조직기증희망등록 캠페인
• 날짜: 상시운영(금요일 제외)
• 장소: 도봉운전면허시험장 1층 로비

7월 환자치료비 전달식 및 심의회의
• 날짜: 7월 11일(목) • 장소: 법인 회의실

생명나눔실천본부 온라인 후원계좌

신한은행	140-001-764580
국민은행	006-01-0770-038
우리은행	010-073780-13-101
기업은행	024-037428-01-016
우 체 국	010579-01-001564
농 협	053-17-001346
환자돕기(농협)	053-01-243778
신도등록(농협)	301-0044-4629-71

후원문의 : (02)734-8050



“경봉 스님 인재불사 원력 선양”

경봉문도회, 6월 29일 경봉 스님 추모다례재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 경봉 스님의 추모다례재가 봉행됐다. 추모다례재서 경봉장학회는 장학금을 수여하며 경봉 스님의 인재불사 원력을 기렸다.

경봉문도회(대표 무애)는 6월 29일 경봉 선사 열반 37주기 추모다례재를 통도사 극락암에서 봉행했다.〈사진〉 다례재에는 경봉문도회장 무애 스님, 경봉장학회 이사장 원명 스님,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 주지 현문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문도 대표 무애 스님은 “은사 스님의 유지를 이어 자비와 지혜의 광명으로 행복을 성취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봉장학회는 동국대 및 중앙승가대 학인 스님 31명에게 장학금 100만원씩 총 3100만원을 전달했으며, 호국선원, 보광선원, 영축율학승가대학원에 수행지원비 및 연구비 800만원을 기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예비국악인 격려한 특별 템플스테이

화엄사, 대학생 위한 정가학회 공연 지원

산사에서 전통음악을 즐기는 특별한 음악회가 화엄사에서 열렸다.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는 6월 30일 보제루에서 ‘화엄사 특별공연-정가악회’를 개최했다.〈사진〉 음악회는 국악단체인 정가학회가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국악전공 대학생들에게 격려와 영감을 주기위해 특별시연을 마련한 것이다.

정가학회는 한국 전통음악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전문 국악단체다. ‘2019 국악대학전’의 워크숍 일환으로 진행한 화엄사 템플스테이에는 예비국악인 60여 명이 참여해 29일부터 3박4일간 특강, 마스터 클래스, 상상연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국악대학전은 국악 전공 대학생들이 음악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자 경합을 무대다. 가곡, 판소리, 산조 세 분야에 걸쳐 진행하며, 우승자는 오는 9월 27일부터 3일간 개최하는 화엄음악제에서 공연과 음원 발매를 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화엄사는 국악 예술인들을 지원하고자 이번 템플스테이와 화엄음악제-화장(華藏)을 개최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삼광사 ‘孝心 피운 연꽃 화엄세상’

제 6회 효문화 연꽃축제 개막

천태종 삼광사가 연꽃으로 화장세계를 연출했다.〈사진〉

삼광사(주지 세운)는 7월 1일 경내에서 제6회 효문화 연꽃축제 개막식을 진행했다. 효문화연꽃축제는 지난 4월 경로잔치어울림한마당에 이어 진행한 행사이며 연꽃 전시는 9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연꽃축제 개막식은 테이프 커팅에 이어 인사말이 진행됐으며 주지 세운 스님을 비롯해 김희근 신도회장 등 내빈이 동참했다. 연꽃축제는 대한불교천태종이 주최하며 삼광사가 주관, 문화



체육관광부 후원으로 마련됐다.

삼광사는 “연꽃 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무더운 여름 열기를 식히고 산사의 아름다움을 전달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佛都 10만 불자 ‘불교 중흥’ 외친다

10월 20일 ‘부산시민 번영을 위한 불교문화축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불교중흥과 국가발전을 위해 불도(佛都) 부산 불자 10만 명이 운집한다.

불교문화대축제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경선 · 박수관)는 불교중흥과 시민 번영을 기원하는 ‘부산시민의 번영을 위한 불교문화축제’ 기획 발표회를 7월 1일 부산 롯데호텔 41층 에메랄드룸에서 개최했다.

‘부산시민의 번영을 위한 불교문화축제’는 10월 20일 오후 4시 부산시민공원 하야리아 잔디광장에서 진행된다. 이 행사는 불교의 발전을 기원하는 자리다. 불 · 법 · 승 삼보를 예경하며 나눔으로 자비사상을 실천해 불교정신을 사회에 보여주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불(佛)은 부처님의 진신사리, 법(法)은 이 시대 선지식으로 불리는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지유 스님의 법문, 승(僧)은 부산 및 경남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이 동참해 10만 불자의 예경을 받는 자리로 진행된다. 이어 오직 나눔으로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회향하며 불자의 참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조직위원회는 행사를 통해 부산불교의 화합과 단결 그리고 위상을 강화해 불교중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자비실천의 장을 제공하고 10만 불자가 모여 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대대적인 자리라고 소개했다.

조직위원장 경선 스님(부산불교연합회장)은 “뜻과 행동이 하나가 돼 열정과

불 · 법 · 승 삼보예경 주제로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비롯
범어사 방장 지유 스님 법문
동참 모연금 복지시설 기부도

신념으로 함께 할 때 성공적인 행사를 보여주며 불교의 위상을 높이 세울 수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주역으로 함께 뛰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사 주제는 △불교문화계승 △불교중흥 △사회공헌 △시민과 함께하는 어



부산불교가 불교중흥을 꿈꾸며 ‘부산시민의 번영을 위한 불교문화축제’를 개최한다. 7월 1일 불교문화대축제 조직위원회는 기획 발표회를 개최하고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울림 한마당이다. 불교문화계승은 백고좌법회를 재현하며 스님들에게 예경을 올리고, 부처님 진신사리를 친견하며 신심을 고취한다. 부처님 진신사리는 건봉사 부처님 치아 진신사리다. 건봉사 치아 진신사리는 자장율사가 신라시대 가져온 사리 가운데 유일하게 친견이 가능한 사리다.

불교문화축제는 오후 2시 집결해 식전공연으로 시작된다. 본 행사는 오후 4시부터 진행되며 △육법공양 △진신사리 헌화공양 △고불문 △개회선언 및 경과보고 △봉행사 △봉축사 △격려사 △축사 △대회사 △법어 △2019 부산불교선언문 낭독 △불교중흥 및 시민안녕 기원 프로그램 △사회나눔 △축가 순으로 이어진다. 이후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는 풍등 날리기, 가수 송가인 및 아이돌 가수가 꾸미는 공연, 진신사리 친견, 불꽃쇼가 진행될 예정이다. 풍등은 총 1만개가 마련되며, 이웃돕기에서는 쌀 1000포를 전달한다. 행사장 곳곳에는 보시함을 설치, 모금액 전액을 복지시설에 기부한다.

박수관 조직위원장은 “10만 불자가 모이는 대대적인 행사로 불교의 중흥을 꿈꾸며 화합의 한마당으로 이끌 것”이라며 “신심의 축제로서 불도 부산에 큰 메시지도 남기겠다”고 말했다.

러시아에 감동 남긴 영산작법

모스크바 국제음악 페스티벌
전라북도영산작법 초청 공연

전통불교의식인 영산작법(일암범패)이 러시아에서 펼쳐져 현지인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영산작법무형문화재 제18호였던 故 일암 스님의 이수자인 지산 스님을 비롯해 용봉사 법전 스님, 영천사 현법 스님, 익산 대인사 지오 스님 등은 6월 24일 러시아 한국문화원과 차이코프스키음악원의 초청으로 모스크바 국제음악 페스티벌 소리축제에 참가해 불교전통의식인 영산작법을 러시아 현지인들에게 선보였다.

‘우주의 소리’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모스크바 국제음악 페스티벌 소리축제에 참가한 스님들은 모스크바시 에피르 아트센터 특설 무대에서 2시간 30분에 걸쳐 다게작법, 천수바라, 운심게 작법, 기성가지 바라춤 등 한국의 전통 영산작법을 관객들에게 소개했다.

이번 축제에 참가한 음악인은 물론 관



모스크바 국제음악 페스티벌에 초청된 스님들이 전라북도영산작법을 선보이고 있다.

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공연에서 관객들은 처음 접하는 한국불교의 작법무와 범패 소리로 구성된 영산작법의식을 처음부터 숨죽이며 관람하고, 기립박수로 찬사를 보냈다는 후문이다.

공연을 직접 관람한 차이코프스키 음악원 마르가리타 국제대외협력국장은 “한국불교의 훌륭한 전통문화를 소개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며 “다음에는 좀 더 크고 멋진 무대에서 영산작법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연에 참가한 법전 스님은 “한국의 영산작법을 전 세계의 문화관계자들과 러시아 관객들에게 소개할 기회가 주어져 큰 자부심과 긍지를 느꼈다”며 “앞으로도 한국과 러시아간의 문화콘텐츠가 계속 이어져 전라북도 불교문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수영선수권대회 광주불교 후원 나서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동현, 신광사 주지)는 6월 26일 광주광역시청을 방문, 이용섭 시장에게 ‘2019 광주국제수영선수권대회’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 기금은 입장권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대회 활성화를 위해 사찰들이 십시일반 입장권을 구매해 마련했다. 전달식에는 회장 동현 스님을 비롯해 수석부회장 도계 스님, 부회장 도성 스님, 이범식 광주불교연합신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동현 스님은 “이번 수영대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간절한 마음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시장은 “어려운 여건에서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7월 12일부터 16일간 광주와 전남 일원에서 개최된다. 193개국 7266명이 참여해 다이빙, 하이다이빙, 경영, 아티스틱 수영, 오픈워터 수영, 수구 등 6개 종목에서 금메달 186개를 놓고 승부를 벌인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특허 제10-1337352호

숯침대



숯침대의 효능 효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숯보료Q : W 15300 × D 2030 × H
숯보료SS : W 1000 × D 2000 × H 90

취급 품목
◆ 숯침대
◆ 숯카우치
◆ 좌훈기
◆ 족욕기

숯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숯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구입 및 문의 | 031-532-3277. 533-3722. 010-7171-2636. 010-3576-6802

현대불교 시승법

사찰 숲 가치 재조명, 이제 시작을…

봉은사는 매월 다섯째주 일요일마다 사회의 권위 있는 재가자를 초청해 일요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6월 30일에는 소나무 박사로 유명한 전영우 국민대 명예교수가 강사로 나섰다. 이날 전 교수는 불교의 숲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사찰림에 대한 입장을 대중에게 전했다.

한편, 전 명예교수는 산림청 임목육종연구소에서 5년간 근무한 후,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산림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20여 년 동안 숲 해설 활동의 전개와 제도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현재 국민대 산림자원학과 명예교수로 있다.

정리=노덕현 기자

주제 : 불교의 숲이야기

전영우 국민대 명예교수



전영우 명예교수가 봉은사 법왕루에서 열린 일요법회서 불교의 숲 관리와 활용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다.

사찰이 숲을 갖고 있는데, 이 숲을 어떻게 보고, 이 숲이 어디서 유래됐고, 이 숲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불교는 1700여 년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데, 숲은 어디서 유래가 됐을까는 사람들 간에 주장이 많습니다. 사찰이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자료들이 전쟁 등을 겪으며 망실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숲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불교계에서는 숲이 당연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보물을 갖고 있는지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주머니 속의 귀한 보물이 있는데도 얼마나 갚진 것인가를 알려고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인기 연예인을 위한 숲을 팬클럽이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 세대들이 숲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평해전 희생자를 기리는 숲도 조성되고 있고 사찰 최고지도자 경영과정에서도 숲 관련 강좌가 열릴 예정입니다. 숲이 무엇이기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런 사회적 현상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는 숲살림, 숲경영 등의 개념이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독일 연방공화국 초대 대통령 테오도어 호이스가 한 말입니다. '숲(Wald)은 한 음절이다. 그러나 그 속에는 동화와 경이가 숨어 있다.' 동화와 경이는 셀 수 없는 것입니다. 질적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나무로만 숲을 생각하는데, 숲을 이루고 있는 속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숲서 자연의 영성 느껴져

산림의 유래는 산림천택에서 유래됐습니다. 어떤 생명체일까요. 가장 오래 사는 생명체, 가장 큰 생명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무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브리스톨 소나무는 5000년을 삽니다. 이런 나무 앞에서는 인간의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이 나무의 1mm 속에는 7년 동안 산 나이테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나무는 1년에 5.4mm 자라기 때문에 이 나무가 얼마나 천천히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이언트 세콰이어는 3000년 묵은 나무인데 3차선 도로의 밑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나무들이 자라는 숲을 새벽에 거닐어 본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을 뵙는 것과 같은 자연의 영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숲이란 쉽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숲은 세계적인 성과

우리 숲은 전 세계적으로 파괴가 심한 곳 중 하나입니다. 세계에서 숲이 파괴되었던 곳이 두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과 우리나라입니다. 독일의 경우 200년 전에 숲이 망가져서 200년에 걸쳐 복구해 세계에서 가장 숲을 잘 가꾸는 나라이자 산림기술이 발전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으로 숲이 심각하게 파괴가 되었습니다.

한국 산림 복원 100년사는
세계서 독일과 유이한 자랑거리
불교계 보유 숲 활용 필요
사회 기여, 위상 증대 나서야돼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은 우리 숲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앞선 세대가 만든 숲입니다. 전 세계는 한국을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감흥이 없습니다.

중학교 교과서에 숲은 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실어야 하며, 한국이 세계에 내놓을 만한 성과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일제강점기 일제에 의해 산림이 수탈됐다고 생각하지만 조선 후기부터 숲은 황폐화되고 있었습니다. 병탄이 되기 전부터 숲이 있는 곳은 개마고원과 태백산맥 일대뿐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910~20년대 두만강 원시림을 일제가 벌목했습니다. 1930년대 경기도 모습을 보면 이란의 사막지대를 보는 듯합니다. 민둥산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1950년대만 해도 북한산이 온통 헐벗은 모습이었습니다.

1973년도부터 100억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발표일 뿐이고 사실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 200억 그루 이상의 나무가 심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말, 소, 지게 등을 이용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아기를 업은 어머니들이 구호물자를 받고 나무를 심으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숲이 차츰 변했는데, 해안가 주변에는 산에서 흙을 파와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70년대를 거쳐 80년대, 90년대 많은 숲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소득은 100배가량 늘어났는데 숲의 규모가 늘어난 것은 12~3배만 늘어났습니다.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자연환경이 그만큼 좋아진 것도 기적과도 같은 업적인데, 사람들은 이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북한 지역은 현재도 숲이 없습니다. 외화벌이용 벌채와 식량을 위한 화전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작은 비에도 물난리로 인해 농사가 망가지게 됩니다. 북한은 여전히 산림 벌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1910년과 2010년과의 100년 사이 남북한의 산림 현황이 이렇게 바뀝니다. 오늘날은 우리의 녹화기술을 제3세계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녹색이 없는 우리 사회

신문광고를 위해서는 3000만원가량이 듭니다. 학군 등의 광고 없이 나무 몇 그루 그려놓고 숲세권을 홍보합니다. 아파트는 숲과 같다고 홍보합니다. 도대체 숲이 무엇이기에 우리 사회가 이런 반응을 할까요. 손톱만큼도 녹색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도시가 숲속에 있는지, 숲이 도시 속에 있는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곳이 있습니다. 평창동과 성북동입니다.

세계에서 숲과 건강 등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숲이 있는 직장과 없는 직장간 비교분석, 숲이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의 비교분석 두 가지 연구사례가 있습니다. 업무집중도와 만족도, 이직률이 적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숲은 공동체를 결속 시키거나 자연에 대한 감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심리적 효과로 산림 치유 등의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숲을 자주 접촉하면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매주 2시간 자연에서 놀면 건강해진다는 것이 바로 숲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불자분들은 사찰을 찾음으로 인해 이런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숲은 불교가 지닌 최고 자산

저는 1993년도부터 사찰 숲과 인연이 닿았습니다. 대한민국 숲의 1%가 사찰 숲이며 종단 부동산의 97%가 사찰 숲입니다. 약 2조 원가량의 가치를 사찰 숲이 창출하고 있지만, 국립공원 입장료, 문화재 관람료로만 정부와 다투고 있습니다.

사찰 57개소가 100만평 이상의 숲을 갖고 있으면서도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합니다. 국민 학계, 불자 신도들의 무관심 때문입니다.

사찰 숲이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다가가고, 불교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사찰 숲은 절이 생기면 땔감숲을 신라시대부터 같이 묶어 줬습니다. 예를 들어 봉은사는 양근 월계 하류방향까지 땔감숲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석촌호수 부근 삼전도 나루터까지 숲이 이어졌고, 송파벌과 분당까지의 벌판이 봉은사 수사지였습니다.

사찰 숲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종교적 위상에 활용이 되어야 하고, 한국적 가치를 높이는 경관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명상이나 건강 정진과 휴양 등에 기여하는 공간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사찰 숲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금강산 신계사의 향토 솔밭길, 운문사 돌머리 소나무숲길, 극락암 소나무 숲길 등입니다. 겸재 정선의 해인사를 그린 그림을 보면 소나무가 나옵니다. 100년 전에도 있고,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것은 국토면적의 0.7%밖에 안 되지만 사찰이 천연기념물의 15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문사 은행나무만 해도 사찰을 통해 나무 식수가 전파된 것을 알려줍니다. 1000년 이상 된 은행나무가 모두 사찰에 있는 이유입니다. 스님들이 불법을 배우러 당나라에 갔다가 귀중한 약재나무였던 은행나무를 사찰에 심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북미로 퍼져나간 은행나무의 얘기도 있습니다.

낮은 사찰숲 인식 활용 높여야

사찰의 숲과 그 속으로 난 길을 성속을 가르는 차폐공간 등의 의미인데 알려고 하는 이가 없습니다.

불교계가 의례히 있는 것으로 알고만 있습니다. 주머니에 보물이 있어도 진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불교계에서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숲해설사, 산림치유사 등을 키워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또 사찰숲과 관련된 순례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톨릭계에서는 수녀님들이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한국에서 숲길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순례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페인 산티아고와 일본 구마노고도가 유네스코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지정한 문화유산 순례길 두 곳입니다.

우리나라도 태백산 정암사에서 법흥사, 오대산 적멸보궁으로 하여, 설악산 봉정암 등을 거치는 순례코스를 만들어서 죽기 전에는 한번은 순례해야 될 길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400년 이래 우리 숲은 가장 울창한 시기입니다. 앞선 세대들이 가꾼 결과입니다. 이제는 숲과 관련된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불교계도 이에 맞춰 새로운 영역을 개발해야 합니다. 사찰 숲의 가치와 기능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수천번 사용하는 염불소리!

내 귀에 편하면 힐링! 내 귀에 불편하면 질병!

설악 신흥사는 음향시설 및 전국 대중소사찰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으로 법당소리 확! 업그레이드!

1. 법당에서 마이크 비교시 추호라도 과장이면 누구 망신?
2. 본품은 시중에 없음...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이 글은 법적증서)
3. 초청시 법당에서 성능비교만 하고 빠르게! 가버리는 이유는? : 권한다고 다 사면 재벌이 따로 없음

▣ 사찰 전체음향 시설비는 일백구십만원~이백구십만원대까지 ▣ 장기할부 가능

▣ 앰프1, 스피커 4개, LG오디오 1개, USB, 무선마이크 종류별로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 완벽시설까지 299만원이면 명산대찰 수억대의 시설보다 염불소리가 확실히 월등함.
※ 각종 마이크, 방송장비 및 방생용 구경!

▣ 상담 구경 조건으로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명품 대표 박 공 희 소리 구경값 한잔



불교사회개혁 꿈꾼 개화파 산실



김경집의
사찰 속 숨은 이야기
⑬ 봉원사



신촌 봉원사 삼천불전 앞으로 연꽃이 만개해 있다. 근현대 갑오개혁을 주도한 개화파들이 이동인 등 개화승들과의 회동을 가졌던 역사가 있다.

영조의 첫째 손자 의소

경복궁 서쪽 사직단을 거쳐 사직터널을 지나면 독립문역이 나온다. 독립협회가 세운 독립문에서 비롯된 역명이다. 이 문은 1884년 갑신정변 후 미국으로 망명했다가 1896년 귀국한 서재필이 독립협회 활동을 하던 1897년 11월에 세웠다. 중국사신을 환영하던 영은문을 헐고 독립문을 세운 것은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서구열강의 침략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염원의 표현이었다.

그곳에서 금화터널을 넘어 고가 밑에서 오른쪽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면 봉원사가 나온다. 봉원사의 창건 연원은 제법 오래되었지만 사격이 커진 것은 조선 영조 때이다. 영조는 재위 26년(1750) 8월 27일 손자를 보았다. 세손 의소(懿昭)로 정조의 형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세손은 오래 살지 못하고 영조 28년(1752) 3월 초4일 창경궁 통명전(通明殿)에서 죽었다. 의소는 아현동에 묻혔다가 훗날 서삼릉으로 이장되었다. 첫손자를 잃은 안타까움에 할아버지 영조는 영인군 시절 살던 창의궁에 의소의 묘(廟)를 세웠다. 그곳이 한성부 북부 순화방으로 지금의 종로구 통의동이다.

4월 12일 죽은 세손을 위해 시호를 내렸다. 세손의 덕성이 순숙(純淑)한 것을 의(懿)라 하고 용의가 공손하고 아름다운 것을 소(昭)라 하였다. 좌참찬 홍상한(洪象漢)이 세 번 향을 올리고 세 번 전작(奠爵)한 다음 독책관(讀册官) 성천주(成天柱)가 꿇어앉아 영조가 지은 책문을 읽었다.

"너 세손아! 내가 너를 안았을 때 하늘이 이 나라를 도운 것으로 생각하였다. 상서로운 빛 별자리에 뻗치더니 이윽고 네가 태어났으며, 특이한 모습은 해와 달의 표상처럼 빼어났는데 더구나 적전(嫡傳)에 있어서랴. 오직 영특하고 온화한 모습은 자연히 제왕가(帝王家)의 귀상(貴象)이 있었고, 인후(仁厚)하고 자효(慈孝)한 성품은 어린 나이의 양지(良知)가 아님이 없었구나. 소저(小邸)의 명호를 정함에 이르러서는 늘그막 갑절의 위로가 되었다.

기질은 겨우 두서너 살에 엄연히 덕기(德器)를 이루었고, 총명은 60여 자의 예서(隸書)를 능히 분별하였다. 오래 침전 곁에 두고도 때로 자리가 비면 문득 허전하였고, 항상 밥상 곁에 앉아서 먹을 때마다 반드시 권하였는데 심지어는 공교로움을 싫어하고 투박함을 좋아했고 미쁘게도 검약을 품부하여 순박함이 터를 잡았었다. 지극한 사랑으로 어린이를 안고서 오직 열성조의 도우심에 감사하였고, 큰 책임 물려줄 곳이 있으니 거의 종사의 걱정이 없음을 다짐할 수 있었다."

영조의 손자 사랑은 남달랐다. 의소의 묘에 기병 20명을 배치하여 3년 동안 수호군(守護軍)과 번을 갈아 들게 하라고 명하였다. 손자의 죽음에 친히 상복을 입었으며, 소상에는 도승지 조명리(趙明履)에게 명하여 제문(祭文)을 쓰게 하였다. 그리고 의소와 관련된 신하들은 외임(外任)에 있는 자도 와서 참여하도록 하였다.

영조는 30년(1754) 3월 4일 의소의 대상에 친림하였고, 일찍이 사부(師傅)를 역임한 대신도 모두 입참(入參)시켰다. 그런데 행사직(行司直) 이기진(李箕鎭)이 외방(外方)에 있음을 핑계로 참여하지 않았다. 분노한 영조는 그를 파직하고 다시 등용하지 말하는 명을 내렸다. 그 후에도 영조는 말년까지 틈나는 대로 의소의 묘를 찾았다.

의소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영조는 손자의 천도를 위해 봉원사를 원찰로 삼았다. 그리고 용인의 땅과 해주 수안군에 있는 토지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황해감사 이문(移文)이 수안군은 재정이 어려운 곳이고, 봉원사는 이미 용인의 땅을 받았으므로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상소하였다. 그 뜻을 받아들여 수안군 땅은 본 고을에 소속시켰다.

의소의 원찰과 영조의 배려로 사세를 확장한 봉원사는 근대로 이어져 개화파의 산실이 될 수 있었다.

봉원사 출신 개화승 이동인

근대 불교계 개화승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동인이다. 그의 출신에 대해 봉원사라는 견해와 통도사라는 견해가 있다. 전후사정을 고려해보면 봉원사일 가능성이 높다. 그가 개화파의 일원으로 그들과 함께 개화사상을 공부하고 불교를 토론하려면 빈번하게 접촉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한양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봉원사가 제격이다.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개화파는 박규수에게 배웠다. 지금 헌법재판소 주변인 한양 북부 가회방 재동 박규수 집은 개화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서구문물을 알 수 있는 창구였다. 1876년 박규수가 죽자 이들을 지도한 자가 유대치와 오경석이었다. 유대치는 중인 출신이었으나 학식과 인격 모두 탁월하고 교양이 심원한 경론가였다. 불교를 깊이 신행하고 있었던 까닭에 개화파를 지도할 때 불교사상도 가르쳤다.

> **영조 세손 '의소'의 원찰**
> **'이동인'과 개화파 만남**
> **불교사상도 갑신정변 반영**

이들의 행적을 적고 있는 이능화는 〈조선불교통사〉에 갑신정변은 그들이 배운 불교의 이치를 직접 세상에 응용하려던 행동이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런 유대치의 영향으로 개화파에는 불교를 신앙하는 자들이 많았다. 그래서 개화파는 동지들을 규합할 때 신분의 차별을 두지 않았다. 중인 출신은 물론이고 승려들이 참여도 많았다.

개화파의 일원으로 활약한 이동인은 새로운 문물과 해외지식에 대한 궁금증이 강해 부산에 일본불교 별원이 개설되자 그들을 통해 세계정세를 알고자 하였다. 개화파의 도움으로 일본에 건너가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사회를 살펴보는 등 호기심이 강했다.

그의 개화 의식은 한국이 빈약하여 부강하지 못한 인식에서 시작하고 있다. 그것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없고, 일부 있는 제도도 바뀌지 않은 데서 생긴 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그런 한계적 상황에 직면한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부국강병으로 보았다. 그 방법으로 공업과 상업의 발달을 꼽았다.

먼저 공업의 발달을 위해서는 풍부한 광산과 개발되지 않은 땅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에게 자본과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일본과 힘을 합하여 개발한다면 한국도 무비를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다음 상업이 발달하려면 육의전에서 배를 구입하고 일본인 상인을 고용해서 한국의 내륙과 개항장 사이에 통신의 길을 만들어 사람들이 개항장을 왕래할 수 있도록 하며, 그에 필요한 재정은 일본정부에서 빌어 상인들에게 빌려준다면 육의전의 상업이 발전할 것으로 예견하였다.

이런 그의 생각은 누구도 사회변화에 대해 예견하지 못하고 있던 당시 세심하게 분석하고 있었던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특히 사회적인 제한이 뒤따르던 승려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진보적 성향은 불교계의 새로운 분위기를 일으키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개화의 산실 봉원사

이런 봉원사가 개화의 산실이 된 것은 승려 이동인과 개화파가 만나면서부터이다. 1876년 조선의 문호가 열리자 당시 젊은이들은 지금껏 듣지도 보지도 못한 신무기를 갖고 있던 일본과 서구열강의 힘에 놀랐다. 의식 있는 젊은이들은 세상을 알고 싶어 했다. 그리고 신지식을 이용해 구태에 머물던 조선사회를 바꿔보고 싶었다. 세계와 소통하여 조선사회를 변화시킨다는 생각을 개화사상이라 불렀다. 그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조선을 변화시키려 한 사람들을 개화파로 불렀다.

남들의 눈을 피해 서대문을 나와 봉원사로 가던 개화파의 가슴에 무엇을 담고 있었을까? 칠흙같이 어두운 그믐밤이나 달빛 훤한 보름밤 개화파는 봉원사에 모여 무엇을 고민하고 토론하였을까? 바람 앞에 촛불처럼 가냘픈 숨을 쉬며 열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조선을 어떻게 부국강병으로 이끌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을 것이다.

개화파를 조직한 목적은 불교의 평등사상을 바탕으로 외세에 대항할 수 있는 국민국가를 세우는 것이었다. 국민국가란 내 나라, 내 민족을 발견하는 것이다. 중국을 주축으로 하는 동양의 질서체제에 안주하는 조선이 아니라, 세계 속의 자주독립국인 조선을 찾는 일이다. 그것은 조선왕조와 같은 봉건국가가 아니라 독립권이 보장된 근대국가의 건설이었다.

윤치호의 일기에 의하면 김옥균은 유대치의 지도를 받아 외국의 예를 따라 예산제도를 세우는 일, 행정기관의 책임분담을 마련하는 일 등을 고민하였다. 그리고 조선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로 정부조직을 고치는 것을 꼽았다고 한다.

서재필은 갑신정변 37년이 지난 1941년 10월 그 사건을 회고하는 글을 썼다. 개화파는 국민들 사이에 존재하였던 신분제도의 철폐, 가난한 사람을 위한 주택마련, 노비제도 폐지 등과 같은 것을 평등사상에 입각하여 타파하려 했다고 적고 있다.

봉원사에 모여 수많은 밤을 지새워가며 토론하던 개화파는 정부차원에서 변화될 기미가 없자 물리적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실행하였다. 1884년 12월 4일 우정국 축하연을 계기로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은 것이다. 그러나 불과 3일 만에 실패로 돌아가 대부분은 희생되고, 일부는 해외로 망명하였다. 처음부터 승산이 없었지만 국내의 모순을 극복하고 외세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생각한 이상이 정치현실에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정변 후 3일 동안 집권한 개화파는 자신들의 이념을 정강으로 발표 하였다. 내용 가운데 불교사상과 연관된 것은 평등에 관한 부분이다. 정강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당시 봉건사회가 지니고 있던 신분제의 한계성을 탈피하기 위해 그들은 인민평등권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당시 사회적인 여건으로 본다면 상당히 파격적인 주장이었다. 국가의 자주독립과 인민평등권에 대한 사상은 그 후 1890년대에 들어와서 독립협회의 활동 등 시민의식이 확대되어 국민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지만 1880년대는 확실히 앞선 사상이었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정변의 실패는 개혁에 대한 논의조차 허락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시대변화를 말하는 젊은이들은 미움을 받았다. 자연히 개화의 불길은 시들어 갔다. 이런 개화파의 퇴조는 잠시나마 조선사회에 불교를 새롭게 인식하던 분위기도 사라지게 하였다. 불교계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동산불교대학 사찰역사문화연구회 지도교수〉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과학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 전수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 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제 6 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일행삼매 연구소(소장:처명)

부처님의 마음을 빚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 인 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

검소함이 주는 자유와 든든함



남혜경의
Buddhist Coaching

⑬ 50대 상류층 여성의 독립 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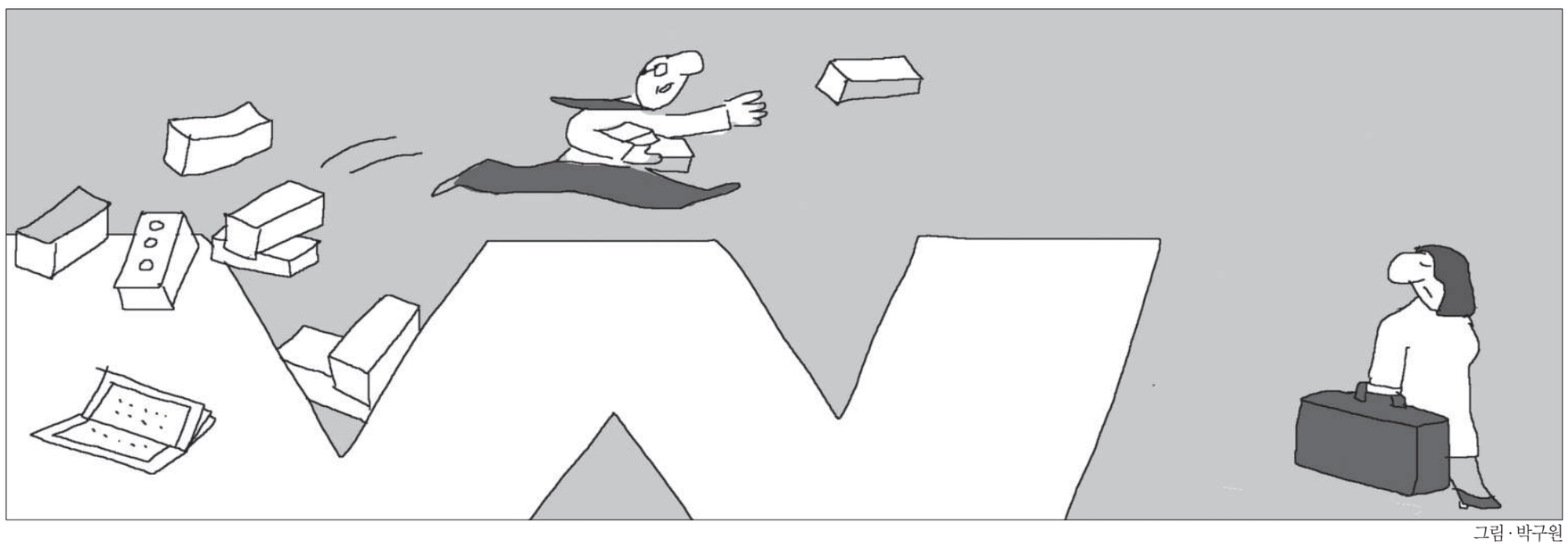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마흔 넘어 공부를 다시 시작해, 상담심리학 박사 과정에 있으면서 비정규직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52세의 난희 씨. 대기업 중간관리자인 남편은 주식과 부동산 투자로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려 아내가 필요한 만큼 생활비와 학비를 대준다. 돈 걱정이 없는 그녀는 해외여행을 자주 하고 대형 승용차를 끌고 다닌다. 외동인 딸아이는 일찍 호주로 유학 보내 대학 재학 중으로 1년에 2-3개월은 호주에 머물다 온다. 경제수준으로 따지자면 상위 몇 %에 속하는 호강하는 팔자, 라고 할 수 있다.

공부하며 품위 있게 즐기는 인생으로 고민이 없을 것 같던 난희 씨의 코칭 이슈는 뜻밖에 '남편으로부터 독립하기' 였다.

고교 동창인 남편과는 10년 넘게 사귀다가 군복무를 마칠 때를 기다려 결혼했다. 유치원교사로 일하던 그녀는 결혼과 함께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다, 남편은 재테크 수완이 좋아 마흔도 되기 전에 강남에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 남편의 수입은 점점 늘어났고 지금 그녀는 남편 재산이 얼마인지 부동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모른다.

"가진 돈이 많아지면서 남편이 차츰 변해갔어요. 학생 때는 총명하고 사회정의에도 관심을 가지고 빈민촌 봉사를 같이 했습니다. 여행이나 문화생활을 즐길 줄도 알았죠. 40대까지는 직장생활에, 돈 버는 데 바빠서 그런가보다 했지요, 매일처럼 술자리를 하고 주말이면 사교골프를 나가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벌 만큼 벌어 평생 쓰고도 남을 정도인데 돈 버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돈 벌어다주면 그만이라는 남편

그녀는 남편과 집안 경조사나 돈 문제 외에 대화를 나눈 기억이 흐릿하다. 어쩌다 시국이나 사회사건 이야기를 하다보면 그녀는 변해버린 남편에게 질리고 만다,

"젊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열악한 업무현장에서 과로사 했다는 뉴스를 보며 한마디 했더니 남편이 버럭 하더군요. 그따위 가벼운 동정심 따위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며, 단순한 사고를 두고 노동자 처우가 어떻다느니 확대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힘든 노동자의 죽음을 그리 가볍게 말하다니 비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돈을 많이 가져다주는 것으로 책임을 다한 듯 무심했고, 딸아이 교육이나 집안일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떠맡겼다. 그녀가 반발하거나 따져볼 요량이라도 하면 폭언을 하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점점 부부가 아니라 월급 주는 사장과 일꾼의 관계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의 생각이나 의견을 전혀 존중하지 않습니다."

요즘 남편은 회사 앞에 오피스텔을 얻어 주로 거기서 생활하고 집에는 가끔 들린다. 그녀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지만 굳이 확인하지 않았다. 알아보았자 어떻게 할까 싶고 거칠고 독선적인 남편과 맞서는 게 무섭기도 했다.

그녀는 남편의 등만 바라보며 늙어가기 서글퍼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원래 관심 있던 분야여서 공부는 재미있었고 박사 학위과정까지 끝내 논문 통과만 앞두고 있다.

"막상 공부가 끝나가려니 앞날에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남편과 저의 부부 관계를 깊이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을 것 같지 않고, 제가 아내로서의 자리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갈라서든지, 함께 살더라도 존중받는 아내가 되려면 우선 무엇으로든 남편에게 의존하지 말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궁핍함을 견딜 수 있을까 두렵다

남편에게서 독립한다는 이슈로 난희 씨와 나눈 코칭대화는 이랬다.

- 남편으로부터 독립이란 구체화시키면 뭘 말하는 것인가요?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남편의 지원이 없어도 혼자 꿋꿋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 남편의 지원이 없을 때 가장 염려되는 게 무엇인가요?

"홀로 늙어갈 거라고 생각하니 처음에는 모든 것이 두려웠어요, 외롭고 가난한 독거노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씩 따져보니 지금도 거의 혼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예요. 결국 돈 문제 더군요. 경제력만 해결되면 용기를 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 독립하려면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필요한지 설계해보셨나요?

"사실 지금보다 많이 궁핍해진 생활을 감수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요. 아직 어느 정도의 생활

남편의 벌이에 의존한 여성
자존감 회복의 기회 필요
검소함 통해 자유를 얻다

수준을 기준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박사학위를 딴다고 해도 고용이 안정된 직업을 가질 확률은 높지 않다. 운이 좋아 그런 일자리가 생긴다고 해도 은퇴 시점이 10 여 년 밖에 남지 않은 나이였다.

- 지금의 생활수준을 지키는 것과, 남편에게 존중받는 아내가 되는 일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요?

" 물론 남편에게 존중받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결국 남편의 고압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를 참으며 유복함을 누리느냐, 풍요함을 포기하고 자존감을 지키며 사느냐의 선택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 그렇군요. 안락함과 나의 존엄을 맞바꾸고 있네요. 맞아요. 지금은 굴욕을 참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굴욕' 이라고 자신의 처지를 표현했다.

난희 씨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뭐든 할 자유와 하지 않을 자유

돈이 많으면 뭐든 할 수 있어 자유롭다. 난희 씨가 경제활동을 꾸준히 해왔다면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가 쉬울지 모른다, 그녀는 자신의 경제력이 없어 남편을 견디며 사는 부자유를 감수하고 있다.

이럴 때, 관점을 바꿔보자. 거꾸로 보면 가진 게 없을 때 자유롭기도 하다. 풍요와 안락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있다. 그녀가 검소한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면 그만큼 새로운 생활에 두려움이 적을지 모른다. 가진 게 많아 뭐든 할 수 있는 자유만큼, 부족함을 견딜 수 있다면 원치 않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소중하다.

난희 씨는 전업주부로 충실하게 사느라 자신의 경제력을 갖지 못했다. 하지만 유복함의 대가로 자신의 존엄을 해치고 굴욕을 당한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서 벗어날 자유를 선택할 수는 있다. 궁핍이라는 대가를 치르기로 한다면.

붓다의 가르침 중에 빠지지 않는 덕목이 검소함이다.

재물에는 불이 따라 다니고, 물이 따라 다니며, 왕이 따라 다니고, 도둑이 따라 다니며, 바람직하지 못한 상속자가 따라 다닌다. 재물에 들어 있는 다섯 가지 재난이다.

〈앙굿따라 니까야. 재물의 경〉

재물은 재난을 부르고 불화를 부르며 탐욕을 부른다는 경계이다. 붓다께선 재물의 효용도 인정하고 있다. 역시 같은 재물의 경에서 재물이 주는 5가지 즐거움을 덧붙이고 있다, 자신과 가족과 친구와 동료와 수행자와 성직자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돌보니 그게 다섯 가지 공덕이라고 하였다. 붓다의 말씀은, 재물을 적절히 사용하면 효용가치가 크지만 탐닉하거나 집착하면 화를 부른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검소함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갖다

5개월 뒤 난희 씨와의 리마인드 코칭이 있었다, 그동안 그녀는 집을 나와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다. 서울 외곽 단독주택의 2층을 빌려 산 지 석 달 째라고 했다.

"이대로 살 수는 없고 1년만 나가서 살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보겠다고 했지요. 남편은 무덤덤하게 맘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나는 1년치 월세는 달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 권리는 있으니까요, 지금 백 만 원 조금 넘는 수입으로 생활을 꾸려가고 있어요. 남편과 살 때와 비교하면 엄청난 격차가 있는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예산을 짜서 거기에 맞춰 생활한다. 일주일치 식단을 짜서 마트에서 장을 보고 냉장고가 빌 때까지 있는 찬으로 밥상을 차린다. 책은 도서관에서 빌려보고 영화나 공연은 대폭 할인되는 기회가 생길 때까지 기다린다, 피트니스 클럽서 하던 운동 대신 저녁마다 강변과 공원을 몇 시간씩 걷는다,

"처음엔 서러운 마음에 울면서 걷기도 했어요. 이 나이에 뭔 짓인가 하고요. 근데 생활비 벌기도 바쁘다 보니 서러울 시간이 자주 안 나요. "

그녀는 상담일을 하는 외에 동네 협동조합에서 주말에만 나가는 판매직 아르바이트를 하고, 새벽에 일어나 주인집 정원을 돌본다,

"이 돈으로 한 달을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자신이 뿌듯해요."

그녀는 무엇보다 더 이상 남편을 떠나 있어도 두렵지 않다는 게 앞으로의 시간에 큰 용기를 준다고 했다.

"이렇게 살아보니 왠지 든든해요. 무슨 일이 생겨도 지금처럼 살면 헤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더 힘들어지면 하루 세 끼를 두 끼로 줄이면 되지요. 일주일에 한번 절에 가서 울력을 하는데, 안 되면 여기 와서 공양보살이라도 하지 싶더라고요. 제가 음식솜씨는 좋다는 소리는 듣거든요."

그녀는 지금이 유예된 시간이라는 것을 안다고 했다. 하지만 시도를 해보았다는 것, 용기를 내보았다는 것, 무엇보다 검소함이 주는 자유와 든든함을 깨칠 수 있었다는 게 큰 변화라고 말했다.

그녀가 예전보다 궁핍해진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을지 망설임과 좌절도 따르겠지만, 검소함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다.

몸과 마음에 내 것이란 생각 없고
그것이 없어진다고 해서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 사람
그를 수행자라 부른다. 〈법구경〉

〈한국코치협회 전문코치〉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승가전통 건강비법

마 가 목(원탕)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24일 일요일 – 오전7시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14년 7월 31일 목요일
– 오후7시30분 KBS–1 TV '한국인의 밥상' 경남 밀양 얼음골 「마가목」 건강식 방영
■ 2014년 10월 6일 일요일
– KBS–1 TV 오전5시10분 '내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가목」 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탕)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상담문의 010–9049–2848 (공휴일 및 야간전화 사절)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제방선원이나 수행스님께 대중공양 올릴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팔정도 실천해 연기 이르면 '부처'



김성규의
緣起 이야기

⑬ 진리의 실천 '팔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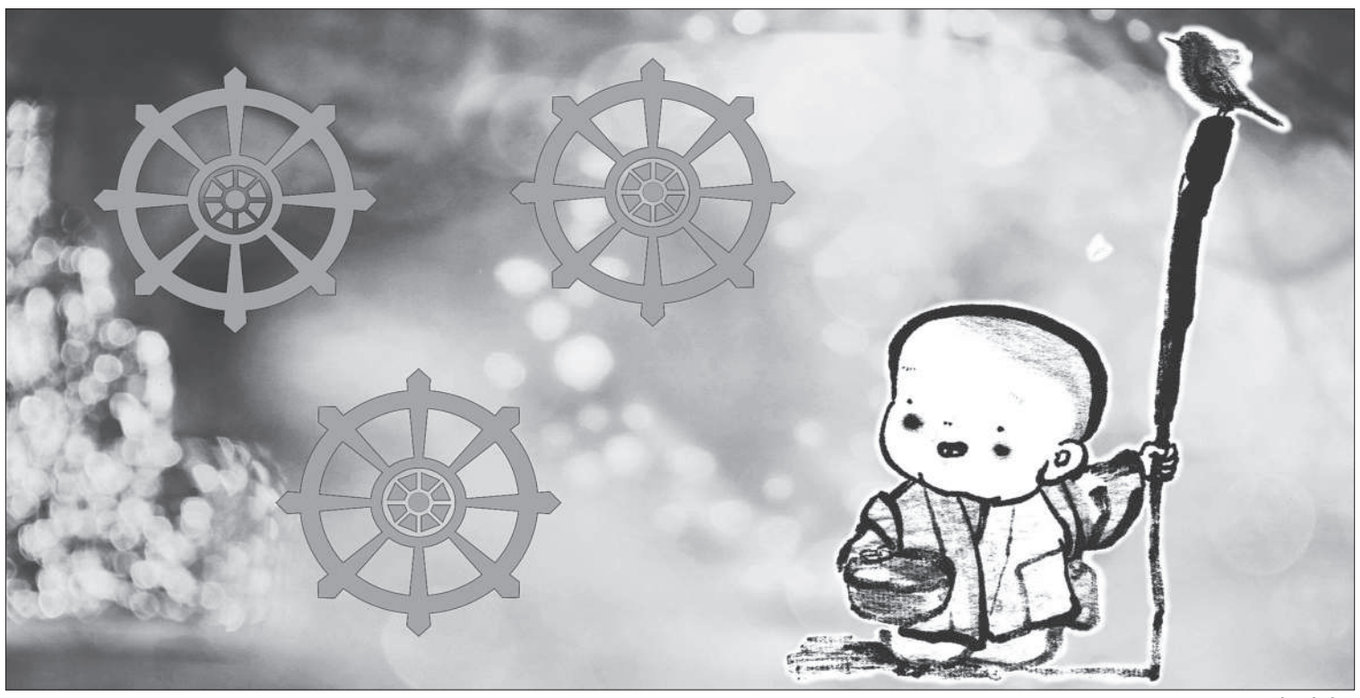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카필라상의 왕자였던 싯다르타는 어린 시절에 4대 성문에서 늙은이 · 병자 · 죽은 자의 상여 · 출가 수행자를 보고 삶의 허망함과 고통을 인식하고 이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찾았다.

싯다르타는 '8살 때부터 왜 죽어야만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졌고, 29세에 출가의 길을 나서게 된다. 6년 동안의 수행을 통해 죽음에 대한 해답인 '연기'를 얻었다. 이를 두고 나중에 회상하기를 "나 전에도 이후에도 나만큼 고행하는 자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연기에 이르는 방법론이 사성제이며, 실천덕목이 팔정도인 것이다.

정견(正見)

정견은 무아와 무상을 인식하고 난 후에 생기는 견해이다. "무아와 무상을 인식하여 사성제와 연기법의 도리를 바로 이해하며 선악을 구별하고 인연 따라 나타나는 법을 보는 것이고, 정법을 지키는 것이며 정견을 가지는 것이다. 진리와 진실을 바탕으로 한 보편타당하고 편견이 없이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것이다."

정사(正思)

생각인 정사부터 나와야 하는데 정견이 먼저 나왔다. 정견이 되고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래서 정견이 되기 위해서 바르게 생각해야 한. 정사는 바르게 생각하라는 것이다.

"번뇌, 망상과 삼독심에서 벗어나 주관이나 편견에 치우지지 않고 진심과 원한 없는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정사가 된다. 정사가 되면 삶 자체가 바르게 연결 될 수가 있다.

무명의 속성은 불안과 두려움이다. 무명의 속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탐진치다. 탐진치를 크게 나누면 탐은 식욕, 형상이 있는 것에 대한 욕망이고 진은 색욕으로 감정적인 욕망, 치는 수면욕, 치에서 무명의 상태가 일어난다. 치심에서 탐심과 진심이 나온다. 명의 속성은 밝음과 편안함이다. 밝음과 편안함에서 바른말이 나오고 바른 행동이 나온다. 바르게 생각을 하는 바탕에서 바른 행동이 이루어진다.

정어(正語)

바르게 말하면 정어가 되며 바르게 행위를 하면 정업이 이루어진다. 바른 생각만 되면 정어와 정업이 이루어진다. 정어란 무엇인지 한 번 생각해보자.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고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을 갖게 하는 바른말,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욕하는 말을 하지 않으며 서로 다른 말 이간질 하는 말을 하지 않으며 허황된 말을 하지 않는다."

〈법구경〉에 따르면 '바른말 한마디가 참된 공양'이라고 한다. 부처님에게 올리는 가장 좋은 공양은 바른 말 한마디다. 바른말 한 마디는 정사가 되지 않으면 정어도 되지 않는다. 정사가 되면 정어가 되고 정어가 되면 바른 행위가 나온다.

정업(正業)

바른 생각, 바른 마음으로 하는 행동이 정업이다.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은 바른 행동을 하게하고, 바른 행동을 계속하면 바른 습관이 생기게 되며, 바른 습관은 바른 생활을 하게하고, 바른 생활은 바른 인생을 살게 한다. 바른 생활은 현생에서도 내생에서도 복을 받게 한다.

학생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것은 정업을 하라는 것이다. 이때 공부하는 습관이 잘 들어놓으면 평생 복인 것이다.

정명(正命)

행위가 지속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바른 행위의 연속이 삶인 것이다. 그래서 정업이 되면 정명인 바른 삶이 된다. 바른 생각인 정사부터 정어가 되고 정업이 되고 정명이 된다. 정명의 뜻을 보면 "십 악업을 멀리하며 또한 남에게 이익이 되는 바른 일로 직업을 삼아 바른생활을 영위" 하는 것이다.

바른 삶이 정명이다. 우리의 삶은 평생 바르게 살아도 본전치기 밖에 되지 않는다. 이생에 힘들게 받은 사람 몸을 본전치기보다는 나은 삶을 살아야겠지. 바르게 살아가는 것까지는 기본적으로 본전치기 삶이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정정진을 해야 되는 것이다.

정정진(正精進)

이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진하는 것이다. 어떻게 정진할 것인가? 정진하지 않는 삶을 평생 살아간다면 한치 앞을 더 나아 갈 없다. 그래서 이생에서 정진 한번은 해보고 죽어야 한다. 그 정진을 바탕으로 다음 생은 더 나은 삶을

> 한 단계 나은 삶을 위해
> 우린 부처가 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해 정정진을 실천
> 정정진, 정념 · 정정으로 구성
> 정념 · 정정 이뤄진 것이 정견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세세생생 살아온 습에 의해서 사성제로 하루에 한 문제씩 푸는 것도 쉽게 되지 않는다.

정진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정진은 어떤 문제를 놓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같은 행위를 되풀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한 시간 씩 공부하는 습관을 들일 것을 제안한다. 이 한 시간이 바로 정진인 것이다. 예를 들어 '하루 1시간 참선을 하겠다' '하루에 절을 500배 하겠다' 고 정했다. 그런데 시간을 정하지 않고 멋대로 바꾸어가면서 하는 것은 정진이 될 수 없다. 시간을 정해 놓지 않고 내 멋대로 하는 것은 정진이 아니다. 가장 간단하고 쉬운 것이지만 평생을 살아도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정진이다.

부처님의 법은 인연법이다. 길 가다가 옷깃 한 번 스쳐도 500생의 인연이라고 했다.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인연이다. 공부하는 인연으로 다 견성성불 할 수 있는 것이다. 견성성불은 공부하는 인연만 지어 놓으면 그 인연이 조건을 성숙하게 하며 그에 따른 정진하는 인연까지 성숙하는 것이다.

어느 생에서 한 번 정진하는 맛을 들여놓으면 그 힘에 의해서 세세생생 살아가면서 정진도 하고 견성성불도 하게 된다. 이렇게 정진해 놓으면 다음 생에 쉽게 정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다. 지금 이생을 살아가는 모습은 99.9%가 전생에 했던 행위 그대로이다. 우리를 바꾸는 원동력은 정진에 의해서 0.1%만 변해도 되는 것이다.

일 년이 힘들면 20일도 좋고, 100일도 좋다. 백 일만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업을 바꿀 수 있다. 우리의 업을 바꾸는 계기가 100일인 것이다. 백 일만 참선 할 수 있으면 평생을 할 수 있다. 세세생생 할 수 있는 것이다. 부처되지 말라고 해도 부처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백 일 공부하기가 정말 어렵다. 처음 공부할 때 매일 30분이라도 한번 해보라고 한 것도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제대로 한번 해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30분씩 참선을 하든 108배 절을 하든 30분을 100일 만 해보자. 그 다음에는 하지마라 해도 돈 내고 할 것이다. 공부하는 것이 내 습을 바꾸는데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이다. 100일만 잘 버티면 습을 바꿀 수 있다. 습을 바꾸는 것은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어렵다. 기도를 하는 도중에는 끊임없이 일이 생길 것이다. 100일을 성취하려면 목숨 걸고 해야 한다. 백 일을 못 채우고 70일을 했다면 그것만 해도 큰일을 한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끊임없이 정진하겠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 정진력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진함으로써 이미 생긴 악을 제거하며/ 수억 겁 동안 살아오면서 생긴 나쁜 마음 탐진치를 제거하며/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내가 정진을 하여 내속의 악한 세포가 자라날 수 없으며/ 탐진치가 생겨날 수가 없고, 이미 일어난 선한 생각은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며/ 나한테 선한 업들이 정진을 하니까 점점 커지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선한 생각은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셨다.

정념(正念, 위빠사나)

불교공부하면 두 가지 큰 길을 만나게 된다. 사마타와 위빠사나이다. 한국 불교는 대승불교, 선불교 중심이다. 그래서 선정에 드는 사마타 중심의 불교이다. 남방에서 들어온 위빠사나 불교는 한 때 상당히 유행했다. 누구는 위빠사나가 더 맞다고 하고 누구는 사마타가 더 맞다고 한다. 사마타와 위빠사나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두 가지의 정진하는 방법일 뿐이다. 정념하는 것은 위빠사나이고 정정하는 것은 사마타이다. 사마타의 지(止)는 천태지의선사가 쓴 지관의 지이다.

위빠사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지관에서 관조하는 것, 관찰하는 것이 관(觀)이다. 마음속에 바른 지혜를 일으켜서 일체 대상의 실상을 그대로 관하는 것이 관이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자세히 관찰하여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한 생각을 집중시켜서 아예 산란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지이다. 그래서 지가 더 중요한 것도 아니고 관이 더 중요한 것도 아니다. 지와 관 두 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깨달음에 이를 수가 없다. 여기서 사성제를 지관을 통해서 말할 때는 관인 것이다. 어떤 일이 왜 일어났느냐 하는 그 원인을 찾아가는 것이 관인 것이다.

예를 들어 친구와 부딪치면서 성내는 마음이 일어난다. 왜 성내는 마음이 일어나는지 원인을 찾고 관찰하는 것은 위빠사나의 관이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성제를 제대로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위빠사나다.

결국 불교는 위빠사나와 사마타의 두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기둥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된다. 정념은 위빠사나의 관이고 정정은 사마타의 지이다. 부처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 할 때 깨달음에 이른다고 하셨다.

정정(正定, 사마타)

마음을 굳게 가지고서 일체의 대상이나 내부의 산란한 마음에 동하지 않고 특정한 대상에 집중시키는 것이 사마타의 지이다. 스님들이 참선할 때 '이뭣고' 하며 모든 생각을 여기에 집중시키는 것이 바로 사마타다.

처마 밑의 돌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방울에 구멍이 뚫린다. 이와 같이 한 생각에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사마타이다.

팔정도에서 정사는 바르게 생각하면서 바르게 말을 하고 바른 행위를 하는 이것이 바른 삶이 되어 본전치기라고 했다. 여기서 한 단계 나은 삶을 위해서는 부처가 되어야 한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정정진을 해야 한다. 정정진의 내용에서 하나는 정념이고 하나는 정정이다. 정념과 정정이 100% 이루어진 것이 정견이다. 부처님께서 왜 정견을 제일 덕목으로 내놓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연기로부터 나오는 인식, 생각이 정견이다. 팔정도의 일곱 개 덕목을 다 터득하고 난 후에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바른 견해 정견인 것이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팔정도를 실천함으로써 부처가 된다고 가르친 것이다. 〈영남대 의대 교수〉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모두 '일시적인 것'들



新 불교사자성어

㉔ 색즉시공(色卽是空)

색즉시공(色卽是空), '색(色)은 곧 공한 것' 이라는 뜻이다.

색은 인간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색수상행식 오온(五蘊) 가운데 하나이다. 보통 '물질' 이라고 해석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유형적인 모든 것, 곧 사물 일체를 가리킨다.

이를테면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집, 아파트 또 생활에 필요한 핸드폰, 신발, 냉장고, 옷장, 이불, 그리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비행기 등 모든 것을 가리켜 '색(色)' 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객관적인 사물만 공한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은 물론 인간도 모두 공한 존재라는 뜻이다. 〈반야심경〉에서는 '일체개공' , '오온개공(五蘊皆空)' 이라고 한다. 오온(사람, 인간)도 모두 공하다는 인식을 통해서 고통과 괴로움, 번뇌로부터 벗어나 해탈한 자유인이 된다. 오온개공은 나 자신은 물론, 영혼까지도 공하다는 것을 말한다.

인간은 살아 있을 때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느낀다. 우선은 육체가 있고 사물을 인식하고 사유하는 의식의 세계, 정신의 세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살아있지 않을 때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색수상행식(육체와 정신. 곧 인간을 가리킨다)의 오온, 이 다섯 개의 요소 가운데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두 자연 속으로 돌아간다.

우파니샤드 등 고대 인도철학에서는 아트만, 즉 영혼 같은 존재가 있다고 상정했다. 그 밖의 종교나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도 영혼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정말로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을까?

'사후 세계' 라는 말이 있다. 인간은 죽으면 정말 어디로 갈까? 사후 세계는 자기 자신이 가게 될 지도 모르는 세계이므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인지 갖가지 설이 대두되었지만, 그저 하나의 설에 불과하다.

불교에서는 인간은 죽으면 지수화풍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지수화풍(地水火風)' 이란 땅, 물, 불, 바람으로서 자연 속으로 돌아감을 뜻한다.

색즉시공은 삼라만상 등 현상 세계만이 아니고 나 자신, 우리 인간을 포함한 이 세계는 모두 공한 존재임을, 즉 공(空)이 진리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사상을 통해서 유(有)에 집착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사고를 개선하고,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자는 것이 색즉시공의 의미이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형적인 모든 존재는 공이다. 그 유형적인 것을 가리켜 불교에서는 '색(色)' 이라고 하고, 그러한 세계를 색계(色界)라고 한다. 사바세계, 곧 이 현실 세계를 가리키는 것인데, 중국 멜로 영화 가운데 동명의 제목을 가진 영화가 있다. 탕웨이, 양조위 주연의 '색계' 이다. 불교의 색계는 그런 이미지의 색계가 아니고 현상 세계를 가리킨다.

불교에서는 지금 눈앞에 있는 현상들을 모두 '일시적인 것' 들이라고 한다. 〈능엄경〉에서는 육진 분별 영사(六塵分別影事)라고 하여 우리의 안이비설신의가 만들어낸 신기루나 허상이라고 한다. 임시적, 일시적인 것들, 실체가 없는 가유적(假有)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존하지 않음, 실재하지 않음, 진짜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공연을 위하여 임시로 가설한 무대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공의 철학은 대승불교가 추구하는 이상향인 동시에 진리이자 핵심이다.

〈반야심경〉에서는 "색불이공, 공불이색(色不異空, 空不異色),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이라고 하여,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색(존재, 현상, 사물)과 공(空)은 둘이 아닌 하나(一)이다. 색과 공을 도식화된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말라는 뜻이다. 따라서 진리는 일원론이어야 하고 이원론은 진리가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싼스끄리뜨(梵語) 원문은 "이 세상에 있어 물질적 현상에는 실체가 없는 것이며, 실체가 없기 때문에 바로 물질적 현상이 있게 되는 것이다. 실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물질적 현상을 떠나 있지는 않다.

또, 물질적 현상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부터 떠나서 물질적 현상인 것이 아니다. 이리하여 물질적 현상이란 실체가 없는 것이다. 대개 실체가 없다는 것은 물질적 현상인 것이다."라고 설하고 있다.

한자에서 '곧 즉(卽)' 자는 두 식 또는 두 수가 같음을 나타내는 부호 '=' 와 뜻이 같다. '똑같다' , '차이가 없다' 는 뜻이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골짜기 찬 샘물', 설봉과 조주 다른 설법



격절록 강설

㉔ 제9칙 설봉고간(雪峰古澗)

[古則과 着語]

擧, 僧問雪峯 "古澗寒泉時如何" (戴得將來) 峯云 "瞪目不見底" (老婆心切) 僧云 "飮者如何" (正是降尊就卑) 峯云 "不從口入" (從什麽處入) 僧擧似趙州 (也須是這僧始得) 州云 "不可從鼻孔裏入" (也須是這老漢始得) 僧却問趙州 "古澗寒泉時如何" (放過即不可) 州云 "苦" (不妨難為咬嚼) 僧云 "飮者如何" (更不再活) 州云 "死" (灼然) 雪峯聞擧云 "趙州古佛從此不答話" (也是什麽心行)

어떤 스님이 설봉(雪峯, 설봉의존, 822~908)에게 물었다.

"옛 골짜기에 샘이 차가울 때 어떻습니까?" [머리에 이고 가져와보라.]

설봉이 말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자세히 봐도 밑바닥이 보이질 않는다." [노파심이 간절하구나.]

스님이 말했다.

"마신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로 신분 높은 사람이 자신을 낮춰 천한 사람과 왕래하는 격이다.]

설봉이 말했다.

"입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 [(그렇다면)어느 곳으로 들어가는가?]

그 스님이 앞의 일을 조주(趙州, 조주종심, 778~897)에게 전하자, [모름지기 이런 스님이라야 한다.]

조주가 말했다.

"콧구멍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모름지기 이런 노장이라야 한다.]

스님이 조주에게 물었다.

"옛 골짜기에 샘이 차가울 때 어떻습니까?" [놓쳐서는 안 된다.]

조주가 말했다.

"쓰다(苦)!" [씹기가 대단히 어려울 텐데.]

스님이 말했다.

"마신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 번 죽으면) 결코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조주가 말했다.

"죽는다." [분명하다.]

설봉이 이를 듣고 말했다.

"조주는 고불이다. 이제부터는 대답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심보인가?]

[拈古와 着語]

雪竇拈云 "眾中總道 雪峯不出這僧問頭 所以 趙州不肯 (多少人作者語話) 如斯話會 深屈古人 (灼然) 雪竇即不然 (看雪竇有甚麽長處) 斬釘截鐵 本分宗師 (分作兩邊) 就下平高 難為作者" (雪竇也出趙州纔續不得).

설두가 염해서 말했다.

"대중이 모두 말하기를 '설봉은 이 스님의 물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조주가 긍정하지 않은 것이다' 고 한다. [여러 사람이 작자라도 된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말은 고인(古人, 설봉)을 몹시 억울하게 하는 것이다. [분명하다.] 설두는 그렇지 않나니, [설두에게 무슨 특출한 것이라도 있는가 보라.] 못을 끊고 쇠를 자르는 본분종사는 [양변으로 나누는군.] 낮은 것을 취해서 높은 곳을 고르게 하기에 작자가 되기 어려운 것이다." [설두야말로 조주의 권궤(綣繢, 올가미 또는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강존취비(降尊就卑)=강존임비(降尊臨卑):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자신을 낮추어 천한 사람과 왕래를 함을 이르는 말.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㉔ 이해의 길 4

건물 전체 보려면 밖으로 나와라

"불교란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간단히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 불교에 대한 자기 나름의 철학이나 체험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쉽게 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이 질문에 대한 반응도 제각각이다. 아마 100명의 불자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똑같은 답변은 별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 많이 나오는 몇 가지 답변을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그저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하게 살자는 가르침이 불교' 라는 답변이 있다. 매우 훌륭한 대답이다. 이는 흔히 칠불통계게(七佛通戒偈)로 알려진 내용으로 과거 일곱 붓다께서 공통으로 경계한 가르침이라는 뜻이다.

모든 나쁜 짓을 하지 말고(諸惡莫作)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며(衆善奉行),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自淨其意), 이것이 모든 붓다의 가르침(是諸佛敎)이라는 뜻이다. 쉬우면서도 명쾌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많은 불자들이 선호하는 대답이다.

'그저 마음 하나 깨치는 것이 불교' 라는 선불교적인 답변도 있다. 주로 선사(禪師)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불교는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이 목적인데, 내 마음이 곧 부처(心卽佛)이므로 이를 깨치는 것이 불교라는 직설적인 대답이다.

불교의 모든 것을 마음 심(心) 한 글자로 압축한 것이다.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차 한 잔 하고 가라(喫茶去).' 거나 혹은 '뜰 앞의 잣나무(庭前栢樹子)' 라는 알듯 모를 듯한 답변도 있다. 아예 '악(喝)!' 하고 큰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있다. 조사선의 아우라가 물씬 풍기는 답변들이다.

불교는 '깨달음과 자비의 종교' 혹은 '지혜와 자비의 종교' 라는 대답은 불교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일반대학이나 불교교양대학에서 선호하는 방식이다. 불교는 존재의 실상을 깨달은 자(覺者)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연기(緣起)나 무상(無常), 무아(無我) 등 붓다가 깨친 내용을 체득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일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주로 불교철학이나 불교입문 등의 강좌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답변들은 불교를 설명하기에 부족하진 않지만, 서로 다른 내용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다양한 답변들이 나오는 이유는 말하는 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불교는 2, 3층짜리 건물이 아니라 100층 정도 되는 매우 높은 빌딩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는 깨달음과 자비의 가르침이라는 대답이 붓다 빌딩(Buddha building) 1층에서 말하는 방식이라면, '악!' 하고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은 100층에서 통용되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붓다 빌딩 각각의 층이 어떤 모습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물 밖으로 나와야 한다. 건물 안에서는 불교라는 건물 전체를 살필 수 없기 때문이다. 밖으로 나오면 1층에는 근본불교 간판이 걸려있으며, 100층에는 선불교가 자리하고 있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불교' 라는 이름 앞에는 수많은 수식어가 붙는다. 지역별로 인도불교, 중국불교, 티베트불교, 한국불교 등이 있고 시대적으로는 초기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 등이 있다. 주제별로는 화엄불교, 천태불교, 선불교, 정토불교 등이 있다. 불교와는 다르다고 주장하는 원불교도 자리하고 있다. 수식어가 많다는 것은 불교의 모습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층만 알면 다른 층은 불교가 아니라는 편견에 빠질 수 있다. 불교에도 하나만 아는 일식(一識)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각 층에는 저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존재한다. 종파마다 중시하는 경전과 수행 방식이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 안에만 있으면 〈금강경〉이나 〈법화경〉, 〈화엄경〉 등 특정 경전이나 간화선, 묵조선, 위빠사나 등 자신들의 수행방식만 제일이라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 불교라는 건물 밖으로 나와서 빌딩 전체를 조망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나는 지금 몇 층에 위치하고 있는가?' 불자로서 꼭 필요한 질문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社)大韓佛敎 蓮曹溪宗

종도모집

부처님 지혜광명 시방세계 무명중생 온 누리를 두루 밝게 비추오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포교와 기도 불사에 전념하시는 대중스님께 社)大韓佛敎 蓮曹溪宗에서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입종서류

①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③ 반명함판 사진 2매
④ 사.암 내, 외 사진첨부
⑤ 입종 종도에게는 [승려증, 법사증, 전법사증] 발급
⑥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세무서 고유번호등록)

社)大韓佛敎 蓮曹溪宗 문화관광부등록번호 2018-2호

총무원장 : 지명 혜광 전화 : 054-481-3110 / HP : 010-7109-3111
총본산 : 경북 구미시 선산읍 선산동로 465-11 팩스 : 054-481-3123

본종단 사업 : 사회복지 및 장애인사업, 장례문화사업, 요양원 등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세계평화명상센터 생활관 상량

전주 서고사에 내년 연말까지 완공목표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주지 성우)가 전주시 만성동 서고사에 건축 중인 세계평화명상센터 명상생활관 상량식을 봉행했다. 6월 28일 서고사 현장에서 열린 상량식에는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 남고사 주지 원혜 스님, 심곡사 주지 화평 스님, 은적사 주지 석초 스님과 불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성우 스님은 "현대사회서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세계평화명상센터에 생활관이 먼저 들어선다"며 "내년 연말까지는 완전히 불사가 회향될 수 있도록 많은 정성을 모아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상량식을 마친 생활관은 1~2층은 콘크리트 구조, 3층은 전통 한옥형태로 기계실과 사무실, 명상체험자들의 숙소, 상담실, 접견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금산사는 세계명상센터가 건립되면 명상생활체험을 통한 평화와 공존의 정신 확산과 한류정신을 대표하는 전주시의 정체성과 종교문화 도시의 모델 구축, 미륵사지 및 한옥마을과 연계한 명상체험 관광지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핑크박스'에 담긴 따뜻한 배려

여성청소년 돕는 빛고을나눔나무

예민한 사춘기 여성청소년을 돕기 위해 광주불교계가 뜻을 모아 눈길을 끈다.

광주불교연합회 부설 빛고을나눔나무(상임이사 보응)는 7월 1일 광주 동구청(구청장 임택)을 방문, 지역 내 결손가정 여성청소년을 돕기 위해 마련한 '핑크박스'를 전달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30명을 위해 준비한 핑크박스에는 생리대를 비롯한 각종 여성용품이 담긴 선물이다.

'붓다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전달식에 빛고을나눔나무 상임이사 보응 스님과 광주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도계 스님, 증심사 주지 중현 스님 등이 참석해 지역 내 여성청소년들을 응원하는 한편, 준비한 핑크박스를 임택 동구청장에게 전했다.

보응 스님은 전달식에서 "앞으로도 많은 여성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불교계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죽음이 두렵다면 죽음준비 수행을"

Interview

'죽음명상' 강좌 여는 용수 스님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7월 13일부터 8주간 영상강좌
죽음전문가 홀로첵 법사 법문
잠자면서 하는 수행법 듣는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그러다 죽음이 눈앞에 닥치면 마음이 무너지고, 상실감을 느끼고, 망연자실합니다.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아서죠. 불교 관점에서 보면 '나'를 생명의 주체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수행을 통해 죽음과의 관계를 바꾸면서 삶의 가장 큰 장애로 여긴 죽음을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세첸코리아가 세계적인 죽음전문가 앤드류 홀로첵 법사의 법문을 영상강좌 형태로 제공, 잠과 꿈을 어떻게 수행하고 이를 통해 사후의 모습을 인지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세첸코리아 대표 용수 스님은 7월 3일 현대인이 왜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 같이 강조하면서 죽음준비에도 수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첸코리아의 홀로첵 법사 영상강좌는 7월 13일부터 9월 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8시에 진행된다. 장소는 서울 홍은동 세첸명상센터. 이번 강좌는 지난 4월 홀로첵 법사가 방한해 '죽음준비 집중수행'을 주관한 내용을 영상으로 공부하는 자리다. 꿈요가를 중심으로 낮과 밤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일상에서 깨어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홀로첵 법사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 각지에서 강연과 온라인 강좌,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는 영적 지도자로 알려져 있다. 수십 년간 체험과 연구로 꿈요가와 죽음준비를 터득한 티베트불교 수행자로서 티베트 내에서도 인정받았다.

"우리가 죽은 뒤에 어떻게 될지를 알고 싶다면 밤의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잠은 '작은 죽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꿈은 죽은 뒤 영가가 49일간 헤매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흔히 습관은 낮에 생각으로 발현되고, 밤에는 꿈으로 발현된다고 말합니다."

이번 영상법문 강좌는 내년 홀로첵 법사가 방한해 진행할 죽음준비 심화과정에 앞서 기초를 다지는 교육이다. 강좌는 크게 죽음준비, 밤의 수행, 일상명상 총 3가지 대주제로 구분된다. 그리고 각 주차별로 △죽음으로 가는 길 안내서 △죽음과 다르게 관계 맺기 △자각몽, 꿈 속에서 꿈을 알아차리기 △꿈요가의 혜택과 기법 △에고를 다스리는 밤의 수행 △바르도 요가, 형태 없는 것을 자각하기 △낮 수행과 밤 수행의 상생 △꿈과 현실, 모든 일상에서 깨어있기 등이 진행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습관은 낮에 생각으로 발현되고, 밤에는 꿈으로 발현된다고요. 즉 꿈에서 깨어나는 연습을 하면 영가들이 죽은 뒤 49일간 헤매는 단계인 '재생의 바르도'에서도 깨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대략 30년이라는 시간을 잠과 꿈으로 보냅니다. 이 시간에도 깨어 수행을 할 수 있다면 붓다(Buddha)의 뜻인 '깨어있는 자'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무경계 영토 '행복한마을' 문 열다

사단법인 행복한마을, 6월 30일
첫 불사 심검당 · 제너홀 준공법회

너와 내가 하나, 무경계 마음으로 일구는 사부대중 불교 수행공동체 '행복한마을'에 심검당과 제너홀이 문을 열었다.

사단법인 행복한마을(촌장 은산)은 '심검당'과 '제너홀' 개소식을 6월 30일 심검당 앞마당에서 개최했다. 개소식을 축하하며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은 "하늘과 땅이 모두가 한 몸이고 뿌리가 같다"며 "동체대비로 서로 돕고 환경을 가꾸어 나간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행복한 마을이 될 것"이라고 축하했다.

촌장 은산 스님은 "행복한 마을 재가불자들이 진정한 귀의의 마음으로 사부대중 공동체를 만든 것"이라며 "불자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수행자는 오직 수행에 전념하는 참된 사부대중 공동체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심검당은 스님들의 생활공간으로 3층 규모이며 14개의 방사로 구성돼 있다. 내부는 다실과 침실이 있고 세탁기, 미니 냉장고, 화장실 등 현대적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제너홀은 종무 기능뿐 아니라 공양간 및 상담이 진행되는 곳으로 행복한 마을 컨트롤 타워 기능을 담당한다.



사단법인 행복한마을은 6월 30일 불사의 첫 결과물인 '심검당'과 '제너홀'을 개소했다. 사진은 관리동에 해당하는 제너홀.

현재 사부대중 공동체 행복한마을은 경남 거창군 남하리 대야리에 1만6000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이번 개관식은 불사 성과를 보여주는 첫 시작이다. 앞으로 재가자를 위한 휴심정을 비롯해 법당 등 대중을 위한 처소 및 수행공간이 세워질 예정이다.

한편, 개소식에는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 행복한마을 촌장 은산 스님을 비롯해 혜암문도회 스님들이 참여했으며, 아펌 태국불교수행공동체 대표, 서미례 행복한마을 재가대표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거창=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농번기 단비 같은 음악회

담양 호국사, 가객 정용주 초청 산사음악회



담양 호국사(주지 본묵)는 6월 29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감성가객 정용주의 만원의 행복, 산사음악회'를 열고, 농번기에 들어가는 지역민들을 위로했다. 음악회에는 주지 본묵 스님과 광주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도계 스님, 광주전남불교어린이청소년연합회장 도성 스님을 비롯해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문화재 활용, 최고의 보존

김제 금산사 '마음 쉬는 토요일' 개최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김제 금산사(주지 성우)는 7월 6일 1박2일간 2019년 전통산사문화재 활용프로그램 '마음 쉬는 토요일'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국보 62호 미륵전에 깃든 이야기를 소재로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는 '놀부가 들려주는 금산사 보물이야기'를 비롯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윤호섭 기자**

"자발적 가난의 큰 행복"

덕양행신복지관, 신정현 경기도의원 초청 강연



고양시덕양행신종합복지관(관장 성화)은 6월 28일 복지관 4층 음악교실서 지역주민 38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을 초청해 '자발적 가난, 덜 풍요로운 삶이 주는 더 큰 행복'이라는 주제로 명사초청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명사초청강연은 올해 두 번째로, 복지관 측은 고양시와 연관된 명사를 연간 3회 초청해 지역주민에게 강연을 제공할 계획이다. **윤호섭 기자**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3, 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252호 | A13 | 전면광고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들 가운데 연꽃 같은 존재임을 알라.



부처님 말씀 읽기 -《관무량수불경》에서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간암, 묘터, 유산낙태 조상영가, 교통사고, 이혼수, 직장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명리구성학, 육임학, 성명학

010-4014-8822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 찰 행 사 전 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튜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의식은 불교의 꽃입니다.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49재,천도재,점안의식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문의 010-3263-6544
010-5530-2388

수강생 모집

- 기문둔갑, 사주명리, 실전혜단풀이 특강
- 속성 5개월 과정 ●한문 몰라도 됨
-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청강 가능
-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 (5개월) 기문둔갑 : 150만원 / 사주명리 : 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589-595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세 미만

경북 포항

010-4448-3750

★책-검색★

①천기누설운(運비밀공개)
②종교의본질(비교종교)
③대박재테크운(運재테크)
④천기소설예언자(삶인도)
⑤기도와명상(최상수행법)
⑥자기계발핵심(성공기술)

위 책이름검색 / 1권 구입해보세요

문의 010-5105-5000

특수한 비술기도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후공부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함

문의: 054-753-8228, 010-8852-0075

신차·외제차·중고차

#리턴 포인트로 100% 캐시백 받으세요#
(물건을 사면 100%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❶ 찻값에 10%만 내시고 할부 끝날 때까7지 공짜고 타세요.
❷ 1년 지나면 소멸되는 자동차 보험도 100% 캐시백 받으세요.
❸ 삼성, LG 가전제품도 100% 캐시백 받으세요.

010-9469-1256

단원 정통 명리학

- 교육 : 수시접수 | 초급, 중급, 연구(격국)반 접수 | 1년 과정 — 수강료 : 360만원
- 단원 정통 명리학 : 실증철학 정규과정 수강생 접수 — 단원역리학협회 법인 자격증 제도
-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 학문

지현명리연구원 : 역학전문교육처 志晛 : 韓 基子(恩灵)
명리학 / 작명학 / 육효학 / 간지체성론과 육십갑자론(특허)

주 소 서울시 종로구 명륜4가 54-1 3층 웹사이트 cafe.daum.net/3332han cafe.naver.com/3332han

단원역리학협회 010-4470-6314

(종)한국불교조계종지도자연합회

귀의 삼보하옵고, 미래 사회를 밝혀나갈
새로운 종단〈**한국불교조계종지도자연합회**〉에서
함께 할 종도님들을 모십니다.

입종 서류 및 기타 문의

총무원 – 산청 010-9422-1233
경남종무원 – 창원 010-4582-3366

소小 평平 원院

소 소중한 인연들의 평 평안과 치유를 원 기원하는 곳



소암 김지엽

사주명리
신점신병 전문
자녀문제

경북 청도군 금천면 사전1길 6-9

010-8007-1680 / 010-4254-8274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대중불사 인연을 모십니다

- 위치 :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804번지
- 토복건축허가 득하였으나 건축자금 8천만원이 부족하여 지면으로 좋은 인연을 찾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불교 천일종 청룡암 | 주지 도광
농협 351-0678-9831-53 한상오

010-2385-3789

점안식 49재 천도재

불공 사찰행사 전문

- 범음범패 실전위주교육 바라나비무,법고,화청,풍수,명리,육효,주역,작명(학인모집)
- 남 · 여 결혼 성사 접수 중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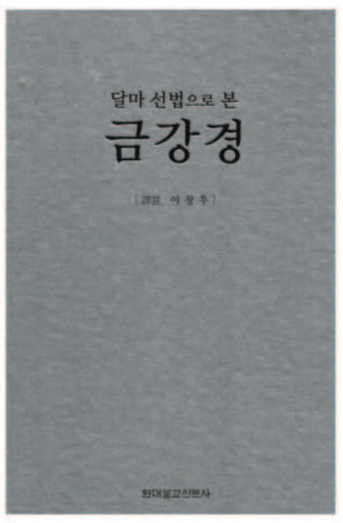
031-953-3328
010-8893-8361

국제 붓다 평화봉사단

국내외 활동 자원 봉사자 환영합니다

지구촌 그늘진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온 여성 불자 봉사단 입단의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02-733-5665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이 책은 참마음, 참나, 참자기, 본래면목, 불성, 자성, 진여일심, 한마음을 찾는 달마선법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풀이(주해 및 강의)한 책이다. 저자인 이창우 거사는 조계종 한마음선원장 대행 선사의 재가 제자로서 오랫동안 대행선사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고 마음공부를 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오늘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냈다. 저자는 "마음을 몰록 놓는 삶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 같지만 발 가는 곳에 마음이 머무는 곳에 진리(부처)가 있으므로, 생활을 도량으로 삼으면 살아서는 안내자가 되고 죽으면 구세주가 되므로, '참자기'를 스승으로 삼고 '참마음'을 등불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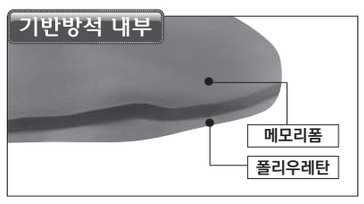
■ 구입문의 : 02)2004-8216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제품의 특징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TEL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쑥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율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율
상·중·하 단전 챠크라 열려 기운 쌩쌩!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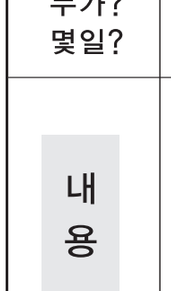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3, 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7㎝: 7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252호 | A14 | 전면광고

혀를 놀려 거짓말하지 말고,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불반니원경》에서

삼보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 대지 : 8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가액 : 2억 8천

◎ 위치 : 인천
◎ 대지 : 101평
◎ 법당 : 34평
◎ 요사 : 34평
◎ 가액 : 12억

◎ 위치 : 부산
◎ 대지 : 196평
◎ 법당 : 30평
◎ 요사 : 35평
◎ 가액 : 6억 8천

❖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 사찰, 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이 이용하시여 뜻을 이루시고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절대 비밀보장 ●
전국사찰 급히 구합니다.

문의전화 010-6722-2211

임야안내

- 위치 : 진도군 지산면 앵무리 산19번지, 21-2번지, 22번지
- 임야 14,600평 정도
- 가액 : 1억 1천만원
- 사정 상 급매

010-8666-6210

사찰(급)안내

- 위치 : 창원역 15분. 마금산 온천 5분 거리. 신도시 개발지 인접 ● 대웅전(단청완료). 삼성각. 주지상담실(황토방). 요사채. 공양간. 대형 저온창고 대형창고 2개. 차고. 주차장 500평 ● 총면적 : 6,200평
- 사찰 총 불사비용 35억 투자함
- 가액 : 13억(대출금 5억 포함) ● 계약 시 5억 주시면 등기부등본 넘겨줌. 나머지 3억은 5년간 연차적으로 불사금으로 완납 가능
- 신도시 개발로 4차선 도로 공사 중

010-9647-0723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5421-1536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매전면 남양리 2140번지(도로명:남양길 200)
- 대지2건. 총 약 460평
- 하천부지,공지 약80평 사용중
- 건평 50평 중 20평 신축중
- 관음보살님과 약사의약수 신통영험의 도량
- 금액 : 3억 8천 5백만원(가격절충 가능)

054-371-2229
010-6781-7890

광진불사

◎ 위치 : 서울시
◎ 대지 : 300평
◎ 법당 : 50평 외
◎ 요사 : 70평
◎ 매가 : 36억 5천

◎ 위치 : 충남
◎ 부지 : 900평
◎ 건평 : 50평
◎ 산및사찰,교통편리,여건좋음
◎ 매가 : 3억 5천만원 정

*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 신행상담, 사찰순례,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 및 수목장 최적의 위치임 (경주/울산 경계)

- 주소 : 경주시 양남면 상계리 712번지 산70번지 일원
- 토지 : 27,000평(상계리 산70번지 수목장 대표 지번임). 현재 지목은 임야이나 부지 조성은 70% 되어있음
- 건물 : 800평(6층/현재 연수원으로 사용함)
- 특징 : 울산 포항에서 20분거리 / 정남향 전면 하천 청수폭포 / 인근 민가없음 타인이 볼 때 절터와 수목장으로 최적격이라고 함
- 가액 : 70억

건물은 네이버 돈자리연수원 으로 검색

010-3877-6899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찰안내

- 위치 : 전주 중심지 한옥마을 인근
- 이성계 태조대왕 천년 영험 기도터
- 법당. 요사채. 극락전(최근2년신축)
- 토지 : 총 약 500평. 국유지 1만평 무상 사용
- 천년기도 용궁 약수터. 대나무 숲 울창
- 편백나무 3천그루(풍수명당 길지)
- 석불 1억 5천만원 설치함
- 가액 : 5억(대출 2억포함). 전세 2억 가능함
- 계약 시 2억 받고 등기이전 해드림
- 잔금 1억(3년 간 불사하셔서 분할 납부)
- 땅값만 받고 급매(5층 신축 가능 토지)

010-9647-0723

포교당급매

- 위치 : 부산 기장 역세권 시장 3분. 역사 2분 거리
- 3층 건물. 2층 80평. 3층 주택 50평
- 삼존불 지장독불 시설 완벽 옥상 사용 가능
- 가액 : 2층 보증금 2천/월 60만. 3층 보증금 1천/월 50만
- 2층만 하여도 됨
- 기장에 이보다 싼 건물 없음

010-6520-585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
- 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사찰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에 있는 전망좋은 사찰
- 대지 : 350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2동 (1동은 3집 월세받음)
- 많은 주차, 남향집, 도시가스
- 가액 : 13억 5천만원
- 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010-3269-1023

토굴안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이서면 마을 안. 186평
- 조립식 법당. 15평
- 청동, 삼존불, 후불, 104위신중, 독성, 산신 탱화, 요사채, 냉방, 온히터, 앰프시설 완비, 주차시설 완비, 창고 등
- 보증금 1000만 / 월세 30만
- 시설비 3700만. 절충가능

010-9150-0029

사찰안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 가액 : 6억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 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쪽

010-3128-2399

사찰안내

- 위치 : 경기 파주 지역
- 대지 : 90평
- 건평 : 1층 70평. 요사 2층 30평. 법당
- 주차편리. 공기최상
- 가액 : 4억 7천만원

010-4012-5500

사찰안내

-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 326번지
- 삼성아파트 후문/우방아파트/남양아파트 옆 도로 접
- 재개발 지역. 전 162평. 옛날 단독주택 건물 약 80평. 단층 상가식. 전포 3칸
- 창고 겸 생활하며 사주 철학 영업할 수 있음
- 가액 : 7억 5천

주인직 010-8666-6210

사찰안내

- 위치 : 충남 금산 추부면
- 종교부지 280평. 임야 50평. 총 330평
- 법당 23평(철재경량골)
- 삼성각 : 30년된 목조기와 7평. 단청
- 요사채 : 철재스레트 30평
- 방5개. 거실. 주방. 화장실(실내1, 실외1)
- 사찰 뒤는 산, 앞은 강이 내려다 보이는 탁 트인 전망좋은 곳
- 가액 : 2억(융장 6천만원)

010-3875-6305

전국사찰안내

- 사찰 / 사찰터 / 암자 / 포교당 수익성 부동산 거래하실 분
- [30년] 전문 경험으로 연결하겠습니다.
- 망설이지 마시고 편안하게 연락주십시오.
- 보물불감(작은 법당. 3존불 조각) 30년전 천만원 매입. 개인사정 급하여 파격으로 거래(상담환영). 원통지름 12㎝×높이 25㎝

불자공인중개 공신공인중개사

010-3382-0555

별장같은 토굴

- 위치 : 경북 영양군 수비면 일월산 자락
- 친환경 현대식 목재건물
- 건평 30평, 대지 밭 1천평
- 앞, 뒤 소나무. 10대 이상 주차 가능. 주차장 완비
- 가액 : 2억 3천(가격 절충 가능)

010-5424-4969

토굴임대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남로 (남한강변)
- 건물 : 약 50평(법당. 큰방. 거실. 중간방2. 주차공간 넓음)
- 주변 환경이 매우 좋음
- 즉시 법회 가능

010-3188-0511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진전면 오서리
- 법당 : 38평 ● 요사 : 65평
- 대지 : 1천평 ● 임야 : 4천평
- 가액 : 12억(대출 2억 5천)

010-4547-4990

포교당안내

- 위치 : 경북 포항 남구
- 2층 상가 60평
- 거주가능
- 삼존불, 탱화 시설완비
- 다량주차 가능
- 몸만 오시면 법회가능
- 가액 : 1억 2천만원

010-2857- 2811

토굴 겸 포교당안내

- 위치 : 경북 경산 갓바위부근
- 임법당 40평. 크고 아늑함
- 주차시설 좋음. 텃밭있음
- 가액 : 보증금 3백 / 월 35만원
- 시설 및 집기 일체 8백만원

010-2395-8891

사찰 / 포교원안내

사찰
- 위치 : 종로구 평창동 54-1
- 건평 : 약 70평
- 건물1 : 방3. 욕실2. 다용도실
- 건물2 : 황토방1. 욕실1 주방. 거실. 다용도실
- 건물3 : 법당. 원룸1
- 전 : 약 200평. 5필지
- 주차 약 10대 가능
- 가액 : 19억

포교원
- 위치 : 종로구 평창동 193-1 A동
- 4층 건물. 근린상가
- 건평 : 약 270평
- 주차 약 9대 가능
- 대지 : 약 108평
- 가액 : 29억

010-2325-1014

일본포교당(급)안내

- 위치 : 오사카 쯔루하시와 조선 이찌방 사이. 재래시장 입구. 대각사 포교당
- 무속인, 신명제자, 법사 운행하는 자리로써 위치 최고 좋음.
- 한국사찰 운영 관계로 급히 안내합니다.
- 꼭 하실 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3545-5060
080-5358-5060
070-8836-5060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25번길 21 호원동
- 대지 : 28평
- 건물 1층 요사방 2개. 2층 법당 조립식 20평
- 부처님 6분신 중 칠성/산신/지장소불/108분
- 법당 집기 일체 양도
- 가액 : 2억 3천만원
- 스님이 고령이라 양도함

010-8900-4874

사찰안내

- 위치 : 합천군 면소재지 큰 도로 옆(위치 양호)
- 몸만 오면 됨
- 대지 : 123평
- 건물 : 법당 1동. 요사채 1동
- 가격 : 2억 7천

010-6562-1577

사찰안내

- 위치 : 대구 시내
- 대지 : 200평
- 법당 : 20평
- 요사채 : 40평
- 산신각 : 10평
- 몽땅 : 1억 1천만원

010-8861-1785

사찰안내

- 대지 150평 건물 15평
- 앞 개울 남향 한적한 곳
- 다용도 호족건 검색 창
- 경북 영양군.읍 상원리 180-180-1
- 가액 8,000만 조정 가능

010-7621-7621
010-2641-2641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
- 대지 : 360평 ● 사용 가능 부지는 약 500평(하천 부지 포함)
- 법당. 삼성각. 약사여래. 3층 탑. 석탑 요사채 2개. 창고 3개. 주차시설 완비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4억

010-4583-4895

수행관(기도처)안내

- 위치 : 김천시 지례면 거물길 379-21
- 아주 조용한 산사. 면소재지. 도보 가능함
- 수행자(기도인) 딱 맞는 수행관 안내합니다.
- 원룸. 투룸. 쓰리룸. 한옥독채가 있습니다.
- 금액은 보신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 전 · 월세 가능

010-5882-2452
010-5807-2452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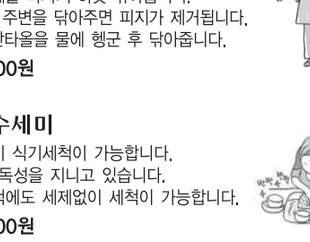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현대불교 현불샵 T.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성범죄 온상 추락한 美 불교공동체

샴발라 센터, 수장 이어 회원들까지 경찰 입건

박정현 객원기자

전 세계적 불교 공동체인 샴발라 센터(Shambhala center)가 성범죄의 온상으로 추락했다. 지난해 7월 샴발라 센터의 수장인 사경 미팜 린포체(Sakyong Mipham Rinpoche)를 비롯한 지도층 스님들이 신도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이번에는 회원들 간 성폭행 혐의마저 불거졌다. 심지어 아동 성폭행 사건이다.

미국 콜로라도주(州) 경찰이 볼더시에 위치한 불교 공동체 샴발라 센터의 전(前) 회원, 마이클 스미스(Michael Smith · 54)를 체포했다고 불교매체 더부디스트도어가 7월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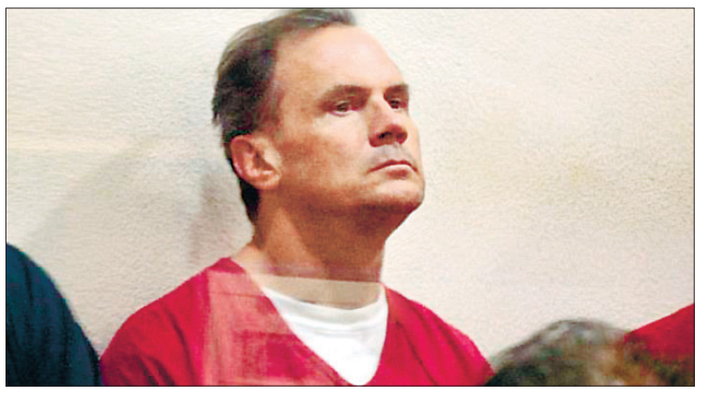
그는 해당 불교 공동체에서 소개 받은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체포됐다. 피해자 A씨가 10대였을 때부터 수차례에 걸쳐 그녀를 성폭행했다는 것이다. 볼더 경찰은 "피해자는 스미스로부터 13살 때인 1997년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 스미스는 볼더 시 샴발라 센터의 회원으로서 그녀를 소개받았다"고 설명했다.

더욱 큰 문제는 피해자가 복수라는 점이다. 해당 사건이 불거지자 "스미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또 다른 샴발라 센터 회원이 나타났다. 피해자 B씨는 "11살 때 샴발라 센터 불교 수련회에서 그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스미스는 버몬트주에 위치한 샴발라 센터 분원에서 피해자 B씨를 성폭행했다. B씨는 9살 때 해당 분원 수련회에서 스미스를 처음 만났다고.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스미스가 우리 가족에게 2~3년간 방을 임대해줬다. 나는 그곳에 사는 동안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 처음에는 무섭고 수치스러웠지만 나중에 부모님에게 알렸고, 그들이 스미스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사경 미팜 린포체부터
최근엔 센터 회원들까지 적발
회원 스미스는 '아동성폭행'
국제적 불교네트워크 망신살

하지만 사건은 곧 은폐됐다. "샴발라 센터 일부 신도들이 의도적으로 감췄다"는 게 피해자 측 주장이다. 피해자 B씨 부모는 "처음에 샴발라 센터에 알렸는데 관계자들이 그를 경찰에 신고하지 말자고 했다. 그가 '다시는 그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는 등의 약속을 하는 조건이었다"고 했다.


불교 공동체에서 만난 아동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마이클 스미스.
사진출처=더부디스트도어

실제로 해당 사건은 샴발라 센터 내에서 공론화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샴발라 센터 볼더시 분원의 관리감독자 멜라니 클라인은 "최근 몇 년 간 아동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어떤 정보도 보고된 바 없다"며 "이번 기회로 그의 범죄 혐의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스미스는 볼더 경찰에 의해 체포된 후, 지난달 28일 모든 혐의에 대해 자백한 상황이다. 그에게는 지난 2일 보석금 1만 달러(한화 약 1200만원)가 청구된 상황이다. 그는 언론과의 접촉을 거부하고 있다.

한편 샴발라 센터가 성범죄 혐의로 도마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 샴발라의 前 불교교사인 윌리엄 로이드 카렐리스(71)가 아동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카렐리스는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은 오는 8월 열린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샴발라 센터의 총 수장인 사경 미팜 린포체가 주취 상태에서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제기됐다. 평소 마음에 드는 신도를 점찍어 두고, 강제로 유인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며 국제 불교 사회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미팜 린포체의 그 사건을 단초로 지난해 말에는 전(全) 소속 승려들에 대한 조사가 실시됐다. 샴발라 센터는 티베트 불교에 근원을 둔 국제 불교 네트워크다. 전 세계 50여 국가에 약 200개 명상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日, 30년간 잠든 벽화 재조명

1987년 일본 방문한 네팔인 화가가 남겨

약 30년간 산속 절벽에 잠들어 있던 관세음보살이 깨어났다. 일본의 히로시마현 북부, 키타히로시마쵸(北広島町)의 최고봉 류즈야마(龍頭山, 928m)에 네팔인 화가가 남긴 관세음보살 벽화가 재발견된 것이다. 이 소식을 '야후 재팬 뉴스' 'TV 신히로시마' 등의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류즈야마의 명소인 코마가타키 폭포 옆 절벽에 그려진 관세음보살은 1987년, 전시회를 위해 일본을 방문했던 네팔인 화가 라마난다 죠쉬 씨가 남긴 것이다. 라마난다 씨는 당시 네팔을 대표하는 화가로 현대 네팔회화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다. 생전 여러 차례 일본을 방문했던 라마난다는 자신의 작품에 일본 회화의 디자인을 혼합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30년간 이끼 밑에서 잠자고 있던 관세음보살도. 사진출처=TV신히로시마 방영화면

그가 어떤 이유로 류즈야마에 벽화를 남겼는지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을 아는 이들도 많지 않다. 또 벽화를 남긴 이듬해 갑자기 사망해 그대로 벽화에 대한 이야기는 잊혔다.

지난해 초, 라마난다 씨의 딸인 라마난다 닐라 씨가 일본을 방문해 "일본에 남은 부친의 작품들을 보고 싶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벽화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났다. 류즈야마 전문 가이드인 타케우치 마사하루 씨는 "닐라 씨가 부친의 작품을 찾는다는 이야길 듣고 혹시나 해서 기억을 더듬었다"고 말했다.

벽화는 발견당시 이끼에 덮여 있었으나 채색은 대부분 온전히 남아 있었다. 타케우치 씨는 "30여 년 전에 그린 그림이고, 워낙 습한 곳이라 더는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발견 당시의 생각을 전했다.

작품은 손을 소매 속에 감추고 두 손을 모은 관세음보살로, 연화좌 위에 서 있는 모습이다. 타케우치 씨는 "코마가타키 폭포는 예로부터 관음성지로 지역에 알려져 있다. 관세음보살을 이곳에 조성한 것도 그런 연계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림을 기억하고 있던 또 다른 지역주민 타케무라 미야비노 씨는 "라마난다 화가가 '부처님을 그리겠다'고 말하곤 밑그림도 없이 3일 만에 그렸다. 일필지휘로 붓이 가는 모습에 감탄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라마난다의 딸 닐라 씨는 관세음보살도를 보고서 "아버지가 왜 이곳에 그림을 남겼는지 알 것 같다. 그러나 자비의 본존인 관세음보살을 그린 것은, 원폭이 투하됐던 히로시마에 평화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일본 最古 금동 풍탁 출토 '눈길'

나라현 아스카데라서, "창건당시의 구조 실마리"

일본 최초의 불교사원인 나라현 아스카데라(飛鳥寺)의 구 부지에서, 일본 최고(最古)로 추정되는 금동 풍탁(風鐸) 파편이 발굴됐다. 6월 28일 일본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들은 "제작법 등에서 창건 당시의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일본 나라국립박물관의 나라문화재연구소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스카데라의 구 부지에서 금동 풍탁 파편을 발굴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연구소 측은 "발굴된 유물은 풍탁의 머리 부분으로 금동제이며, 제작기법 등으로 보았을 때 창건당시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창건 당시의 것이라면 이 풍탁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풍탁이며, 당시 사찰 조영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굴된 풍탁파편은 외부에 거는 고리와 내부 종을 치는 공이를 다는 고리가 붙어 있는 모양으로 8.4㎝ 길이의 작은 조각이다. 외부에 드러나는 부분에 도금이 남아있어 본래는 금동 풍탁인 것으로 보이며, 남은 부분에서 추정하기로 약 20㎝ 가량의 소형 풍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소 측은 "풍탁이 출토된 지층은 에도시대의 지층이었으나, 제조법과 형태에서 고대의 것으로 판명했다. 아스카데라가 여러 차례 소실과 복원을 거듭하면서 지층이 올라온 것으로 본다"고 출토환경을 상세히 전했다.

고대 사찰건축의 권위자인 오와키 키요시 긴키대학 교수는 "아스카데라는 백제사찰을 본 따 지어졌다. 백제의 사찰에도 풍탁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기에, 아스카데라에도 사용됐을 것으로 본다. (크기나 형태에서) 탑의 상륜부를 장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금동 풍탁 파편.
사진출처=마이니치신문

다른 전문가들도 "아스카데라의 구조는 여러 차례 발굴을 통해 파악됐으나 탑의 구조에 대해선 아직 큰 실마리가 없었다"며 이번 발굴이 그동안 비밀에 쌓여있던 고대 사찰건축의 구조를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아스카데라는 592년 백제에서 장인들을 초청해 건립한 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사찰로, 당시 기록에는 금속공예 장인도 있었다고 전한다. 특히 596년에는 목탑을 완공해 1탑 3금당의 대가람으로 세워졌다. 이후 중세에 낙뢰로 탑과 금당이 소실, 현재는 2개의 법당과 요사채만을 가진 소규모 사찰로 재건됐다.

박영빈 객원기자

"女승계자 매력적이어야" 발언 사과

달라이라마 "상처 될 수 있는 발언 후회"

"여성 승계자가 나온다면 더 매력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던 티베트 불교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84)가 사과했다.

BBC방송 등 외신들의 7월 3일 보도에 따르면, 달라이 라마는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성명을 내고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상처받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달라이 라마는 이어 "때때로 즐거움을 위한 즉흥적 발언이 문화의 맥락에 따라 유머를 잃는다"며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발언에 대해 후회한다"고 참회했다. 이어 "평생 여성의 사물화를 반대하고 양성평등을 지지해 왔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7일 달라이 라마는 영국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2015년, 여성 달라이라마가 나온다면 그는 매력적이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지 않나"라고 질문하자 "그렇게 말했었다"는 답변을 되풀이하면서 웃었다. 이에 대해 많은 여성들이 "여성 신체를 상품화하는 발언"이라며 크게 비판했다.


BBC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달라이라마가 나온다면 더 매력적이어야 한다"고 발언해 비판을 받은 달라이라마.
사진출처=달라이라마 공식홈페이지

박정현 객원기자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民衆醫術 민중의술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나도 몰랐던 어린 시절 감정들



김성수의
글쓰기 명상과 자기상담

⑬ 유년기와 사춘기 돌아보기



내 기억에 존재 않는 유년기
아득한 내면의 소리 적어보자
잊고 지내던 사춘기 기억들은
하나의 살풀이로 써내려가자

내 안의 아기 드러내기

조물주는 왜, 유아기의 기억을 어둠에 파묻었을까. 젖먹이 시절의 기억은 좀체 떠오르지 않는다. 파편 같은 기억이라도 반딧불처럼 한 번씩 튕겨 오르면 좋으련만, 빛 없는 심해 그 자체다. 문제는 기억이 없다하여 그 시절이 없었던 건 아니라는 점이다. 당사자만 빼놓고 주변 인물들은 나의 그 시절을 턱없이 잘 기억한다. 단 몇 분 만에 전생에도 도달하는 최면 작업에 비하면 생애 4ᄉᆞ5세 시절 정도야 어제 일처럼 또렷해야 하지 않겠는가.

프로이드 심리학을 데려오지 않더라도 젖먹이 시절 삶의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은 상식이 됐다. 그 상식이 우리나라 같은 아동 학대가 많은 나라에서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남성의 출산 보조휴가 등을 확보해주는 동력으로 작용한 건 아닐까. 모든 아동학이 유년기 최하 14개월부터 2년여는 엄마의 손길 안에서 자라야 하고, 모유 수유가 중요하다는 등의 이론을 쏟아낸다. 그래서? 나는 이 수치들을 인정하면서도, 불현듯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진다. 그 젖먹이들은 모두 행복할까. 소비자 권리의 기준은 소비자의 눈높이고, 희생자 권리의 기준은 희생자의 눈높이라면, 유아 권리의 눈높이는 젖먹이여야 한다. 그런데 젖먹이의 주장은 누가 대신하고 있는가.

당신의 생애 초기는 자아의 실종시대다. 자기 주도성이 없었으므로, 권리의 암흑기이기도 하다. 그 시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헤칠 재간이 없으므로 부모에게 증거할 수도 없다. 지독한 사랑과 희생정신으로 중무장한 부모가 사실은 혹독한 독재와 내 삶의 능멸자였음을, 우울증이나 자살충동, 알콜의존 따위를 통해 입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결코 그들을 탓할 수 없다. 그저 꽤나 성장한 어느 날, 허공에 주먹질 하듯 질러댈 때는 한두 번 있었다.

"엄마, 아빠가 자기 식대로 사랑하는 통에 내가 얼마나 상처 입었는지 알아?"

"어머, 애 말하는 것 좀 봐. 아빠하고 사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너만 빨고 핥으면서 키웠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부모의 역공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 무엇보다 당신의 유아기 기억은 일괄해서 부모 독과점 품목이다. 가물가물한 기억의 소실점에 뭔가 있긴 한데, 어느 금도끼가 자녀에 대한 부모의 확신을 빠개낼 수 있을까. 부모가 제멋대로 자행했던 왜곡된 자녀 사랑을 스스로 자각하여 고백하기 전에는 해결책이 없다. 그래, 단념하자. 기억은 편집된 과거라고 하지 않던가. 이미 당신의 부모는 자식에 대한 기억의 사진을 자기 식대로 오려붙여 액자에 잘 표구해 놓은 상태다. 게다가 세상의 모든 부모가 잘못된 사랑 방식만 밟았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니 단념하기! 이미 늦은 일이므로.

자, 그럼에도 당신은 치매 환자가 제 정신 찾은 듯, 불쑥불쑥 억울하다. 나름 잘 살았다고 믿어왔던 내 삶이, 튼실했던 사랑니 흔들리듯 흔들리다니. 뭐지? 건널목 건너다 길 복판에 선 사람처럼,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요즘 걸핏하면 버럭버럭 화내는 사람이 되고 말았더라. 때도 없이 우울해지고, 때도 없이 눈물 짓는 사람이 되었더라. 내가 나한테 놀라거나 후회하는 경우가 잦아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건 뭘까.

이럴 때가 좋은 날이다. 나의 내면 아기를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당신의 내면은 이미 철부지처럼 울고 있을지도 모른다. 두려움에 떨면서 눈알을 굴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시간을 두고 깊이 귀 기울여보면 아득한 내면의 소리가 들려온다. 옹알거리는 소리. 응애응애 고양이처럼 우는 소리, 울음을 참아 누르며 끅끅대는 소리. 젖먹이 시절 그때, 다하지 못했던 내면의 음파들이 서서히 선명해지리라. '내 안의 아기 드러내기'는 바로 그 시절, 그때 쏟아내지 못한 신호들을 드러내는 작업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만나야 한다. 당신의 생애, 근본 상처가 도사리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 나의 내면 아이가 두려워하고, 칭얼대고, 투정부리고, 눈치 보며 웅얼거리고, 슬퍼하는 소리를 최대한 아이의 감정이나 말로써 표현하기
- 성인인 당신이 좌절감, 우울감, 슬픔, 두려움 등 부정적 감정이 들 때, 어린아이처럼 울고 싶은 그 감정을 따라가 볼 것. 그 감정 안에 웅크리고 있는 아이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적기
- 지금 떠오르는 아기의 모든 말들을 그냥 적어보기. 갓 말을 배운 아이처럼 혀 짧고, 웅얼거리고, 불안정한 소리, 그대로 받아적기
- 부모, 형제에 대한 원망이나 항의, 분노, 좌절, 서러움, 외로움 등의 시절을 떠올릴 것. 그 때 감정을 어린아이의 언어로 표현해볼 것.

소설가 김형경은 심리 수필집 〈천개의 공감〉에서 "생애 초기 체험한 사랑에 독성이 강하면 성인이 된 이후의 사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어느 사랑인들 독이 묻어 있지 않으랴. 생애 초기의 언어를 일단 드러내놓는 것이야말로 독성을 털어내는 탁월한 방법이다. 내 안에 그런 어린애가 있을 리 없다고 우겨대지 좀 마라. 당신이 젖먹이 어린애가 되기로 마음먹고 글발을 날리는 순간, 내면에 갇혀 있던 숱한 어린애가 튀어나올 것이다.

엄마 싫어, 나 밥 먹기 싫어! / 엄마 어디가, 나 혼자 또 지내라고? / 아빠, 엄마 좀 그만 때려. 숨막혀 죽겠어 / 아빠, 나 쫓아버린단 말 좀 하지마 / 오빠, 나 무서워

나의 '중2 언어' 받아적기

기억하는가. 2013년은 북한이 남한을 침범하지 못하는 이유가 남한의 '중2'라는 괴물집단이 있어서 '라는 우스갯말이 세상에 퍼진 해다. 그들은 길에다 침을 뱉는다거나 주먹으로 벽 치기, 모방 싸움으로 친구 기죽이기, 담배 피우기 따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는 무소불위, 질풍노도의 어린 청소년들이다. 생리적으로 왕성하고, 코 밑에 털이 거뭇거리고, 목소리가 변하고, 이유 없이 화내고, 느닷없이 소리 지르거나 남모르는 동성애를 하는 때이기도 하다.

생리적, 정신적 격동은 생애주기의 측면에서 보면 자연스럽다. 그런 곡절을 거쳐 이윽고 다른 시기로 넘어가리라. '중2'로 상징되는 사춘기는 일종의 폭발물이지만, 당신의 그 시절을 기억해보라. 알고 보면, 남들 생각대로 마음껏 폭발했던 나날이었던가. 아니면, 다른 어느 시기보다 더 심하게 구겨 넣고, 참고, 견뎠던 시기였던가.

누구에게나 진실은 있게 마련이다. 진실은 당사자의 마음에 있지, 당신을 쳐다보는 사람의 어림짐작 속에 있지 않다. 당신은 정작, 중2시절에 좌절하고 눈치 보며 살아야 했던 날들이 어느 시기보다 많았을지 모른다. 내면의 격동이 강할수록 '중2'를 둘러싼 조건은 냉정하고 엄정하여, 좌우사방 눈치 보며 살아야 했을 것이다. 이것이 진실이다. 엄마와 '중2' 딸은 서로 말을 나누되 무슨 말인지 몰라서 짜증과 우울의 감정만 나누고, 아빠와 아들의 대화는 차라리 서부 활극의 권총 대결이 더 깔끔했을지 모른다.

돌이켜 보면, 나의 그 시절도 남 못지않게 쓸쓸하고 핍진했다. 무엇보다 내 편이 없다는 게 절망스러웠다. 내 편 같은 사람의 냄새라도 맡아보고 싶어서 들개처럼 쏘다녔던 것 같다. 확실한 믿음은 없었지만, 그래도 내 편이려니 했던 엄마나 아빠조차 알고 보니 외계인? 내 말 한마디도 못 알아 듣는 건 고사하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해독 불가였다. 가벼운 한두 마디 대거리에 온갖 충고와 비교, 염려 폭탄에 피폭돼 즉사할 지경이다. 홧김에 의자라도 걷어차면, 그 가벼운 발길질 한 번에 온 집안이 폭파당한 듯, 월하의 공동묘지는 저리 가라다.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 없는데, 친구들은 참 천연덕스럽게 행복한 듯해서 나만 이러는구나 싶으니, 여전히 뭐가 뭔지 알 수 없다. 내 안에서 수시로 맹독성 감정이나 통제 불가의 몸짓이 치밀어 오르니, 뾰족한 해법도 보이지 않았다. 우선은 급한 대로 어두운 허공을 향해 침이나 욕설 따위를 찍찍 뱉어댈 수밖에.

'내 안의 중2 언어 받아적기'는 뒤늦은 '살풀이'나 '해원굿' 정도로 생각해도 무방하다. 당신의 영혼은 어쩌면 아직 소화되지 않은 '중2' 정서에 짓눌려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라고? 그럴 일 없다고 딱 잡아떼는 사람은, 그 자체로 위험하다. 당신 곁에 바짝 붙어 사는 인연에게 '왜 내가 위험한지' 물어보면 누구보다 신속, 정확, 적나라하게 알게 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아내들이 자기네끼리 모이면, 자신의 남편을 '우리집 큰아들'이라고 명명하는지 아는가. 그때는 공부하느라고 영혼의 성장을 챙길 겨를 없었노라는 '사과성 변명'으로 수습하는 게 그나마 남은 기회다. 누가 그랬던가. 4차 산업 시대에 끝까지 살아남을 경쟁력은 자아 성찰력이라고.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인정할 줄 아는 능력이 곧 경쟁력이다.

- '중2' 시절, 자신을 둘러싼 여러 조건 때문에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했던 말, 행위 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적어보기
- 그 시절 나보다 체구가 크다는 이유로 두려움, 모멸감, 좌절감, 수치심을 주었던 친구나 친지, 어른을 향해 하고 싶었던 말, 적어보기. 그가 내 앞에 앉아 있다고 상상하고 적는다.
- '중2' 시절을 노려보듯 떠올려본다. 그 때 가장 하고 싶었던 일, 가고 싶었던 여행지, 떠나고 싶었던 시기, 함께 떠나고 싶었던 친구, 하고 싶었던 게임, 실컷 먹고 싶었던 음식 따위를 적어본다.

위 안내를 따라 적어가다보면 느닷없는 수치심이나 분노가 벼락처럼 일어나기도 하리라. 당신이 지금 그런 역동적 감정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기억과 당신이 일체화됐음을 의미한다. 당신은 어쩌면 '중2'로 순간 이동했을 수도 있다. 당신이라는 존재가 그 감정과 화학적 합집합이 된 것이다. 이런 현상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일까. 아니다. 당신은 그런 감정에 퐁당 빠져 들어간 상태임을 알아차려야 한다. '내가 지금 수치심에 휩싸여 있군' '내 몸이 좀 뜨거워져 있군' 하고 알아차릴 일이다. 그런 순간 당신은 '중2'에서 벗어나 그 소년을 바라보게 된다. 객관적으로.

'내 안의 중2 언어 받아적기'는 사례글을 적기가 쉽지 않다. 당신의 '중2' 시절, 자신의 혀에 올리지 못한 미해결 언어들을 적나라하게 적어간다고 생각해보라. 숱한 시간이 흘렀지만, 타인에게 차마 발설할 수 있는 말이겠는가. 험악하고, 음란하고, 저속하고, 비열하고, 유치하고, 썰렁하고, 가련한 낱말들. 그러므로 사례글은 생략하기로 하자. 당신은 당신 노트에 나는 내 노트에 다하지 못한 사춘기 시절의 온갖 언어를 내뱉는 것으로 마무리하자. 일단 문자화한 글은 눈으로 들여다봐도 그 시절의 기억이 홀로그램처럼 일이서기도 한다. 문자의 힘이란 그런 것 같다.

〈마음과학연구소 대표〉

공 고

• 사찰명 : 홍법사
• 주 지 : 지명

상기 사찰과 본인은 2019년 6월 12일자
현대불교신문에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대로 탈종공고가 게재되었습니다.
상기 본인은 탈종 공고에 동의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탈종 공고 게재가
무효임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2019년 6월 28일

대한불교조동종 | 홍법사 주지 **지 명**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02-2004-8200

1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2 불교의 **생활화** 생활 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 피는 가르침

3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 을 검색하세요!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 / 불자정보(사찰, 포교당 양도 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회진언 타올
40×80cm / 160g / 30수 / **5,000원**
세수면진언 타올, 절방석을 덮는 참회진언 大타올도 있습니다.
제일자수타올공업 t. 043)644-1102



대행 스님

인간이 물리가 터지고 지혜가 터지면 그대로 도(道)다

큰스님 일방적인 설법보다는 우리 서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토론하는 입장으로 해 보시는 게 어때요?

질문자1(남) 제가 한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원래 낚시꾼이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낚시를 갔습니다. 향어 낚시인데 좀 큰 거였거든요. 두 마리를 잡았는데 도로 놔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놔준 것이 잘한 것인지, 놔준 게 꼭 잘했다고 볼 수만은 없더란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큰스님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때의 용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주어지는 대로 자기 그 지혜로운 마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놔주려면 차라리 낚시질을 할 때 곧은 낚시를 넣어요. 왜 꼬부라진 걸 넣어 가지고선 그렇게 애를 써요? 왜 자기가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느냐 이거야. 사람이 명상을 하려면 곧은 낚시를 넣고 명상을 하지.

또 한 가지는, 그 고기가 만약에 몸을 벗고 갈 때가 되지 못했는데 우리가 잡아다가 몸을 죽였을 때, 바로 자기가 몸 벗을 때까지 그 어느 기간이 있다면 그 원성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몰라도 때에 따라서 주어졌을 때, 스스로서 이것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될 때, 이랬을 때는 때가 됐든지 안 됐든지 그대로 그것은 둘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를 안 하는 사람 같으면 별문젠데 자기 심성을 쥐고 하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살은 내 살이 되고 그 마음은 내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요리가 되는 거죠. 자기가 된 겁니다. 금방 그 자리에서 자기를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일부러 잡아서 일부러 놔준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건 어폐가 있죠. 그래서 일부러 잡은 게 아닌, 어쩔 수 없이 부모를 보양하기 위해서 잉어를 잡았다거나 고았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또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약으로 쓴다거나 이럴 때 죽였다면 이런 때는 그냥 제창 자기로 둘이 아니게끔 요리가 됩니다.

질문자2(남) 지난번 밤 11시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면 불을 켜게 됩니다. 불을 켜자마자 천장을 보니까 바퀴벌레가 있었습니다. 바퀴벌레는 걸음도 빠르고 그래서 보는 순간 쫓아가서 안락사를 시켜 버렸습니다. 그 경우 살린 겁니까, 죽인 겁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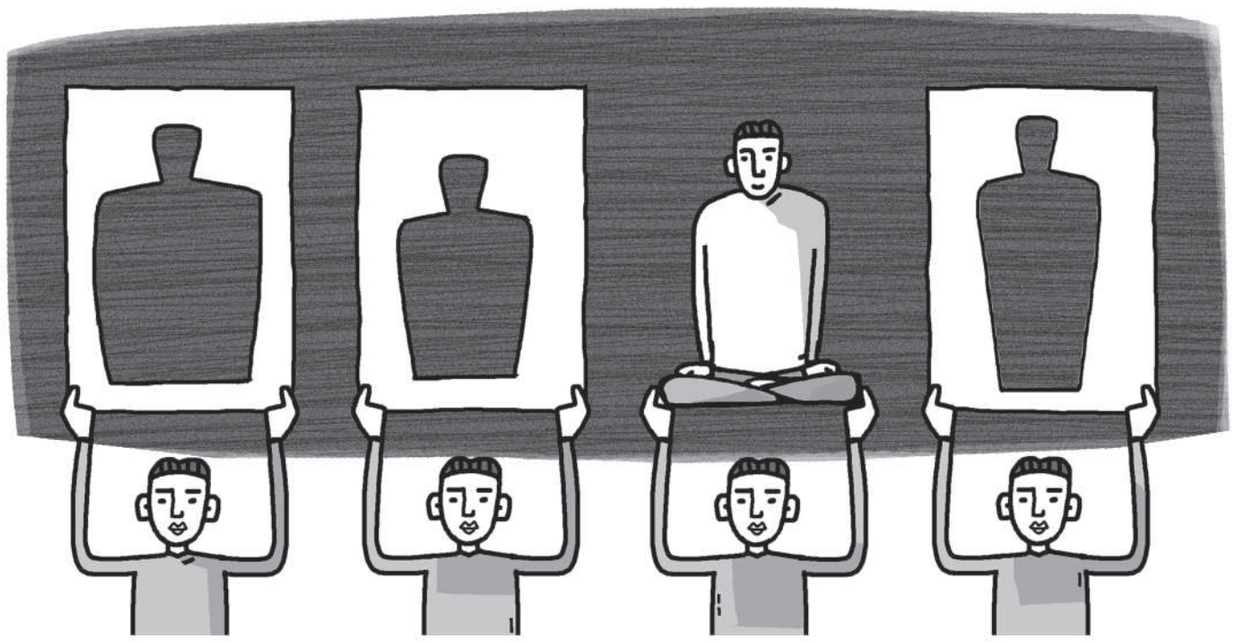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큰스님 살린 겁니다. 그 의문에 꼬리가 없다면 우리가 공부할 수 없으니까, "그건 살렸습니다." 할 때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 또 질문하실 분 있으면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할 것도 없고 안 할 것도 없는 자리에서 항상 스스로 생각이 나고 스스로 행하거든요. 이것이 그냥 진리이고 그냥 여여함인데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밀접한 사이가 있다는 그 점…. 우리가 지금 윗눈썹에서 밑의 눈썹을 내려다보지 못하는 격이다 이런 소립니다. 그러니 각본대로 마음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항상 고정됨이 없다고 그러죠. 각본대로 주어져 있는 것이 마음이 아니고 각본에서 벗어난 마음이 되기 때문에 이 마음도 쓰고 이 마음도 쓸 수 있는, 체가 없는 마음이다 이겁니다. 만 가지 마음을 낼 수도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미국에 갔다 왔으면, 미국의 상점에 들렀다면 마음에 지금 미국의 상점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갔다 오지 않은 데는 캄캄하죠.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 마음이 '해탈이다, 해탈을 못했다' 하는 기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갔다 온 데는 여기 앉아서도 볼 수 있고 그런데, 도대체 갔다 오지 않은 데는 캄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귀를 뜨게 하기 위해서, 이 마음의 타심통을 알게 하기 위하고 또 숙명통을 알게 하기 위함이요, 또 전체 가고 오는 신족통을 알게 하기 위함이 되는 거죠. 이거 다섯 가지를 바로 내 누진통, 아니 지금 현대 말로 책정기로서 우리가 책정을 할 수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다섯 개가 다섯 개대로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눈 간 데 귀가 가고 귀 간 데 눈이 가듯 그건 이름이 다섯 개지 다 한꺼번에 동시에 구르고 있어요, 수레바퀴처럼.

그러니 멋진 이 생활을 우리 멋지게 살아야지 멋지지 못하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오늘 저 위에 왔던 OO 아빠라고 있습니다. "내 땅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땅이 전체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삼분의 일 정도는 이렇게 해서 집터로 나가는 터고 공장 지대로 쓰지 못하는 터니까 이쪽으로만 행하고…. 친밀하니까 이걸 일러 준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그리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사람이 앉아서 그런 걸 보는 것도,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똑바로 그려 주는 것도 이거 도가 아니다. 이 다섯 가지를 다 내가 한꺼번에 굴릴 수 있는 책정기, 이게 바로 도라는 거다, 이름해서 그것도." 그러니 우리가 음식을 갖다 놨을 때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이게 물로 생기고 뭘로 생기고 다 알아도 이걸 집어 먹고 줄 줄 모르면 이건 아무 소용 없는 거야, 다 알아도. 그와 똑같은 겁니다. 도라는 것은 한생각에 의해서, 밀접한 문제가 있는 거는 한생각에 의해서 자기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있는 거고…. 참, 이거를 얘기를 해도 버선목이라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참 큰 문젭니다.

어떤 사람은 각본대로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스스로서 각본대로 주어져 있다는 걸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절대로 못한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이건 이렇게밖엔 될 수 없다' 하는 게 스스로서 주어져요, 자기한테. 이건 색(色)을 보고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 체 없는 그 마음에, 한 찰나에 부동자세한 그 에너지의 뜻은, 광력이나 전력이나 자력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이 스스로 나와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큰 그릇을 들이대면 큰 그릇에 담기고 작은 그릇을 들이대면 작은 그릇에 담긴다 이 소립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에너지는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항상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큰 그릇을 대면 큰 그릇에 담기고 작은 그릇을 대면, 용도에 따라서 대면 작은 그릇에 담긴다. 담기는 이 자체를 무엇이라고 비유를 할까? 내 한생각에 달려 있다 이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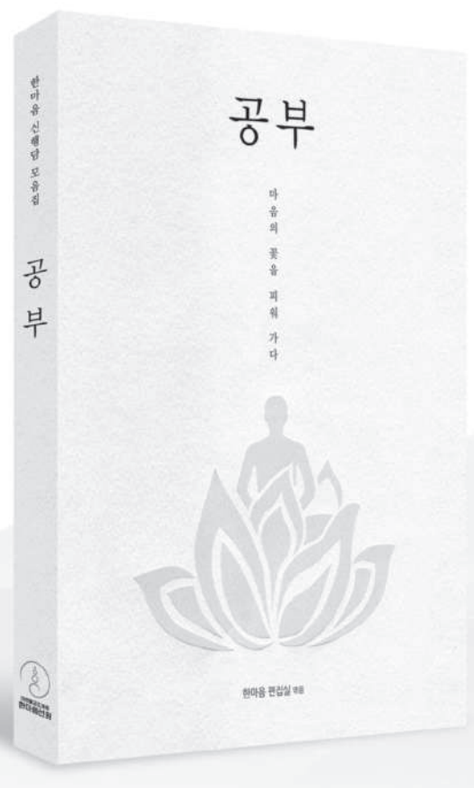
그러면 여러분의 한생각에 달려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색을 보고 취하고 물질세계로 용도에 따라서 수없이 보고, 내고 들이고 내고 들이고 살면서 이게 습이 됐단 말입니다. 미지의 세계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회전은 한 번도 해 보지 못했거든. 생각조차도 해 보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이 보이는 데 지금 우리 법도가 이렇고, 몇 항 몇 조에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아주 각본대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건 각본대로 아니면 안 돼. 팔자 운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팔자 운명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팔자 운명 속에서 어떡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바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 드려야만이 이것이 이렇게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수박은 수박씨가 자기를 자기 안에다 넣어 놓고도 바깥에서 수박씨를 찾는 겁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오늘 어떤 청년이 와서요, "내가 길을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러거든요. "야, 이놈아! 병신 같은 놈 같으니. 이놈아, 둘이 아니라는 걸 네가 너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너한테 지금 침을 놓는 건데 어떻게 남이 너를 주시한다고 생각을 하느냐? 둘이 아닌 법과 시공이 초월됐다는 그 자체를 너한테 튕겨 주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 벽을 치면 봇장이 울려야지, 이놈아, 왜 너는 너한테 맨날 속아!" 이랬습니다. 그렇듯이 이 마음 자체가 너무도 광대하면서도 묘하고, 묘하면서도 신비하고, 신비하면서도 위대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끌고 가느냐?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그러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사람이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런데 아주 가난한 우리 신도가, 소금 팔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주하라니까 소금을 한 공기씩, 그것도 많이도 시주를 못 했습니다, 한 공기씩밖에. 그것도 팔다 남아야 한 공기를 했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수질 해서 떠 놓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왜냐하

☞ A18면으로 계속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운주사 02-3672-7181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

이 생활이 바로 과학이요 의학이요 진리입니다

☞ A17면에서 계속

면 너무 가난하고 남편은 머리가 이상해서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방에다 가둬 놓고, 애들은 먹여 살려야 하겠으니까 소금을 팔러 다니지 않으면 안 되리만큼 가난했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허둥지둥 허둥지둥, 소금을 팔아 죽거리라도 마련해야 들어가겠으니까 허둥지둥 새벽같이 나가서 팔고선, 그래도 생각이 있으니까 저녁에 오는 겁니다. 요만큼 남겨 가지고 말입니다.

그걸 볼 때 말입니다, 너무나 순진하단 말입니다. 가식이 없어. '요거를 먼저 떠서 내가 해야 부처님의 덕을 보지.' 하는 가식도 없더란 얘기입니다. 요거 너무나 순진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이거를 먼저 떠 놓아야만이 불공이 된다는 생각은 좀 지워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이면 됩니다, 진실한 마음. "스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마는 스님이 정말이지 이 도리를 아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죽겠는 걸 아신다면 저를 살려 주십시오." 하고 그 소금 남은 거를 탁탁 털어 놓고, 사심 없이 털어 놓고 돌아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갈 때 그것은 누가 봐도 손색없이, 걸릴 게 없이 주어도 손색이 나지 않아요. 그랬는데 그 사람은 남편을 고쳐서 지금 일을 하게 만들어 놓고 집도 사고 또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회사에서 김밥을 말아 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소금 장수 버리고선 김밥을 말아 들이게 돼서 돈을 벌어서 지금은 괜찮게 삽니다.

참, 여러분이 오셔도요, 다 달라요. 그분은 습을 그렇게 가졌기 때문에 다니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여기 와서 뭐, 공부할 새도 없고 그랬는데 이젠 자궁암이 걸렸다나요? 그렇다고 또 삐쭉 오더니 말입니다, "스님, 스님! 저는요, 하도 이 엉치가 끊어지는 것 같고 이젠 벌 수가 없어서요, 병원에 가 보니까 자궁암이래요. 그런데 스님, 어떡하면 좋죠? 제가 살아야 여섯 식구를 다 살릴 텐데, 자식이 오밀조밀한 게 다섯이고 이러니 이걸 어떡하면 좋죠?" 이러는 데는, 공부하기 이전에 말입니다, 그거는 공부하라고 생각을 한다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그럼 어떡하지? 알았어. 가 봐."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있다가 오면 오는 대로 히히 웃으면서 "스님, 나 다 나았어요." "어떻게 해서 나았어?" "뭘 어떻게 해서 나아요? '알았다' 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하거든요. 그거는 자기가 생각하기를 '스님이 알았다고만 하면 낫는다' 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는 그 생각에 달렸다 이 소립니다. 너무도 급박한 사람이라 아예, 그걸 그냥 콱…. 돈도 없겠다 뭐, 좀 좋습니까? 놓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맡겨 버리는 겁니다. '너, 죽이든지 살리든지 네 멋대로 해라.' 하는 식이죠. 그리고 진실히 믿었기 때문이죠.

지금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래서 누구나가 다 그런 것이 도를 배우는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자리 하나가 그렇게 천만 가지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자기 끌고 가는 마음을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해야 좋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내 팔자가 금방 가서 차에 치여 죽을 팔자라고 해도, "팔자를 가서 보니까 스님, 앞으로 닷새만 있으면 병이 들지 않으면 꼭 죽겠답니다." 이래도 "허무한 소리 하지도 마라, 얘. 네 생각하기에 달렸어. 이놈아! 눈물, 피 이런 걸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아예 그런 것 흘리지 말고 살아. 편리하게 살아라. 종교는 편리한 거다. 인간이 고등 동물로 태어나서 90%, 100% 부처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런 거는, 인간이 그렇게 물리가 터지고 지혜가 터지면 그대로 도다. 그러니 편리하게 살아라." 이럽니다.

그럼 팔자 운명이나 이런 거 보는 사람 다 굶어 죽게 생겼죠. 그런 거 저런 거 우리가 따진다면 스스로서 이 마음이 말입니다, '이거는 옳다 그르다' 하고 마음에 생기는 거를 가만히 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옳다 그르다' 하는 게 스스로 생기나.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주어진다는 걸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구태여 그렇게 나쁜 데로 끌고 가려고 해서가 아니라 규정을 지어 놓기 때문입니다. 고정관념에, 고정되게 그냥 자기의 방침대로, 자기가 보고 듣고 사는 대로 그냥, 본 대로 그냥, 습대로 그냥 내놓는 거죠. 그런데 물리가 글쎄, 백지장 하나 사이도 안 되는 그 물리가 왜들 안 터집니까. 왜?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옳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쉬게 됐는데 신이 한 짝이 떨어졌더랍니다. 그래 신을 툭툭 털면서 이거를 맞추려고 이러니까 어떤 노인이 지나가다 하는 소리가 "너는 그 신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신을 버려 봐라. 신으려고 하지 말고 버려 봐라. 네 가죽신도 있는데 왜 버리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슨 생각이 나느냐 하면 '신을 놓치면 내 이 발바닥이 아픈데 어떻게 가겠느냐.'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자마자, 자기가 얘기도 안 했는데 그분이 있다 하는 소리가 "그래, 발바닥이 아파? 발바닥이 아프고 그래서 그 신을 벗지 못하겠다고? 이놈아, 벗어 봐! 신이 저절로 생길 테니까." 이러거든요. 그게 이치에 닿지도 않거든, 도대체 그 사람으로서는.

그런데 거리가 얼마 멀지 않은 데에 어느 노인네가 신을, 미투리를 잔뜩 만들어 놓고선, 파는 게 아니라 길 가고 오는 사람한테 줘. 그래서 밥도 얻어먹고 신도 얻어 갖고 노비도 얻어 갖고 아, 이러고 가게 되니까 그때서야 물리가 조금 터져 가지고선 '야, 나도 이 길로 산으로 올라가서 공부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참, 산으로 올라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학 대사가 애당초에 처음에 길을 나서서 갈 때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어느 스님한테 들었는데요, 그러니 그러한 마음 하나 돌리기가…, 우리 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내가 지금 금방 죽을 건데요, 참, 이걸 뭐라고…. 난 내 멋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내가 병이 들어서 인제는 죽게 됐다. 의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죽게 됐다. 이게 나타나 있는 거니까 이걸로써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러는 겁니다. 그랬는데 자기가 생각하기를 말입니다, '자기가 끌고 다니려면 자기가 고쳐서 끌고 다니든지 자기가 그냥 부숴 버리든지 맘대로 해라.' 하고선 맡겨 두니까 그것이 다 해결이 났고, 오줌으로 뭘로 그 나쁜 게 다 나가고 다 해결이 났고, 또 한 사람은 '에이유, 그래도 병원으로 가야지.' 이러고 뛰어간 사람은 죽었답니다.

"그것이 어디 나변에 있느냐?" 하겠지만 엊그저께 일도 그렇습니다. 야, 뇌염 환자로서 정말 급한, 뇌염이 아주 급하게 돼 가지고선 금방 비틀어지고 눈이 까지고 그러는데 누가 이리로 데리고 오겠습니까? 병원으로 가지. 여기 아마 여러분이 다 계셔도 병원으로 가지 이리로 안 올 겁니다. 병원으로 일단 가 가지고 연락은 할지언정 이리로 안 데려올 겁니다. 그건 뭐, 여러분이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말입니다, 다 넘어가고 다 죽게 된 걸 끌고 왔어요. 그냥 이렇게 안고, 어린애인데요, 그 큰 어린애를 이렇게 안고 싸 가지고 눈이 힐떡 넘어가고 이렇게 피가 흐르고 그러는 걸 그냥 들고 온 거예요. 그거 있을 수가 없거든요. 내가 생각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어이가 없어서요, "아니, 병원으로 데려가지 왜 이리로 데려왔어?" 하니까, 이건 그냥 우리 인간이 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병원에 가도 이거는 죽든지 병신이 되든지 두 가지 중의 하나다 이거야. 그런데 이렇게 좋은 약방을 두고 내가 왜 그리로 가느냐 이거야. 이렇게 좋은 약방을 두고. 아, 나 그 노인네 참! 그, 여자분인데요, 그래서 "응, 알았어. 병원에 안 가 봤어?" 그러니까 안 가 봤답니다. 그냥 이리로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라고, 알았다고 그랬더니 나가면서 그것도 딸의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저 어떡하면 이게 나을까 했는데, 그 도리를 자식은 모르니까 바로 가자마자 자식이 병원으로 또 데리고 갔는데, 낫게 해 달라고 하면서 안고 갔던 모양이죠. 병원에 가는 동안에 나아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니까 아무 일도 없다고 그러더랍니다. 이러니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그 마음에 달렸다 그러는 겁니다. 이 마음이, 자기를 끌고 가는 이 마음, 한 점도 없는 마음, 내놓으라면 내놓을 것도 없는 그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묘법이냐, 묘하냐 이겁니다, 응?

그것뿐이겠습니까? 수없이 그런 일들이 오는데…. 그럼 내 이 못생긴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얼마나 심부름꾼이 됐느냐 하고 한번 볼 때 여기는 참, 그렇게 안팎으로 비밀을 지켜 주는 데도 없습니다. 아들 딸들이라면 전부 비밀을 지켜서 장가보내고 시집보내는 데 손색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들을 전부 일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하나,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이렇게 볼 때 100%라면 70%는 그래도 웃을 수 있고 기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그럼 왜 30%는 없는가? 30%는 마음이 닿지 않아서 못할 뿐 아니라 너무 기울어서 못하고 이러는 수가 많습니다. 그럼 색을 보고 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활이 과학인 줄 모르고, 의학인 줄 모르고, 모든 이 생활이 진리인 줄 모르고 행하는 분들에 의해서는 기복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팡이죠. 자기가 그렇게 위대하고 정말 신비하고 그렇게 당당하다는 걸, 도도하다는 걸 모르거든요, 모두가.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도 자기를 따르랬지 믿으라고 그런 거는 아닌데 왜 그렇게 말이 나왔겠느냐. '나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 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이거야. 그러면 자기 하나만 말했느냐. 아닙니다. '모두 각자' 소리를 거기다 넣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생각에 '나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 고 가르쳤는데, "바담 풍" 하니까 자기도 "바담 풍" 한 거나 똑같이 말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고 물리가 좀 터졌다면 책자를 그렇게 편집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세워 놓고 잘 되게 하겠다고 애를 쓰기 이전에 진실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그 여건이 주어져 있다면 우리가 무어든지 아니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할 수 없고 아니 될 수 없고. 행복은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뺏어 가는 것도 아닙니다. 단, 우리가 만들어서 행복을 가져오고 또 고에서 빠져나오고 또 병고에서 빠져나오고 가난에서 빠지고, 우리가 계발하는 겁니다. 계발도 정신 계발이 아니라 심성 계발로서의 정신으로 오관을 통해서 다섯 가지의 구슬이 스스로 돌아갈 때 계발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녹음 안됨) … 얘기를 하려 그러니까 그놈의 게 그렇게 가까우면서도 이렇게 표현이 안 나오니 어떡하죠? 표현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팔자 운명 이런 것도 각본에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꼭 이 일을 해야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저 일을 하자.' 하고선 저 일을 했을 때 이거보다 몇 배 이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각본대로 돼 있는 겁니까? 저 일도 자기가 하게끔 주어져 있으니까 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저 일로 가야지.' 하고선 이 일을 또 바꾸니까 여기에서 이익이 나왔고 또 안 가서 이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가서 손해를 보는 수도 있고. 이거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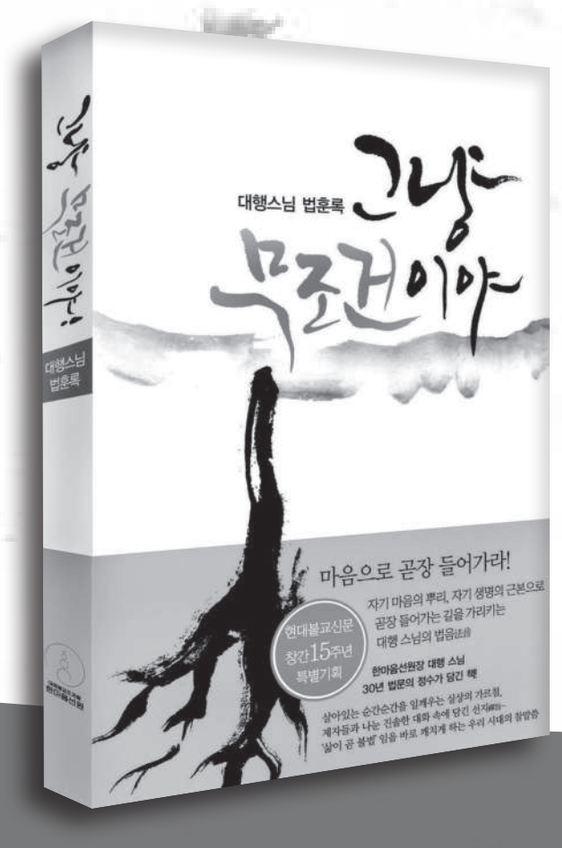
그러니까 프로펠러가 이렇게 돌아갈 때 추가 없으면 프로펠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프로펠러는 항상 동서가 없이, 너 나가 없이 그렇게 그냥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지금 우리 생활입니다. 추가 없다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추의 근본이 바로 태양의 근본도 될 수 있고 우주의 근본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체 없는 마음의 에너지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아
용도에 따라 큰 그릇을 대면 큰 그릇에 담기고
작은 그릇을 작은 그릇에 담깁니다.
내 한생각에 달려 있다 이겁니다.

※위 법문은 1987년 5월 3일 일반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 현불 논단 |

반철산행

주경 스님
동국대 감사



하안거도 절반 지난 7월 2일
덕숭총림 안거 대중 반철산행
가야사지-보원사 '백제 미소길'
2007년 시작… 산행 전통으로

7km 남짓한 2시간여 산길을
불교대학 신도 대중과 걸었다

걸음이 수행이요 바람이 법문
말없이 걸어도 서로 마음 통해
수승한 모든 인연에 감사할 뿐

하안거가 반이 지나갔다. 짧은 장마도 지나가고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고 있다.

7월 2일 제7교구 덕숭총림 본말사 안거대중들은 반철산행을 다녀왔다. 200여명의 스님들과 300여명의 재가불자들이 옛 가야사 터에 모였다. 올해로 13년째다. 중간에 시작한 공승법회도 8년째다. 반철산행은 주지스님이 네 번째 임기이고, 공승법회도 세 번째 주지 임기이다. 어른 스님과 교구대중들의 동의와 지지로 이어지는 이 행사는 근현대 한국불교의 요람인 덕숭총림의 새로운 전통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하늘은 청명하고 뭉게구름이 드문드문 그림자를 드리우며, 우거진 나무의 그림자들로 그늘진 산길에는 문득문득 시원한 바람이 불어주어서 그때마다 산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즐거움이 솟아난다.

지난 2007년 예산군과 서산시를 아우르는 가야산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자연환경과 지역의 역사 · 문화적 자산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스님들과 지역민들이 온 몸과 마음으로 막아낸 결과 가야사 터에서 보원사에 이르는 '백제의 미소길' 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아름답고 멋진 길이 생겨나게 되었다.

모인 대중들에게 인사말을 전하는 주지 스님의 표정도 맑았고, 법문시간에 대중들과 이 산하자연을 위해 축원을 드리는 방장 스님의 음성도 또렷하고 우렁차게 대중들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대중 스님들께 올리는 공승법회의 정성스러운 공양이 수북이 쌓였고, 자리에 참석한 모든 스님들께 빠짐없이 공양이 전해졌다.

수행 대중들은 불자들의 공양에 의지해서 정진하고 불자들은 스님들의 수행에 의지해서 복을 짓고 공덕을 쌓는다. 한 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고 한 편으로는 정진에 경책이고 빚을 지는 일이 될 수 있다. 서로서로 복이 되고 공덕이 되도록 신심과 정진으로 화답해야 할 일이다.

오늘 산행은 시간으로는 2시간 남짓, 거리로는 7km 정도의 길이다. 신도들과 함께 온 스님들은 가능하면 함께 걷도록 부탁드렸다. 그리고 나는 불교대학에서 공부하는 불자들과 함께 걸었다. 학장 소임을 맡고 있지만 평소 자주 보지 못하던 까닭에 나로서도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불자들도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뚜벅뚜벅 걷는 걸음걸음들이 다 마음을 모은 수행이었고, 불어오는 바람결이 가슴에 스미는 시원한 법문이었지만, 편안하게 이어지는 산행과 더불어 때로 묻고 답하며 나누는 이야기가 산행 내내 계속 되었다. 듣고 싶으면 가까이 와서 귀 기울여 듣고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거리를 두고 각자 편하게 걸으면서 나누는 대화는 어떤 법회보다 자연스럽고 여유가 있었다. 때로 말없이 걸어도 서로서로 마음이 통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틀에 박히고 격에 매인 법회보다 법문을 하는 법사와 법문을 듣는 불자들의 마음이 이와 같다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법회라 할 수 있겠다 싶었다.

보원사에 도착하니 시원한 메밀국수와 수박공양이 준비되어 있다. 스님을 유혹하는데 국수만한 것이 없다. 별난 특식을 대접하겠다고 청해도 사양하고 거절하지만 국수로 청하면 넘어가지 않는 스님이 없고, 일종식이나 오후 불식을 하며 과식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한 스님들도 국수를 앞에 두게 되면 대부분 한 덩어리 더 먹곤 한다. 그래서 국수의 별명이 '스님의 미소(僧笑)' 인가 보다.

산사에 살게 되어서 감사하고, 불법을 이어오신 역대 선사들과 어른스님들께 감사하다. 땀으로 노고로 모은 재물을 시주하고 신심과 정성으로 예경하는 불자들께 감사하다. 지심귀명례.

社 說

BBS 이사회, 조속히 지혜 모아야

BBS불교방송이 때 아닌 사장후보 추천 절차를 두고 내홍을 겪는 중이다. '방송을 통한 불교 포교' 라는 기치 아래 1990년 5월 1일 개국한 뒤 사장후보 추천으로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바로 '절차' 다. 사장후보 추천권을 갖는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 얼마나 공정한 절차를 거쳐 후보를 추천했는가가 논란의 본질이다. 진흥원은 과거와 달리 이번 사장후보 추천 절차에 변화를 줬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으며, 외부공모도 실시하지 않았다. 다만 진흥원 이사회가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을 사장후보로서 적합한지 논의했을 뿐이다. 이 과정에서 후보들의 출마의사, 경영계획 등을 고려하지 않았고, 진흥원 이사회는 결국 투명성의 상실과 절차적 하자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물론 사장후보를 추천하는 데 있어 규정상 구체적인 절차가 명문화되지 않았기에 진흥원 이사회의 결정을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규정만을 놓고 따졌을 때 진흥원 이사회가 이를 어기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사회 결정을 번복하기도 쉽지 않은 모양새다.

결국 진흥원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공은 불교방송 이사회로 넘어갔다. 이례적인 논란에 아직까지 불교방송 이사회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불교방송 이사회는 조속히 회의를 소집하고, 진흥원 이사회의 결정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홍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피해는 불교방송에 다시 돌아간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행복바라미 참여 네트워크 구축을

2013년 봉축을 기점으로 시작된 교계 첫 대국민 나눔 캠페인 '행복바라미' 가 출범 7년을 맞았다. 구세군의 거리모금을 롤모델로 추진된 행복바라미는 그동안 불교계 대표 기부 캠페인으로 자리매김해왔다. 7년간 모금소는 500여 개로 확대됐으며, 모금액도 11억 원이 훌쩍 넘었다. 이를 바탕으로 2200여 명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 나눔을 실천했다.

하지만 이런 행복바라미 캠페인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눈앞에 놓인 과제가 많다. 가장 먼저 거리 모금에 대한 정체성이다. 현재 행복바라미는 전통문화를 축으로 한 문화제와 불교 사상에 기반을 둔 자비나눔의 두 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문화제의 경우 불교관련 공연도 펼쳐지지만, 아닌 경우도 많다. 불교문화에 기반을 둔 대중적인 공연 콘텐츠의 발굴과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함께 거리모금을 담당하는 봉사자들의 정체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행복바라미 캠페인이 신도회의 나눔 캠페인이 아닌 불교계 전체의 대국민 나눔 캠페인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캠페인 동참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행복바라미 캠페인은 아직도 도입 초기다. 1891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돼 13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구세군의 자선냄비에 비해 7년 밖에 되지 않은 행복바라미는 갈 길이 멀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나눔 캠페인으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캠페인을 진행하는 불자조직, 신도단체들간 끈끈한 유대관계가 필요하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향후 권역별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열고 각 조직간 네트워크를 다진다는 계획이다. 큰 불사는 어느 한명의 손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행복바라미 캠페인이 일반인도 모두 참여하는 캠페인으로 자리하는 날을 기대해본다.



마음산책

공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황수경 동국대 겸임교수

한국 부모님들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높다고 알려져 있다. 부모들은 경쟁적으로 자녀교육에 열심이다. 아마 학생들이 가장 부담스러운 말은 "공부해라"일 것이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강의에서 부모님 마음을 공감하는 연습 시간이 있다. 이때 과제를 하나 낸다. 질문 하나를 직접 부모님께 여쭤보라는 것이다. 내용은 이렇다. "부모님이 어린 시절, 부모님께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무엇인가요."

부모님들은 보통 5~60대인데, 현재의 대학생들이 경험해본 어린 시절과는 너무도 다른 경우가 많다. 종종 학생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부모님의 마음에 대해 새롭게 공감하고 이해하게 된다.

어느 날 한 학생은 과제내용을 발표하면서 눈물을 글썽였다. "우리 엄마가 어린 시절에 제일 많이 들으신 말은 '공부하지 마라' 였다고 합니다."

학생의 어머니는 5남매 중 장녀였다. 농사가 생업인 부모님을 대신해 5, 6세 무렵부터 동생들을 업어 키웠다. 아이 보기와 집안일, 설거지도 했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어머니는 배우는 게 재미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집안에 일이 생기면 학교에 갈 수 없었다. 숙제를 하고 싶었지만, 집안일에 동생들을 돌보면 시간이 부족했다. 그래서 밤늦게 자지 않고 책을 보려고 했다.

그런데 책을 보는 것을 알게 된 할아버지는 "하지마라! 여자가 공부는 해서 뭐해. 그저 집안 일만 잘하면된다"고 꾸중했다. 어머니는 야속했다.

이후 학교를 자주 빠졌지만 중학교에는 진학했다. 그러나 1학년부터 할아버지는 단언했다. "너도 알겠지만 우리 형편은 어렵다. 넌 중학교까지는 다녀도 고등학교는 절대 못 간다. 남동생 공부시켜야지."

어머니는 그 말이 참 서럽고 슬프게 다가왔다고 한다. 남동생에게는 "공부 열심히 해"라고 격려하는 아버지가 자신에게는 하지 말라고 하다니.

그래도 어머니는 틈이 나면 책을 보았다. 한번은 막내 동생을 업고 책을 읽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들켰다. 아버지는 책을 확 잡아채며 "넌 제발 공부 좀 그만해"라고 나무랐다.

바로 밑의 남동생은 고등학교에 갔지만 대학에 갈 성적은 안됐다. 그날 밤 아버지가 동생을 야단쳤다. "네 누나는 중학교 때까지 공부도 잘했지만 너 공부시키느라고 학교도 안 보내고 돈 벌게 했다. 그런데 너는 주는 돈 받아가며 공부하고도 대학을 못 들어가!" 그 말에 가슴이 미어져서 어머니는 엉엉 울어버렸다.

학생이 말했다. "저의 어머니가 50세가 넘어서 고등학교 검정고시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요즘 학원 다니면서 어려워 하셔서 이제 와서 고등학교 졸업장은 무엇을 하려고 따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힘들면 공부 안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공부해야 돼' 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듣고 있던 다른 학생들도 "우리는 맨날 공부하라고 해서 너무 힘든데, 공부하고 싶은데도 하지 말라는 말을 듣는다는 건 생각도 못해봤다"라고 말한다. 학생들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공부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공감한다. 학생들과 함께 감사명상을 진행한다.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시험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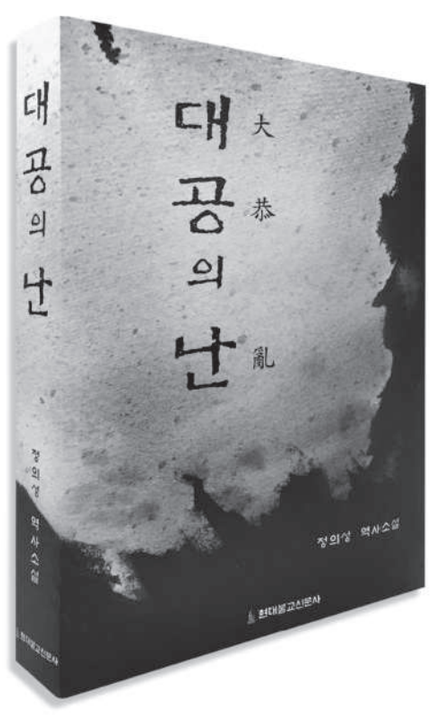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

2019년 한마음선원 여름 수련회

지원명	신행회	대 상	주 제	일 시	장 소	기 타
본 원	• 어린이회	초3~초6	내 한생각에 우주가 들썩들썩	7/26(금)~28(일)	광명선원	
	• 학생회	중1 ~고3	파도는 바다를 여의지 않는다	7/19(금)~21(일)	태안	
	• 청년회	청년회 1 부	스스로 갖추었네	7/12(금)~14(일)	광명선원	
광명선원	• 어린이회	초1 ~초6	관하는 어린이	8/9(금)~11(일)	통영지원	광명선원, 광주, 중부경남, 청주, 통영지원 연합수련회
	• 학생회	중1 ~고3	우리는 한가족	8/8(목)~10(토)	광명선원	
	• 청년회	청년	마음의 적멸보궁을 자유롭게 쓰자	7/27(토)~28(일)	오대산 상원사, 정암사	
제주지원	• 어린이회	초1 ~초6	–	가을 예정	–	
	• 학생회	중1 ~고3	한 철 영화 속 주인공은 나야 나	7/27(토)~28(일)	제주지원	
	• 청년회	청년	미정	8/3(토)~4(일)	제주지원	
부산지원	• 어린이회	초3~초6	미리 마음 내고 움직인다	7/13(토)~14(일)	부산지원	
	• 학생회	중1 ~고3	미리 마음 내고 움직인다	8/9(금)~11(일)	부산지원	
	• 청년회	청년	뿌리가 있어 꽃 피고 열매 맺는다	6/28(금)~30(일)	광명지원	
광주지원	• 어린이회	초1 ~초6	관하는 어린이	8/9(금)~11(일)	통영지원	광명선원, 광주, 중부경남, 청주, 통영지원 연합수련회
	• 학생회	중1 ~고3	지금, 여기, 패기 가득, 주인공!	8/2(금)~4(일)	여수	광주, 대구, 중부경남, 통영지원 연합수련회
	• 청년회	청년	믿고 물러서지 않아야 다 녹일 수 있다	7/26(금)~28(일)	광주	
울산지원	• 어린이회	유치부~초6	마음 꽃 활짝	7/13(토)~14(일)	울산지원	
	• 학생회	중1 ~고3	꽃을 피우는 나무	7/26(금)~27(토)	울산지원	
	• 청년회	청년	change mind	8/3(토)~4(일)	울산	
대구지원	• 어린이회	유치부~초6	주인공에 관해요	7/27(토)~28(일)	대구지원	
	• 학생회	중1 ~고3	지금, 여기, 패기 가득, 주인공!	8/2(금)~4(일)	여수	광주, 대구, 중부경남, 통영지원 연합수련회
	• 청년회	청년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가칭)	8/24(토)~25(일)	대구, 통영지원	대구, 통영지원 연합수련회
중부경남 지원	• 어린이회	유치부~초6	관하는 어린이	8/9(금)~11(일)	통영지원	광명선원, 광주, 중부경남, 청주, 통영지원 연합수련회
	• 학생회	중1 ~고3	지금, 여기, 패기 가득, 주인공!	8/2(금)~4(일)	여수	광주, 대구, 중부경남, 통영지원 연합수련회
	• 청년회	청년	제 나무에서 익어야 제 맛이 난다	7/14(일)	중부경남지원	
진주지원	• 어린이회	유치부~초6	행복한 나의 꿈을 찾아서	8/3(토)~4(일)	진주지원	어린이, 학생회 연합수련회
	• 학생회	중1 ~고3	행복한 나의 꿈을 찾아서	8/3(토)~4(일)	진주지원	어린이, 학생회 연합수련회
	• 청년회	청년	청년회의 꿈	7/13(토)~14(일)	진주지원	
포항지원	• 어린이회	초1 ~초6	부처님과 함께 놀아요	7/13(토)~14(일)	포항지원	
	• 학생회	중1 ~고3	–	–	–	수련회 없음
	• 청년회	청년	서라벌, 그 길 위의 정진	8/3(토)	불국사, 석굴암, 대릉원 등	
청주지원	• 어린이회	초1 ~초6	관하는 어린이	8/9(금)~11(일)	통영지원	광명선원, 광주, 중부경남, 청주, 통영지원 연합수련회
	• 청년회	청년	내 마음 점검 프로젝트	7/12(금)~14(일)	문경지원	
통영지원	• 어린이회	유치부~초6	관하는 어린이	8/9(금)~11(일)	통영지원	광명선원, 광주, 중부경남, 청주, 통영지원 연합수련회
	• 학생회	중1 ~고3	지금, 여기, 패기 가득, 주인공!	8/2(금)~4(일)	여수	광주, 대구, 중부경남, 통영지원 연합수련
	• 청년회	청년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가칭)	8/24(토)~25(일)	대구, 통영지원	대구, 통영지원 연합수련회

●수련회 일정은 2019년 7월 4일까지 확정된 내용을 실은 것이며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佛法 공동체’가 인류 미래의 ‘답’



리더에게 聽 하다

콴딘 싱캄(Kwandin Singkam · 65)

태국 불교수행공동체 시사아속 대표

인류의 삶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많은 변화와 진화를 거듭했다. 그 변화와 진화로 인해 사회는 복잡해지고 문화가 다양해지면서 ‘공존’이 쉽지 않은 문제가 되고 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나를 넘어 수많은 ‘나’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여러 모색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공존’의 숙제를 풀어가는 곳이 있다. ‘공동체’다. 공통의 생활공간에서 상호작용하며 유대감을 공유하는 집단생활의 형태다.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를 볼 수 있다.

6월 30일 경남 거창에서는 사부대중 공동체 ‘(사)행복한 마을’이 심검당과 도량의 중심부 제너홀의 오픈식을 갖고 공동체의 시작을 알렸다.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을 넘어 ‘무경계’의 삶으로 ‘모두의 행복한 삶’을 표방하는 ‘행복한 마을’은 사부대중이 모여 수행하며 생활하는 수행공동체다.

행복한 마을의 오픈식에는 뜻깊은 인사가 함께 했다. 태국을 대표하는 불교수행공동체 시사아속의 콴딘 싱캄(Kwandin Singkam) 촌장이다. 그녀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일구는 공동체가 인류의 미래에 대한 답이 된다고 말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계율을 엄격하게 지켜나가는 공동체 생활이 심화되는 이기주의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날의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했다. 인류의 참된 행복과 미래가 점점 요원해지는 오늘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하성미 기자 jayanti@hyunbul.com

Q. 태국 시사아속 공동체는 불교수행공동체 중 모범이 되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행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태국을 대표하는 불교수행 공동체 시사아속을 유지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시사아속 공동체를 처음 설립한 포티락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일굴 공동체를 생각하고 만드셨습니다. 제일 처음 ‘보원 아속’이라는 공동체를 설립하셨고, ‘보원아속’은 마을, 사원, 학교를 중심으로 시작했습니다. 시사아속 공동체는 48년 동안 지속해왔고 현재는 9곳의 공동체로 늘어났으며, 30여 개의 지사들로 구성돼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불교수행공동체를 일궈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포티락 스님을 중심으로 재가자 5명으로 출발한 저희 공동체는 현재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동체 구성원으로 태국 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교공동체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시사아속은 엄격하게 오계를 지키는 계율이 기본이 되고 오계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채식, 유기농업, 교육 사업이 진행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고 기본을 지켜 나가는 것이 시사아속 공동체의 존재 이유이자 공동체를 유지하는 힘입니다.

Q. 시사아속은 계를 엄격하게 지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오계 가운데 첫 번째인 살생하지 말라를 위해 유기농업을 시작했고, 탁월한 유기농업을 일궈 생명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 삶의 모습을 설명해주시고 어떤 결과를 얻으셨는지요?

시사아속 공동체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죽이거나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채식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모든 농사는 유기농으로 실시하고 농약,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기농사를 짓는 것은 공동체 삶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철저하게 오계를 지키며 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기 위해 비료도 자체 생산합니다. 화학비료를 쓰면 벌레가 죽고, 화학비료로 키운 식물을 먹은 저희도 병들며 땅도 오염이 됩니다. 살생하지 말라는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는 손이 많이 가지만 유기농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땅이 일하는 시기를 알고 자연과 대화하듯 살아갑니다. 농산물이 자라는 기간에 따라 크게 짧은 기간, 중간 기간, 긴 기간 등 3가지로 구분하여 농사를 진행합니다. 이 기간에 맞춰 사용하는 비료가 다르고 꽃과 과일, 식물 등 생산물에 따라 비료를 줍니다. 생명을 위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비료만 20가지가 넘습니다. 비료는 캡슐 형태, 액체 형태 등 모든 상황에 맞춰 제품을 만든 방식도 다릅니다.

태국 불교공동체 시사아속

1971년 포티락 스님 설립

9개 공동체 30여 지사로 확대

5명으로 시작 현재 5000명 생활

불살생 등 5계 철저히 실천

채식주의 원칙, 모든 농사 유기농

생산 후 저렴하게 판매, 나눔

죽이지 않기 위해 노력했더니 저희가 먼저 건강해졌고 행복해졌습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죽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며, 계를 지키는 삶 자체가 자비가 되고 보살의 마음을 배웁니다. 유기농 비료는 계를 지키기 위해 제작하고 만들었는데 저희 공동체의 대표적인 생산 약품이 되었습니다.

Q.현재 세계는 경제적 이윤을 위해서라면 생명가치마저 무시합니다.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자급자족 시스템은 세계에서 발생하는 자연 파괴, 생명 경시 및 혐오 등 여러 문제점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공동체가 잘 유지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경제 기반이 중요합니다. 경제 기반을 갖추는 이유를 잘 살펴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공동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현하며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위해서 경제기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엔코지로 가는 여정

B5 문화
L.M.B.싱어즈 20주년 기념 공연

B6 학술
2019 한국교수 불자대회

“무경계의 삶이 곧 보살행”



시사아속의 대중이 유기농으로 재배한 수확물을 서로 나누고 있다.



농경지에서 재배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콴딘 싱캄 대표.



시사아속 대중과 차를 나누고 있는 콴딘 싱캄 대표.

‘콴딘 싱캄’

B1면에서 계속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위해 유기농업을 시작했고 남은 것으로 건강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농작물을 만들면 모든 공동체가 먹고 남는 것으로 허브, 비누, 샴푸, 옷 등 삶에 필요한 생산품을 만듭니다. 물론 저희가 생산한 유기농 제품만을 재료로 활용합니다. 판매 및 마켓 운영방법은 간단합니다. 욕심내지 않고 모두를 위해 나누는 방법으로 최소한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저희는 일반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날을 정해 원가나 혹은 원가 이하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일 무상으로 주는 것도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저희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싸게 판매합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을 때와 왕과 왕비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날에는 원가 이하로 할인 판매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 만든 음식은 모두가 공짜입니다. 공동체뿐 아니라 저희 시사아속을 찾는 여행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윤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향하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말을 믿습니다. 자급자족은 국민을 강하게 하며 세계를 이끄는 자본주의의 폐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베네수엘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돈으로 삶이 얼마나 파괴되고 어려움을 겪는지 보십시오. 삶은 돈으로 일궈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함께 서로를 위할 때 자연은 인류를 사랑하고 그대로 돌려줄 것입니다.

Q. 시사아속 공동체는 불교 사원과 마을 그리고 학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사아속 내 회원 절반이 학생들인데 어떤 교육 원칙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며 이끌고 계신가요?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교육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저희가 지급합니다. 교복, 책, 대학자금, 유학비까지 저희 공동체서 지급하며 책임집니다. 돈을 벌고 건물을 짓는 일도 어려운 일이지만 아이들을 잘 키우고 양성하는 건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 공동체 학생들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노동 그리고 학업을 게을리 하지 말 것, 세 가지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배웁니다.

교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법, 담마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30분 예불을 드리고 법문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들도 일을 합니다. 자연과 함께하며 자신에게 생명을 주는 자연에게 감사하고 진실하게 온 우주 생명과 하나가 되는 법을 익힙니다. 마지막으로 학업입니다. 공부를 잘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게으르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과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학생들은 대학교로 진학한 후 다시 공동체로 자진해서 돌아옵니다. 공동체로 돌아와 선생님이 되고 봉사를 하며 유기농 사업을 위한 연구에 동참합니다. 저희 공동체 교육의 목표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Q. 대표님께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다 공동체 설립에 동참하고 지금까지 함께하는 것으로 압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학사 과정과 확실한 비교가 가능하신데요. 좋은 사람(good person)으로 학생들을 이끌기 위해 어떤 교육을 강조하시고 계신가요?

저는 22살 때 국립학교에서 태국어를 11년 동안 가르치다 공동체에 들어왔습니다. 태국이 불교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라고 해도 학교에서는 불교 보다는 교과과정, 즉 교과서를 중심으로 배우고 익히는데 급급합니다.

시사아속에서는 5계가 가르침의 중심입니다.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는 그들이 안전하도록 지킵니다. 청소년기에 방황을 하던 아이들은 일탈을 일삼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처님의 오계가 얼마나 자신을 보호하는지 알게 되는 기회가 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체 내 선생님으로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 시사아속은 9개 센터 가운데 가장 먼저 시작된 곳으로 운영법 및 공동체 이념 정신이 시작된 곳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립학교가 저희 공동체 내 학교를 모델로 교육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콴딘 싱캄(Kwandin Singkam)

1976년 회원 가입, 현 대표

佛法 ‘공동체’ 인류의 미래 답

지계(持戒)가 인류 행복과 직결

자급자족, 자본주의 폐해 탈피

‘똑똑한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

무경계로 모두가 가족 되어야

Q. 공동체 내에 승가와 재가의 역할 구분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스님들께서도 울력에 동참하는지요? 공동체 가운데 승가의 역할과 재가의 역할은 어떻게 구분되어야 할지요?

수행하는 스님들의 삶을 보필하고 스승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스님들은 저희 보다 훨씬 많은 계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유기농업에도 동참하진 않으십니다. 채식은 당연하고 오후불식을 지키며 보시금을 받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추수해야 할 때 식물을 꺾고 자르고 뽑아야하며 알게 모르게 살생을 할 경우도 생깁니다. 자신의 먹거리를 위해 살생을 하는 것은 계에 어긋납니다. 계를 철저히 지키도록 도와드립니다. 그것이 저희 재가자의 역할입니다.

공동체 내 스님들의 역할은 수행과 스승입니다. 저희 시사아속엔 현재 7명의 스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새벽 예불과 법문, 그리고 학교 내 불교학 강의를 주로 하십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일기에 모두 코멘트를 달고 지도를 함께 하십니다. 116명이 일기를 적으면 한명도 빠지지 않도록 모든 일기에 충고와 사랑을 담은 편지를 가득히 적어 학생에게 돌려줍니다. 학생들이 일기를 한 줄만 적어도 스님들의 편지는 가득히 적혀 있습니다.

스님들은 학생뿐 아니라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모든 문제에 대해 바른 방향을 지도하고 상담을 하십니다. 공동체에 일어나는 다툼, 연애, 가족사까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지도자로 바른 상담을 항상 해주고 계십니다. 정신적인 부분을 해결하고 성숙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저희를 지도하는 스님들이 계셔서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익히며 바른 공동체 생활의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Q. 시사아속은 의 · 식 · 주 그리고 약,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네 가지를 실현한 공동체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의 생명은 모두 의 · 식 · 주를 기본으로 생활하며 건강을 강조합니다. 삶의 모습과 방향을 이끌어가는 의식주 그리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강은 인간 삶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지구촌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결정 된(오랜 전통으로 정해진 가정 생활 패턴 및 매체를 통해 주입된 사상) 것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시사아속 공동체에서 생각하는 바른 의식주의 모습과 건강 유지법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안해 주십시오. 세계의 문화, 의식주는 어떻게 바뀌어야 바른 모습일까요?

‘경계 없는 삶’이 답입니다. 무경계로 모두가 하나가 되며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시사아속은 온 우주와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먹이고 살리는 공동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농사를 짓습니다. 기꺼이 귀찮은 일에 동참합니다. 개미, 꽃, 풀, 벌레까지도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돈을 투자합니다. 이것이 불국토입니다. 부처님의 세상입니다. 온 세계 생명들이 다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두가 가족으로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경계의 벽을 허무세요. 그럼 온 우주가 당신의 가족이 되고 한 몸이 될 것입니다.

콴딘 싱캄 대표는… 43년 전 시사아속 공동체 회원으로 가입하고 현재 재가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공동체 설립 당시 가족들과 함께 공동체에 들어와 봉사활동을 이어 갔으며 모든 활동에 무보시로 후원하며 공동체 정신을 널리 알리고 있다. 시사아속은 계를 엄격히 지켜나가는 사부대중 불교수행공동체로 태국 내 9개의 센터와 30여개의 지사를 둔 공동체로 500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 친환경적
- 단열효과 탁월
- 구조변경 용이
- 시공비 대폭절감
- 습기에 강함
- 내구성 우수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 합니다.

☎ 문의 : 민성기업 (구,대진기업)
010-2628-9944

걸어보지 않으면 모를 시코쿠 순례길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㉔ 엔코지로 가는 여정



39번 엔코지 전경. 좌측이 대사당, 우측이 본당이다. 본존은 약사여래다.

산 아래 감춰진 듯 자리한 엔코지
코보 대사가 샘 파고 가피를 내려
범종을 거북이가 가져왔단 전설도

홋카이도 만담 콤비 등 순례 인연
걸어봐야 보이고 만날 수 있는 것

무엇인가 원인이나 이유가 없이 현상이 일어나는 법은 없다. 아무리 삿갓이 특이하고, 한국인이라고 해도 이렇게 자동차로 이동할 수가 생긴 것은 의아하기 그지없다. 38번 사찰을 뒤로 하고 걸어가려다가 주차장에서 나를 기다리던 할아버지에게 다시 잡히고 말았다.

"여기서 지금 차를 타고 가면 39번 엔코지(延光寺)의 납경에 맞게 도착할 수 있는데?"

할아버지는 어차피 집에 돌아가려면 지금 온 길을 되돌아가는 게 가장 빠르고, 그 길이 39번과 이어지는 길과 겹치는데다가 39번까지 가는 게 오히려 자택이 가깝다며 다시 내 배낭을 빼앗듯이 붙잡았다. 결국 차를 타고 39번 엔코지를 향하게 됐다.

엔코지에 도착했을 땐 오후 4시가 조금 지나서였다. 엔코지는 코보 대사가 물이 없어 곤란한 사람들을 위해 샘을 파고 가피를 내린 곳에 세워진 사찰이다. 전설에는 이 사찰에 걸린 범종을 붉은 거북이가 등에 짊어지고 용궁에서 왔다는 이야기가 있다. 재미있는 것은 엔코지는 산 아래에 감춰지듯 자리 잡은 사찰. 어떻게 거북이가 여기까지 종을 가져왔나 하고 궁금할 따름이다. 그러한 연유로 경내엔 종을 가져오는 거북이의 석상이 놓여 있고, 사찰의 납경도장에도 거북이가 모티프로 되어있다.

참배를 하고 납경까지 깔끔하게 완료하고서 사찰의 앞마당으로 나아가보니 할아버지가 대여섯 명의 순례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다들 오늘 이곳이 마지막 일정인 듯 여유로워 보였다.

"오, 왔네요. 다들 인사해요. 한국에서 온 박상이야. 한국에서 불교를 공부한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소개로 순례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다들 일본 전국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는 순례자들이었다. 그중 단연 눈에 띄는 순례자는 홋카이도에서 왔다는 콤비. 이번 순례를 마치고 출가하기로 결정했다는 코에이 씨와 목덜미를 잡혀왔다는 친구 오바 씨. 코에이 씨는 내 법명인 지산(智山)을 보고서, 자신의 성과 같은 '토모(智)' 자를 쓴다며 반가워했다.

출가를 결심한 계기를 묻자, 코에이 씨는 단박에 "부처님이 너무 좋아서"라고 대답했다. 어느 종단으로 하느냐고 다시 물었더니 나라(奈良)에 있는 킨푸잔(金峰山)으로 출가한단다. 일본불교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영산(靈山)중 한 곳이다. 혹시 오바 씨도 함께 출가하냐는 질문에 코에이 씨는 손을 내저었다. "대신에 내가 불교에 대해 많이 주입을 했지"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러며 친구 오바 씨에게 질문을 던졌다. "어이, 오바. 임제종이 뭐지?"

그러자 "선종이잖아? 잇큐(一休)스님이 들어있는"라고 답이 돌아왔다. 곧바로 코에이 씨가 니치렌(日蓮)스님이 누구냐고 묻자 오바 씨는 "나무묘법연화경"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코에이 씨는 "이거 봐, 척하고 나오잖아"라고 자랑했다.

너무나 천진하게 나오는 문답이 꼭 만담 같아서 그만 길 위에서 큰 소리로 웃고 말았다. 둘이서 주거니 받거니 이어지는 이야기에 나도 참가해, 셋이서 서로 깔깔대며 길을 나아갔다. 그 중에는 코에이 씨 할머니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도 있었다.

코에이 씨 할머니는 집에서 기도할 때 불전함에 약간의 돈을 올리곤 한다고 말하자, 곧바로 일행은 모두 사찰에 보시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잠시 머뭇거리던 코에이 씨. 이내 "우리 할머니, 파칭코를 엄청 좋아하시거든"이라는 답이 나왔다. 놀라는 일행에게 코에이 씨는 할머니의 명대사를 전했다. "우리 할머니 말씀이 '부처님이 주신 돈으로 하면, 대박이 잘 터져' 라시더라고…."

의아해하는 나와 오바 씨에게 코에이 씨는 "중생의 탐욕을 제도하시려고 부처님이 파칭코 슬롯으로 화현하신 거야"라고 말했다. 이유도 재치가 넘쳤다.

"돈을 모두 가져가시는데? 부처님 맞아요?"

"왜! 무소유를 실천하도록 도와주시잖아."

이야기 하는 힘을 빌려 쉬지도 않고 10km 정도를 나아갔다. 순례자들이 묵을 수 있는 휴게소가 있는 곳 까지 함께 걸었다. 홋카이도 콤비도 마침 텐트를 가지고 다니며 노숙순례를 하는 지라 오늘 묵을 포인트가 나와 같았다.

휴게소에 도착해서 보니 꽤나 북적인다. 아까 39번에서 본 사람들 대부분이 모여 있다. 다들 여기서 묵는다고 한다. 꽤나 큰 휴게소 안에 장정 8명 가량이 텐트며, 매트를 여기저기 깔고 있으니 작은 순례자 마을이 되었다.

한쪽 구석에선 버너와 냄비를 꺼내서 저녁식사를 만들고 있고, 다른 순례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으니 꽤나 떠들썩한 시간이다. 나도 저녁을 먹으려고 미숫가루를 꺼내 반죽하고 있으려니 중년의 순례자가 냄비를 들고 온다.

"여기, 소시지를 좀 볶았는데 먹겠습니까?"

"먹을 것은 거절하지 않죠. 감사합니다!"

"근데 뭐 만드는 겁니까? 빵인가요?"

"아닙니다. 한국의 미숫가루입니다. 좀 드실래요?"

"저도 먹을 건 거절하지 않죠!"

먹을 것을 계기로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아무래도 더운 날 순례를 하다보니, 몸이 힘들었던 기억을 주로 이야기 하게 된다. 처음 순례를 왔을 때 아무 생각도 없이 걷다가 일사병과 탈수증으로 쓰러졌던 이야기를 했다.

"정말 죽을 뻔 했습니다. 저 멀리 대사님을 뵌 거 같기도 하고…."

"정말로 쓰러져 죽는 사람도 나오니 조심해야 합니다. 지난달 어느 순례자가 21번 올라가는 등산로에서 변사체로 발견되기도 했죠."

그 이야기에 내가 화들짝 놀라자 홋카이도 콤비가 옆에서 슬쩍 끼어들었다.

"맞아요, 그런 뉴스가 있었죠! 하필이면 우리가 순례를 시작하고 얼마 안돼서 그런 일이 생겨서 친구며, 집이며 하루에 몇 통이나 전화가 왔었습니다."

순례를 하면서 뉴스를 잘 보질 않으니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다. 이야기를 시작한 아저씨는 반응을 한창 듣더니 이내 한 마디를 더 보탰다.

"시체를 봤을 땐 정말 놀랐어요. 21번 산문 조금 못 미쳐서 할아버지가 누워 있길래 '영감님, 어디 아프세요' 하고 물어봤는데 이미 돌아가셨더군요. 산문 근처여서 시신 수습이 용이했지 아니면 정말 힘들 뻔 했습니다."

안타까운 탄식이 이어지자 아저씨는 시코쿠 순례의 기원을 되새기며 이야기를 정리했다. "그래도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제대로 된 시코쿠 순례 아니겠는가. 원래 이 길은 사자(死者)의 길이니까."

길가에 종종 옛 순례자들의 무덤을 보곤 하지만, 현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놀라울 뿐이다. 순례 중에 사고를 당한 이야기는 종종 회자되지만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다.

모두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작은 순례자 마을이 떠들썩해졌다. 활기 넘치는 분위기에 길을 가던 동네 주민들도 하나 둘 이끌려 다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됐다. 덕분에 앞으로의 순례길, 새로운 루트나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들이 손에 들어왔다.

아마 도보로만 고집해서 길을 걸었다면 이처럼 멋진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으리라. 이런 결과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붙잡혀 차를 타고 온 게 아니겠는가. 시코쿠 순례길은 역시 와보지 않으면 모르고, 직접 걸어보지 않으면 말할 없는 일들이 정말로 가득하다.

〈자유기고가〉

순례의 Tip



홋카이도에서 온 콤비. 이들의 대화는 마치 만담처럼 이어졌다

– 37번–38번–39번 사찰로 이어지는 길은 숙소나 상점이 드문 편이니 주의하자.

–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38~39번을 순례하는 방법도 있다. 단, 순례길과 겹치지는 않는다.

– 39번 사찰에서 다음 사찰을 향하는 길은 국도를 타는 루트와, 산을 넘는 루트가 있다. 우회하게 되지만 국도를 타는 루트가 숙소를 정하기엔 좋다.






B.TONIC
CAFE & BAKERY

카페 비토닉의
오리지널 블랜딩 커피,
아름다운 부산항과 하나 되다.

카페 비토닉 www.cafebtonic.com T. 051-997-4484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247번길 35, 6층 / 6F, 35, Haeyang-ro 247beon-gil, Yeongdo-gu, Busan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3~7/9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6	사찰의 비밀 (불교 상징과 문화에 대한 안내서)	자현스님	담앤북스
2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혜민스님	수오서재	7	진흙에서 핀 연꽃처럼 (조계종 신행수기 공모당선작)	법보신문 편집부	모과나무
3	월호 스님의 선가귀감 강설	월호스님	조계종출판사	8	새롭게 열린다 붓다의 시대	김재영	동쪽나라
4	요가 디피카	B.K.S.아헹가/현천스님	선요가	9	보살핌의 경제학	달라이 라마 외	나무의마음
5	정선 디가 니까야	이중표	불광출판사	10	치유의 섬, 만다라	민보현	모과나무

"無爲 의료로 못 고칠 병은 없다"



自然 치유에 몸을 맡겨라

김윤세 지음/조선뉴스프레스 펴냄/3만5천원



노자의 〈도덕경〉을 자연 치유적 관점서 재해석해

노자의 '무위자연'과 인산의 '참의료'서 공통점 발견

저자, 25세부터 5차례 죽음 위기서 신약 의해 소생

바쁜 현대인들에 자연 치유적 '건강 삶' 가이드 제시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중국 춘추전국시대 사상가인 노자(老子)는 도가(道家)의 창시자로, 성은 이(李)이고 이름은 이(耳), 자는 담(聃)이다. 그는 유가철학과 더불어 중국 고대철학의 양대 산맥인 도가철학의 창시자로, 무위자연을 바탕으로 하는 도의 사상을 주창했다.

〈도덕경〉은 도가의 깊고 높은 지혜가 정리된 대표 경전으로, 노자가 남긴 81장 5,000자의 함축적 시어(詩語)는 세상 만물의 진리를 통찰하며 우리의 심신을 밝게 일깨우곤 한다. 물질문명을 맹신하며 사는 우리에게 질박하고 절제된 삶을 종용하며 삶의 근원과 이면을 직시하게 하는 통찰력도 갖게 한다. 그가 주창하는 무위는 '도는 언제나 무위이지만 하지 않는 일이 없다(道常無爲而無不爲)' 의 무위이고, 그가 언급한 자연은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天法道道法自然)' 의 자연을 의미한다. 〈도덕경〉 핵심 사상은 거짓됨과 인위적인 것에서 벗어나 자연에 순응하는 무위(無爲)의 삶, 겸손과 무욕을 실천하는 질박한 삶에 있다.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지혜롭고 유연한 삶이란 심신(心身)을 맑고 가볍게 하는 건강한 삶이기도 하다

도가사상의 원류 노자와 민초 의황(醫皇) 인산(仁山)의 자연사상을 동시에 탐독할 수 있는 건강 인문서 〈자연치유에 몸을 맡겨라〉가 출간됐다.

인산 선생은 세상의 의료진이 항용 쓰고 있는 일반적 방약을 지양하고 세상에 흔한 천연물의 약성과 무위자연의 참 의료 묘방을 활용해 세상의 모든 암 및 난치병, 그리고 괴질을 물리칠 수 있는 독창적 신의학을 세상에 내놓은 바 있다.

인산 선생은 천부적 혜안과 불가사의한 의료 능력으로 숱한 신화를 남기고, 신의학의 새 지평을 열어 지금까지도 '불세출의 신의' 로 불리고 있다. 이번 책은 인산 선생의 4남 1녀중 차남으로 태어나 25세부터 다섯 차례나 죽음의 위기에 까지 이르렀다가 인산 선생의 신약, 묘방에 의해 소생한 경험이 있는 김윤세 인산가 회장〈사진 위〉의 오랜 연구와 통찰에 의해 완성됐다.

김 회장은 아버지의 독창적 인술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작심하고 신문 기자가 되어 '인산 의학' 에 관한 글을 발표하고 강의를 통해 그 실상을 알리는데 진력해 왔다. 그러한 노력에 힘입어 1981년에 간행된 〈구세신방〉의 저술에 참여했고, 5년 뒤 인산 선생의 구술을 받아 원고를 정리 편집해 인산의학 불멸의 저술로 꼽히는 〈신약〉을 펴내 의학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했다.

이번 저서 또한 두 사상가의 철학이 담긴 〈도덕경〉과 〈신약본초〉의 재해석을 통해 자연과 순리를 따르는 삶이 곧 진리(眞理)임을 깨닫게 한다.

이 책은 저자 김윤세 회장이 노자(老子) 〈도덕경〉서 얻은 깨달음을 자연의학으로 재해석해 무위자연의 도가사상과 인산의 '참의료' 철학이 같은 배경을 갖고 있으며, 나아가 동일한 이상(理想)을 추구하고 있음을 전한다.

노자와 인산 선생은 2,500여 년의 시공(時空)을 초월해 비록 다른 언어로 설명했지만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 노자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삶과 참된 정치를 역설했고, 또 인산 선생은 무의자유(無醫自癒)의 '참의료' 를 세상에 제시해 자연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천명하고, 자연으로 돌아갈 것을 역설하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김윤세 회장은 문명에서 비롯된 질병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도 '참의료' 의 중요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현대인에게 두 철인(哲人)의 방법론을 전해 올바른 삶의 모습을 이 책을 통해 제시한다. 노자의 〈도덕경〉은 그 자체만으로 참된 의료 경전이 될 수 있지만 생전 인산이 언급하고 강조한 의학적 지혜를 덧붙여 노자의 메시지를 좀 더 명확하게 한다. 〈도덕경〉은 인류의 삶이 순리와 자연의 범주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왔다. 자연의 이치를 벗어나 인위적 인 삶을 거듭할 경우 건강을 잃고 비명횡사로 생을 끝낼 소지가 높다는 점을 여러 경로를 통해 설명해 낸다.

독자들이 좀 더 주목할 부분은 〈도덕경〉의 이 정치적 견해에 추가된 인산의 '참의료' 실천을 통한 '건강한 삶' 에 있다. 저자 김윤세 회장은 의황 인산의 참의료 묘법을 기술 하며 암과 난치병, 공해독을 물리칠 수 있는 이 시대에 필요한 개인의 도리(道理)를 〈도덕경〉의 지혜에 덧붙여 거듭 강조한다. 모든 사람의 생명에 깃들어 있는 항상성(恒常性)과 그것을 유지하게 하는 치유(治癒)와 복원(復元)을 강화하는 힘, 그것이 바로 우리 몸 안에, 우리 자연의 품에 얼마든지 있음을 역설한다. 또한 상업성에 기반한 현대 의학계의 무리한 의료에서 비롯된 병폐와 아무런 의문 없이 참혹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개인의 폐해를 지적하며, 스스로 건강한 삶을 향해 도전하고 정진하는 것이 최선임을 당부한다. 인류 최고의 사상 가 노자와 민초 의황 인산의 깊고 넓은 도의의 세계를 탐구하며 건강을 획득하는 체험은 몹시 흥미롭고 유익하다.

그는 인산선생의 〈신약〉과 〈도덕경〉은 짜고친 것처럼 일맥상통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자연치유에 몸을 맡겨라"는 점이 두 저서가 지닌 공통점이고, 이를 세상에 알리려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다. 특히 저자는 인산 죽염은 셀리늄 부족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준다면서 셀레늄부족의 해독을 밝히기도 했다. 어려서부터 부친으로부터 한학을 기초부터 몸에 익혔을 뿐 아니라, 국내외의 의학관련 서적도 어지간히 많이 읽은 것으로 소문난 김윤세 회장의 그 해박한 지식을 책 속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것도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이자 장점이다.

▲저자 김윤세 회장은?

유의(儒醫) 가문의 전통에 따라 가친(家親) 인산(仁山) 김일훈(金一勳:1909~1992) 선생으로부터 〈사서삼경(四書三經)〉을 위시해 〈금강경(金剛經)〉 〈도덕경(道德經)〉 등 유불도(儒佛道) 삼가의 제 경전과 민족 전통의학 교육을 이수하였다. 오늘의 '한문고전번역원' 의 전신인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수원에서 고전(古典) 국역자 양성을 위한 5년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뒤 8년 동안 〈불교신문〉 편집부에서 기자, 차장을 지냈다.

'불세출(不世出)의 신의(神醫)' 로 알려진 아버지 인산의 신의학(新醫學) 이론을 5년 동안 구술받아 정리해 1986년 6월 15일, 〈신약(神藥)〉이라는 책으로 출간해 의료인은 물론이고 당시 암, 난치병, 괴질로 신음하던 수많은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대대적인 호응을 얻음으로써 한국의 자연의학 발전에 한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987년 8월 27일, '인산의학' 의 산물인 죽염을 세계 최초로 산업화하여 '소금 유해론' 문제의 본질이 미네랄 함유 여부에 있음을 세상에 알렸으며 1989년부터 아버지 인산의 의술을 국민에게 전하기 위해 건강 매거진 〈仁山의학〉을 발행해 왔다. 1993년 경남 함양 삼봉산에 인산연수원을 설립한 이래 300회 이상의 강연회를 열어 각종 암, 난치병, 괴질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인산(仁山)의학' 의 신약(神藥)과 묘방(妙方)을 세상에 알리는 일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사선의 선풍을 확립하다!

전심법요·완릉록



임제 의현의 스승이기도 한 황벽은 간명하고 평이한
언어로 선의 이치를 펼치고 있어,
이 어록은 선의 정수이자 개론서로 꼽힌다.

황벽희운 저, 정운 강설/양장/288쪽/값 15,000원

금강경의 근본 종지와 낙처를 정확히 드러내다!

금강경삼가해



선사들의 선적 표현을,
원전의 심원하고 원융한 분위기를 살리면서도
정확하게 현대적 감각으로 번역하였다!

전재강 역주, 고우스님 감수/양장/768쪽/값 35,000원

중국 백림선사의 정혜스님 법문집!

생활선의 열쇠



어떻게 인생의 질곡에서 벗어날 것인가?
불법과 세간이 둘이 아니고,
사람노릇과 성불하는 것이 둘이 아니다!

정혜 지음, 이명한·안영주 옮김/양장/464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천상의 소리로 法音 전하는 '가릉빈가'

L.M.B. 싱어즈 창단 20주년 기념공연
나누고 함께하는 음악 법석 '감동'
7월 13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


창단 20주년을 맞은 찬불성악중창단 L.M.B. 싱어즈가 7월 13일 오후 3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기념공연을 개최한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창단 20주년을 맞은 찬불성악중창단 L.M.B. 싱어즈(대표 황영선)가 7월 13일 오후 3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기념공연 〈나누고 함께하는 음악 법석 '감동'〉을 개최한다.

20년 동안 L.M.B. 싱어즈를 성원해 준 대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공연이다. 이번 공연에서 L.M.B. 싱어즈는 신곡 3곡을 포함해 모두 11곡의 찬불가를 선보인다.

현재 성악과 피아노 전공자 7명의 단원으로 활동 중인 L.M.B. 싱어즈는 1999년 3월 20일 창단됐으며, 그동안 50여 명의 단원이 거쳐 갔다. 자체 공연을 포함해 사찰, 군부대, 병원, 교도소 등에서 900여 회 공연했으며 6개의 음반을 발표했다. 탄탄한 가창력과 음악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여온 L.M.B. 싱어즈는 찬불가는 물론 가곡과 클래식, 대중음악까지 폭넓은 장르의 음악으로 불자는 물론 일반대중과 만나왔다. 그동안 발표한 찬불가와 공연을 통해 보여준 다양한 음악적 퍼포먼스는 한국불교음악의 새로운 길이 되었으며, 그렇게 길이 된 20년은 작지 않은 불법홍포의 역사가 되었다.

사부대중과 함께 그 역사를 되돌아보는 이번 공연은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 '찬탄의 노래 Rapper와 L.M.B. 싱어즈의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에서는 L.M.B. 싱어즈 단원들이 작사 또는 작곡한 '어디로 가야 하나', '마음의 소리', '부처님 마음일세' 3곡을 선보인다. 특히 '마음의 소리'와 '부처님 마음일세'는 래퍼 오현탁 씨가 함께하는 콜라보레이션 무대다.

△2부 '환희의 만남-하나로 어우러진 동·서양 음악'은 동서양의 음악이 하나로 어우러진 무대다. 선보이는 3곡은 서양음악을 전공한 L.M.B. 싱어즈 단원들이 작곡한 곡을 국악인 작곡가 함현상이 국악곡으로 편곡한 작품이다. 첫 번째 곡 '자비로움으로 오시는 님(이강식 작사, 김미영 작곡)'은 불보살의 자비를 노래한다. 두 번째 곡, '오직 할 뿐(이강식 작사 석동령 작곡)'은 선불교의 정신이 녹아있는 선시 같은 곡이다. 세 번째 곡, '꽃비로 내게 왔네요(이강식 작사, 황영선 작곡)'는 불교 용어를 최소화하면서 불교적 감성을 크게 불러일으키는 곡이다. 네 번째 곡 '아니 노지 못하는 청춘 그 어느 땐가'는 한국민요 '청춘가'와 '창부타령'을 합창곡으로 편곡한 곡이다. △3부 '음악법석-감동(感同)'에서는 음악회의 주제인 〈나누고 함께하는 음악법석 '감동'〉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무대다. 20년간 L.M.B. 싱어즈를 성원해준 대중과 함께 행복을 나누고픈 L.M.B. 싱어즈 단원들의 바람이 담긴 무대다. 먼저 류경아 단원이 뮤지컬 '위키드' 중에서 'Popular'를 노래하고 이어서 '님과 함께'와 '해뜰 날', 뮤지컬 맘마미아 중 'Thank you for the music'이 이어진다.

900여 회 공연 음반 6집 발매
신곡 3곡 포함 11곡 공연
래퍼와 콜라보레이션 무대로

이번 공연은 L.M.B. 싱어즈가 한국의 찬불성악중창단으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다. L.M.B. 싱어즈는 이번 공연을 계기로 찬불가 창작과 함께 공연의 스펙트럼을 넓혀 불자는 물론 일반 대중에게도 다가갈 생각이다. 아울러 위대한 불교음악인을 조명하는 'Buddhist Hymn Maestro' 프로젝트도 꾸준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L.M.B. 싱어즈는 1999년 창단한 이후 한국불교음악의 발전을 위해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불보살님의 가피와 응원해 주시는 대중 덕분으로 난관을 헤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창단 20주년 기념 공연을 디딤돌로 삼아 불교음악으로 대중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진정한 '가릉빈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바세계가 불국토가 되는 날까지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천상의 소리로 법음(法音)을 전하는 새, 가릉빈가. 가릉빈가의 묘음은 시방세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가릉빈가는 부처님의 화현이라고도 불린다. 이번 공연을 통해 시방세계 곳곳으로 그들의 묘음이 전해지길 바란다. 이번 공연은 무료다. (02)882-1727.

제 3회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

8월 11일 오후 1시~6시 서울 길상사

(사)맑고 향기롭게(이사장 덕일)는 8월 11일 서울 성북동 길상사에서 '제3회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 〈사진〉를 개최한다. 참가 대상은 전국의 초등학생이며 1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가 부분은 저학년(1~3학년)과 고학년(4~6학년)으로 나누어 운문과 산문으로 진행된다.



준비물은 필기도구(연필, 지우개), 원고지 받침대, 돗자리, 물 등이며, 대회용 원고지는 행사 당일 접수 확인 후 지급한다.(대회 당일 배포한 원고지만 제출 가능)

시제는 어린이들의 맑고 향기로운 마음과 연관된 시제를 당일 공개하며, 운문과 산문 각 부문별로 장원(무소유상) 4명, 차상(맑음상) 8명, 차하(향기상) 8명, 장려상 20명에게 시상한다. 수상자들에게는 총 540만원의 장학금과 법정스님의 저서인 '오두막 편지'를 수여한다. 심사위원장 도종환 시인(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현 국회의원)과 박형준(시인, 동국대 국어국문문창과 교수), 홍용희(문학평론가, 경희사이버대 교수), 함명춘(시인, 출판인) 등 전문 심사위원들이 심사한다.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는 어린이들에게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고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7년부터 (사)맑고 향기롭게가 개최하고 있으며 단순 흥미 위주의 활동이 아닌 어린이들의 맑고 향기로운 가치관과 문학예술 창작기질을 키우기 위함이다. 광복절 74주년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어린이들에게 광복의 의미를 알리기 위한 글제도 주어질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당일 가족단위 참가자들과 방문하는 어린이가 자발적이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불교문화행사 등을 길상사 마당에서 운영한다. 행사 당일 참가자 모두에게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실천하자는 운동의 일환으로 봉사자들이 직접 폐현수막을 재생하여 만든 에코백(친환경 가방)에 간식과 기념품 등을 담아 전달한다.

참여를 원하는 초등학생은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www.clean94.or.kr)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여 7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메일(clean94@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수상자 발표는 8월 21일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와 개별연락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시상식 당일(8월 25일)에는 수상작 발표회를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www.clean94.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741-4696.

박재완 기자

국립중앙박물관 7월 큐레이터와 대화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이 매주 수요일 야간개장 시간(21:00까지)에 진행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7월의 '큐레이터와의 대화'에서는 특별전 '로마 이전, 에트루리아(7.9~10.27)의 전시 설명회를 시작한다. 이번 특별전은 로마 문화의 원류인 에트루리아를 우리나라 처음으로 소개하는 전시다. 그리스와 로마 문화의 가교 역할을 했던 에트루리아, 그 찬란한 문화유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조선시대 실경산수화를 심층적으로 조명한 특별전 '우리 강산을 그리다: 화가의 시선, 조선시대 실경산수화(7.23.~9.22)'의 설명회도 열린다. 화가의 눈으로 본 실제 경치가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자리다.

이밖에 상설전시관에서는 '역사 지도(7.3)', '도자기가 완성되기까지, 조선 후기 청화백자(7.10)', '신석기시대의 토기(7.17)', '어린이와 문화재이야기(7.24)', '그림과 지도 사이(7.31)' 등 다양한 시대와 장르의 전시품에 대한 설명을 자유롭게 선택해 들을 수 있다.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별도의 예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20명 이상)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에 예약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큐레이터와의 대화' 관련 리플릿은 상설전시관 안내데스크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배포하며,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관람정보-전시해설-큐레이터와의 대화' 자료실에서 e-book 형태로도 제공한다.

박재완 기자

BTN 불국토상조는 장례포교사

회원가입 문의 : 1577-7675

장엄번 제단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기 위해 대성인로왕보살과 극락도사아미타불 장엄번으로 제단 장엄

스님 시다림



입관 및 성복례를 하는 동안 스님께서 직접 장엄염불로 영가가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모십니다.

지장경 수의



영가의 극락왕생을 위해 지장경이 새겨진 불경수의와 지장보살상 위패를 제공합니다.

불국토상조는 BTN불교TV가 영가의 극락왕생을 인도하기 위해 설립한 불교전문 장례포교사로서 불자들을 위한 전문화된 장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불국토상조 "우량업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회계감사를 통해 2018년 6월29일 우량업체 발표. 상조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 법정 자본금 요건(15억원)을 충족한 회계지표 상위업체 공개명단에 불국토상조가 포함됨

중요정보 고시사항

대표이사 : 구본일 / 홈페이지 : www.btnlife.co.kr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97 4층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번호 : 서울-2011-제68호 / 할부거래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을 준수하며, 해약 환급금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따라 환급이 가능하고, 고객 불입금을 국민은행에 안전하게 예치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총고객환급의무액 10,286,290,000원 / 상조관련자산 14,001,360,000원 / 공인회계사(삼덕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

불교 '마음치유산업' 독인가 약인가

우혜란 연구원, 교수불자대회서 주장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가 마음치유 산업으로 대중적 영향력은 확대되지만, 결속된 신도층 확보가 어려워지는 '자기모순'을 갖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혜란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은 7월 4~6일 대구 동화사에서 열린 2019 한국교수불자대회서 이 같이 주장했다.

우혜란 연구원은 '한국 불교계의 마음치유 사업과 종교 영역의 재편성' 주제의 발표에서 현재 한국불교 마음산업의 현황과 영향에 대해 진단했다.

우혜란 연구원은 2010년대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힐링문화를 다른 종교와는 달리 불교는 적극적으로 수용했음에 주목했다. 그는 "한국불교는 마음치유를 위해 '마음챙김'과 같은 서구 불교 명상 기법을 적극적으로 차용하고 전통적 불교명상법에 서구 심리치료기법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일선 사찰에서는 템플스테이가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혜민 스님이 설립한 마음치유학교 역시 광범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바탕에 둔다. 이는 "힐링 프로그램 쇼핑몰"이며 "고객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우혜란 연구원의 설명이다.

이들 프로그램의 특징은 불교적 색채를 줄이는 데 있다. 이에 대해 우혜란 연구원은 "마음치유 프로그램은 한국사찰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면서 "이들 프로그램은 불자에 국한되지 않으며 상당 부분은 불교적 색채를 거의 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現 불교 마음산업 전반 분석

불교 색채 빼고 대중화 집중

영향 증가 · 조직 약화 '딜레마'

교불련, 4~6일 동화사서 대회

'4차산업과 불교' 논문도 다채

또한 마음치유 프로그램은 신자유주의 경쟁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에 대해 우혜란 연구원은 "명상 치유 프로그램이 신자유주의의 맥락에서 논의되는 것은 이들 프로그램이 체험상품으로서 신자유주의 경제체재 안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라며 "또한 신자유주의 경쟁사회에 지친 개인에게 위안을 주고 다시 신자유주의 체재가 요구하는 '모든 상황에 유연한 인간'으로 기능하게 만든다"고 진단했다.



(사)한국불교수불자연합회는 오는 7월 4일부터 6일까지 대구 동화사에서 '4차산업과 불교'를 주제로 한국교수불자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손문철 대구지사장

불교계 마음치유 사업의 영향으로는 △새로운 지도자군의 등장 △불교적 정체성 약화와 신도 감소 △불교와 심리학의 경계 약화를 제시했다.

우혜란 연구원은 "불교는 대사회적 경계를 낮춤으로서 자신의 문화사회적 영향력을 높이지만 같은 이유로 강하게 결속된 신도층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자기모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템플스테이와 같이 일반 대중이 널리 이용하는 사업이 있음에도 한국불교가 빠르게 신도를 잃고 있는 것과 같은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불교계의 마음치유 사업은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 속에서 '종교'의 독립적 영역을 주장하기가 점점 어렵게 됐음을 보여준다"면서 "이런 의미에서 한국불교가 마음치유 사업으로 인해 조직에 헌신하는 신도를 잃는다면 조직 종교인 불교에 해당 사업의 추진이 궁극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지를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교수불자대회는 기조강연, 특별강연을 비롯해 30여 편의 연구논문들이 발표됐다. 기조 강연으로는 김성철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가 '4차산업 문명에 대한 불교적 조명'을 주제로 진행했다.

안성 칠장사 대웅전 '보물' 승격된다

문화재청 4일 지정예고…명칭 수정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14호 칠장사 대웅전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현재 경기도 유형문화재 '칠장사 대웅전'을 '안성 칠장사 대웅전'으로 명칭을 바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7월 4일 밝혔다. 또한 경기 수원시 소재 '수원 화령전 운한각 · 복도각 · 이안청(사적 제115호)'도 함께 보물로 지정예고했다.

보물로 승격되는 안성 칠장사 대웅전은 1790년(정조 14년) 중창되고 1828년(순조 28년) 이건된 건물로, 경기도 권역에 조선 후기 사찰 중심 불전의 건축 상황을 잘 보여줘 역사 · 학술적 가치가 크다.

전체 평면은 정면 3칸, 옆면 3칸으로 화려한 다포식 공포를 전후면에만 두고, 구조는 짓고 관리하기 쉬운 2고주 5량의 맞배집으로 처리했다. 대웅전은 공포의 구성과 더불어 덩굴무늬를 그린 초각(草刻), 내부의 가구(架構) 구성과 불단의 조성, 소란반자와 연등천장, 닫집을 함께 사용한 천장의 처리, 대들보와 기둥은 자연 그대로의 휘어진 나무를 활용한 점, 사방의 벽면에 둔 창호의 배열 등 18~19세기 불전 건축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또한, 천장 우물반자 청판에 화초 모양을 도드라지게 그린 금색의 고분단청이 일부 남아 있는데, 현재까지 전해오는 사례가 적어 가치가 크다. 고분단청은 호분(胡粉, 흰색 안료의 일종) 등으로 여러 번 칠해 도드라지게 한 다음 채색하여 입체감을 주는 채색법이다.



보물로 승격 예고된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14호 칠장사 대웅전의 공포와 현판.

문화재청은 "안성 칠장사 대웅전은 고려 전기 이래로 면면히 이어온 유래 깊은 사찰 건축의 전통에서 비롯한 특수한 모습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며 "대웅전 전면의 석축과 계단, 초석 등에서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수준 높은 석공작의 기법을 엿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칠장사(문화재자료 제24호)는 1014년(고려 현종 5년) 혜소국사(慧炤國師)에 의해 중창(重創)했으며, 정확한 창건 시기는 전하지 않는다. 대웅전에는 1685년 만들어진 안성 칠장사 목조석가삼존불좌상(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13호)이 모셔져 있고, 1628년 그려진 칠장사오불회괘불탱(국보 제296호), 1710년에 그려진 칠장사삼불회괘불탱(보물 제1256호)이 전해진다.

칠장사 경내에 안성 칠장사 혜소국사비(보물 제488호) 등 다수의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으며, 사찰의 역사를 전하는 사적기와 현판 등도 남아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안성 칠장사 대웅전'과 '수원 화령전 운한각 · 복도각 · 이안청'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학회 하계 워크숍

7월 19일 탄허기념관서

재가불자 신행 지침을 논의하기 위해 불교 지성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사)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성철)는 오는 7월 19일 오후 1시 서울 자곡동 탄허대종사기념박물관에서 하계 워크숍을 개최한다.

하계 워크숍은 1,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지난해 시간제한으로 마무리하지 못한 '재가불자 신행 지침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해인사 前 도서관장 원창 스님이 발제를 진행하며, 발제 이후 2시간 동안 모든 청중들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2부에서는 지난 2월 동국대에서 〈디그나가의 아포하론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동광 스님의 발제가 이어진다. (02)2263-1973 신성민 기자

최신 미술연구 성과 한자리에

국박 〈미술자료〉 95호… 송광사 오불도 재조명 등

최신 미술연구 성과를 만날 수 있는 정기 학술서가 발간됐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정기 학술지 〈미술자료〉 제95호를 발간했다"고 7월 2일 밝혔다.

이번 〈미술자료〉에는 회화, 조각, 공예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 논문 6편과 자료 3편을 수록됐다.

특히 불교미술 관련 연구들이 눈에 띈다. 정명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의 '1725년 의겸화파의 송광사 불조전 오십삼불도' 논문은 주목할만 하다. 순천 송광사의 '오십삼불도'는 18세기 전반 조계산, 지리산 등 전라도 일대에서 활약한 불화승 계보 가운데 의겸화파에 의해 제작됐다. 이 논문에서는 2016년 미국에서 반환된 순천 송광사 오불도를 포함시키고, 국립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 전신)이 1969년 실시한 송광사 조사 기록을 참고해 송광사 불조전 '오십삼불도'의 배치와 구성을 복원해 불교회화사적 의미를 규명했다.



또한 이승희의 '고려후기 관경16관변상도의 원류와 독자성', 심영신의 '인도의 신관과 불교 신장 이미지의 형상화', 배재호의 '현장의 귀국과 마하보리사 정각상- 서안 출토 선업니 불상을 중심으로', 고바야시 고지(小林公治)의 '동아시아 나전사의 관점에서 본 고려 나전의 성립' 등이 수록됐다.

문동수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통신사행렬도의 고찰' 논문도 주목된다. 이 그림은 조선 화원이 그린 국내 유일의 작품으로 그림을 배관한 일제강점기의 조선 총독 등 6명의 발문과 그림의 주제와 양식 분석을 통해 지금까지 1636년작이라는 통설을 깨고, 1764년경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했다. 자료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을 소개한 강경남 학예연구사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석제탁잔 소개'와 이수경 학예연구관의 '근대 평양 출신 여성화가 함인숙의 유작- 최미리 기증 2건의 6폭병풍을 중심으로'가 있다.

〈미술자료〉의 모든 논문과 총 목차는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학 연구 지형 분석하다

동국대 세불연 · 지성사硏 발표회 개최

한국불교학 연구 지형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와 한국지성사연구회는 7월 13일 오전 11시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제4차 월례발표회 겸 제15회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한국불교학 연구의 지형과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발표회에서는 신진 학자들의 다양한 주제의 연구논문들이 발표된다.

발표회의 주요 논문으로 △'천태교판에 대한 새로운 이해(이송곤/불교방송)' △'보조 지눌이 이통현 화엄을 수용한 이유와 배경(한가람/동국대)' △'조선후기 정토 염불 수행체계 연구(서재택/동국대)' △'백암 성총의 〈사경지험기〉 연구(이서련/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등이다.

논평자로는 오지연 천태불교문화연구원 상임연구원, 이복희 동국대 불교학과 외래교수, 정희경 동국대 불교학과 외래교수,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 등이 참여한다.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는 "불교학 연구의 지평이 유라시아를 넘어 세계의 시선과 무대로 확대되는 현실에서 우리 학문의 후속세대가 연찬하는 열린 마당과 등용문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고자 한다. 많은 관심과 성원과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박재완의 PhotoEssay



담장(어려운 일)

어려운 일이다
오늘이 시작됐다는 것도
누군가와 마주한다는 것도
어쩌다 올려다보는 구름은
어쩌다 마주치는 꽃 한 송이는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바라본다는 것은
살고 있다는 뜻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은
다시 내리는 저녁 앞에 선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매일 담장 앞에 서는 일이다



삼중 스님의 남기고 싶은 인연

㊱ 운보 김기창 화백

몸 불편하지만 따뜻한 인간미 지녀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인 운보 김기창과의 만남은 필연이자 우연이었다. 7살의 어린 나이에 장티푸스의 심한 열로 청각을 잃은 운보는 이후 어머니의 도움으로 미술가의 길을 걷게 된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부인 우향을 만나 서로 격려하며 함께 예술을 해나가고 세계로 진출해 전시회도 하게 된다. 운보를 생각하면 악조건 속에도 성실히 공부하고 재주를 갈고 닦는 사람에게는 큰 성과와 결실이 주어진다는 교훈이 떠오른다.

운보 화백은 내 절친인 구상 선생과 친했지만 나하고는 전혀 인연이 없었다. 그래서 1980년대 당시 사형수 포교를 위한 자선기금 마련 행사를 위해 미술계 당대 최고의 대가인 운보 작품이 필요했지만, 인연이 없어 연결이 안됐다. 그는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라 아무한테나 자기 그림을 팔지도 않을 뿐 더러 만나 주지도 않았다.

하지만 나는 기회를 만들었다. 당시 공포의 상징인 청송 교도소가 1981년 문을 열 당시에, 험악한 교도소 분위기를 상쇄시키고자 교도소 벽면에 그림을 많이 걸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이전에 영등포 교도소에서의 비슷한 경험이 있었고, 의외로 큰 호응을 얻은 터라 이번에도 자신이 있었다. 특히 청송 교도소에 꼭 운보의 그림을 걸고 싶었다. 그래서 연락처를 수소문해 비서 역할을 하고 있던 운보 의 아들에게 전화해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그 다음날 답이 왔다. 운보 선생이 전지 크기의 작품을 그려서 직접 들고 교도소를 방문하겠다는 것이었다. 운보 선생과의 첫 인연은 그랬다. 자신 그림에 누구보다도 엄격했던 운보가 재소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작품을 기부한 것이다. 법무부에서는 청송 교도소에 건립에 도움을 준 인사들을 초청한 '지역교정 참여인사 간담회' 를 마련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운보는 이 행사에 작품을 갖고 참석했다.

운보는 청각을 잃어 듣지도 못했지만, 말도 거의 할 수 없는 장애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참으로 따뜻한 성품을 지닌 예술가였다.

간담회 뒤 재소자들 앞에서 열린 그림 증정식에서 운보는 갑자기 일어나 자기가 재소자들에게 꼭 한마디 하고 싶다고 수화로 의사를 표시했다. 우리는 그의 돌발적인 행동에 잠시 당황했지만, 큰 기부를 한 그에 대한 고마움으로 뜻대로 하게 기회를 주었다. 아주 서툰 언어로 운보는 말을 시작했다. "아 이 나쁜 놈들아! 여기서 보니 모두들 잘 생겼구나, 멀쩡하게 생긴 건강한 놈들이 왜 죄를 지어 이 먼 곳까지 왔느냐? 나는 귀머거리고 벙어리지만 마음과 정신만은 건강하다. 하지만 너희들은 몸은 건강하지만 마음이 건강하지 못해 죄를 지은 것이다. 앞으로는 마음을 건강하게 잘 사용해라.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다"이러면서 호통을 쳤다. 간단하지만 촌철살인 같은 법문이었다. 나는 예민한 재소자들을 자극하는 것이 아닌지 전전긍긍했다. 하지만 잠시 장내가 숙연해지더니 여기저기 재소자들 사이에서 박수 갈채가 쏟아져 나왔다.

행사가 끝난 후 운보는 이곳을 방문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고 했다. 청송 교도소 안에 있는 말못하는 농아 죄수들을 만나보고 싶다고 청했다. 그는 "죄수들 방에 가서 직접 그들을 만나 대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교도소 측에서 그에게 특별 면회를 허락했다. 죄수를 보자마자 운보는 그들을 끌어 안고는 말했다. "농아가 된 것 만도 서러운데, 왜 이곳까지 와서 고생을 하느냐. 나와서 살기 힘들면 나를 찾아오너라. 내가 장애인 복지관을 하고 있으니, 그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1981년 운보 김기창 화백이 청송교도소 장애인 재소자들에게 자신의 그림 작품을 기증하고 있는 모습.

교도소에 작품 기부로 함께 교화활동
처지 비슷한 장애 재소자에 깊은 애정

이 일로 운보와 나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그리고 안양 교도소와 의정부 교도소, 제주 교도소 등 농아 재소자들이 많은 곳을 함께 찾아가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다. 운보는 아무리 친해도 그림을 절대로 공짜로 그려주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재소자들을 위해서만은 예외였다.

몇 년 전 제주 교도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증축해 옮겼지만 운보 그림을 계속 걸어 놓아 무척 반가웠다. 그리고 그와의 추억을 다시금 한번 되새겼다. 괴팍하고 자존심이 강한 성격의 소유자이지만, 운보는 한번 믿고 신뢰하고 가까워지면 한없이 잘해줬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제주 교도소에서 재소자 돕기 자선 행사를 하기로 했다. 운보가 제주에 온다는 것만으로도 제주가 들썩였다. 나는 50점 정도 그림을 모아서 제주 KAL호텔서 행사를 치르기로 했다. 운보가 온다니까 도지사와 지역 검사장, 법원장 등 지역 유지들이 그를 보기 위해 모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그런데 운보에게 자선 행사장에서 자신의 그림을 건다는 것은 미리 알렸지만, 개막식 행사에 참석해 테이프 커팅을 해달라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미리 말하면 운보가 안나올 가능성이 있어서다. 운보가 행사 하루 전에 제주에 도착하면 내가 친분을 이용해 개막 시간에 모시고 올 생각이었다. 만일 운보가 나오지 않는다면 나는 사기꾼으로 몰릴 판이었다. 제주 공항에 그를 마중하기 위해 나갔다. 그때 운보에게 사실대로 얘기하자, 운보는 예상대로 미리 자신에게 동의와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고 개막식 참석을 거부했다. 운보는 제주 교도소 행사 참석을 위해 온거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매정하게 잘라 말했다.

나는 미리 알리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표시하면서 운보가 내일 개막식에 참석하지 못하면, 나는 사기꾼으로 몰려 앞으로 교정 교화 활동도 못하게 될 것이라고 절박하게 애원했다. 그러자 운보는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더니 무엇인가 결심한 듯 비서보고 KAL호텔 행사장으로 가자고 해서, 나는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도 식은땀이 흐르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운보는 좋은 일을 위해서는 관용을 베풀줄 아는 인간미 넘치는 예술가였다. 그런 그가 오늘따라 몹시 그립고 보고 싶어진다. 정리=김주일 기자



"가정에 수호신을 모셔 주십시요"

달마대사께서는 부처님 다음으로 불교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시며 선을 대표하는 인물이시고 깨달음의 징표이십니다.

중국 소림사 한국본부 문화원 운영위원장겸 미술원 원장이신 청곡 이한동 화백님의 작품으로 한점 한점마다 수호신이 되어 집안을 지켜줄 것이며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하고 가족의 건강과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며 만사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7



8



9



남인도의 대바라문국의 셋째 왕자로 태어나신 달마는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부터 28대 조사가 되시는 분으로 인도에서 일어난 대승불교의 씨앗을 중국으로 가지고 와서 중국 선종의 초 조사가 되시는 분이시다, 양나라 무제와 결별하고 갈대 한가닥을 타고 양자강을 건너 숭산 소림사에 은거하며 9년 동안의 면벽좌선으로 크게 깨우침을 얻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내리고 중국 선종을 크게 부흥시키신 분이시다.

10



11



12



달마의 모습은 원래 왕자로 태어나 귀하고 잘생긴 모습이었으나 어느날 한 마을을 지나다가 어디선가 고약한 냄새가 풍겨나고 마을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근원을 찾아보니 어마어마하게 큰 뱀이 죽어 썩어가고 있어 달마가 자기 육신을 벗어놓고 뱀속으로 들어가 뱀의 몸을 움직여 깊은 바다속에 버리고 돌아와 보니 그사이 험상궂게 생긴 신선이 지나다가 달마의 몸을 발견하고 자기 몸을 벗어 놓고 달마의 몸을 가지고 가버린것이다. 하는수 없이 그 몸속으로 들어간 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달마의 모습인 것이다.

규격 : 54x120Cm 가격 : 100,000원, 2점 이상주문시 90,000원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TEL.02)2004-8216~4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